朝鮮日報 夕刊 十九日(木) 本紙夕刊二十面

上咳露 株式會社 同和藥房

英、西、丁、羅等諸國 對獨問責案贊成

伊太利와波蘭은反對意思表明

各國代表演說內容

聯盟理事會

【倫敦十八日發同盟】聯盟理事會는 十八日午後四時(日本時間十九日午前一時)부터 세인트제임스宮안 女皇室에서 公開會議를 開催하고 獨逸政府 問責案에關하야 討議를 開始하엿다 劈頭에 英國代表 이든外相은 問責決議案에 贊意를 表明하야가로대

獨逸政府는 라인非武裝地帶에 國防軍을 進駐하야 베르사이유條約의 第四十二條及 第四十三條를 侵犯한것은 掩蔽키 難한 事實이다 따라서 聯盟理事會는 라인保障條約 第四條第二項에 基하야 獨逸政府의 行動을 非難하는 決議案을 採擇하고 또 右認定을 締約各國政府에 通達치안흐면안되다 무릇 獨逸政府今回의行動으로 安全保障機構에 對한 信賴한 重大打擊을 蒙한것은 勿論이다 國際間의 信賴가 國際條約의 神聖에 依存하는것은 各政府가 함께 確認하는바이다 獨逸政府가 今回의 一方的行動으로 國際條約을 破棄한以上 各國政府는 互相協力하야 新機構建設에 努力하지안는限 國際間의 信賴는 回復할수업다 白耳義代表 방·젤랑首相은『國際生活의 再建에 各國政府는 全力을 傾倒치안흐면안된다』는 旨를 宣言하엿는데 英國政府는 白耳義代表의 賢明하고 勇敢한 宣言에 全幅의 贊意를 表明한다 理事會各國代表는 互相協力하야 國際平和維持國際法에 對한 尊重意思를 回復하도록 英國政府는 切望不已하는바인데 西歐安全保障機構의 設置에 當하야 英國政府는 自國의 役割을 다할것을 이에 確言한다

다음 伊太利代表 그란디大使는 佛白兩國政府의 立場에 同情을 表明하면서 制裁案反對를 表明해 가로되

佛、白兩國政府는 獨逸今回의 行動으로 不安을 感하고잇는 것은 當然하다 伊太利政府는 安全保障條約에 基하야 自國의 義務를 忠實히 履行할 方針이나 伊太利國民은 現在 聯盟制裁를 밧고잇는 現狀에잇서서 獨逸政府에 對한 制裁案에 參加할수는 到底히 업다 伊에兩國間의 紛爭에 關連하야 聯盟理事會가 伊太利政府에 制裁를 加한結果 로카르노體制의 政治的基礎는 顯著히 弱하게되엇다 이제 歐羅巴의 世界史는 바야흐로 轉換期에 直面하엿다 이 重大時局에際會하야 伊太利政府는 應分의 犧牲으로 危險을負擔하야 各國의 共同福祉를 增進하기를 不惜한다

이어서 波蘭代表베크外相은 自己의 立場에 關하야 左의 諸點을 力說하엿다

一、波蘭政府는 佛蘇兩國의 相互援助條約은 直接關係가 업스므로 從來公約에基한 波蘭政府의 權利義務에는 少毫의 變更도업다

一、波蘭政府는 歐洲各國間의正常關係가 確立되기를 希望하나 當該國의 參加업시는 어느나라의 利害도 國際間交涉의 對象으로할수업다는 原則을 確立하는것이 先決條件이다

다음 西班牙代表맏사氏는 獨逸政府問責案支持를 宣明하야가로되

獨逸政府는 라인非武裝地帶에 自國軍을 進駐시켜서 安全保障條約의 精神과 字句를 蹂躪하엿다 西班牙政府는 佛白兩國의 提議한 問責決議案을 全的으로 支持할것이다

最後로 丁抹代表 뭉크外相 羅馬尼亞代表 티튜레스코外相은 모다 問責決議案을 支持하고 特히 티튜레스코外相은 佛國의 安全을 確保하는것은 小協商各國에 對하야 絶對必要하다 라고 述하엿다 이리하야 討議前後二時間後 理事會는 午後六時散會하엿다 理事會는 十九日午前十時부터 公開會議를 續行하야 獨逸政府의 見解를 聽取한後 問責決議案을 票決에 附할터이다

(寫眞은 이든英外相)

플랑당佛國外相 五個條要求提出

英代表도解決案三個條項提示

로카르노小委員會

【倫敦十八日發同盟】로카르노小委員會는 十八日午後零時十五分(日本時間十八日午後九時十五分) 英國外務省會議室에서 開하고 英國代表이든外相 챔버렌卿 佛國代表플랑당外相 聯盟相포올·봉쿠르氏 白耳義代表방·젤랑首相 及 伊太利代表그란디氏出席下에 新로카르노體制에 關하야 協議를 遂하엿다 劈頭에 佛國代表플랑당外相은 五個條로된 要求를 提出하엿다 要求內容은 如左하다

一、佛蘇兩國間의 相互援助條約에 關하야는 獨逸政府에 對하야 常設國際司法裁判所에 提訴하고 또 裁判所의 判決을 受諾하기를 要請할것

二、獨逸政府를 除한 로카르노體制參加各國政府는 라인保障條約에 基한 自國의 義務를 確認할것

三、獨逸政府는 라인非武裝地帶의 進駐部隊의 一半을 撤收할것 特히 砲兵部隊는 라인非武裝地帶以東 五十키로의 地點까지 撤收할것 또 獨逸政府는 非武裝地帶內에 要塞를 構築치 안흘것

四、獨逸政府가 以上의 各項을 履行하는데잇서서는 來五月 獨逸政府와의사이에 新集團機構案에 關하야 交涉을 開始할것

五、英佛伊白四國政府는 獨逸政府와 交涉基礎에 關하야 即時 商議를 遂할것

以上 佛國代表提案에 對해서는 英國代表도 大體 同意를 表하엿다고 解釋된다 다음 白耳義代表방·젤랑首相은 로카르노體制確立에 至하기까지의 라인國境地帶安全保障案을 提議하엿다 英國代表도 獨逸軍이 佛白兩國을 攻擊할 境遇의 援助案에 關하야 大體 同意를 表明하고 白耳義代表의 示唆에 關하야 英佛白三國參謀本部間에 軍事的協議를 遂하엿다고 解釋되는데 結局 暫定的措置로 라인非武裝地帶에 英國軍을 中心으로한 國際警備軍을 駐屯시키게될것이 아닌가 觀測된다

英國代表는 英國政府가 라인非武裝地帶를 維持하고 佛白兩國國境線을 確保할 用意가 잇다고 言明하는同時에 佛國代表에게 對하야 特히 如左히 要請하엿다

一、東方國境線의 防備現狀을 維持하야 要塞强化를 圖하지안흘것

一、國境地帶駐屯軍을 增加하지 안코 또 同地域에서 演習을 行하지안흘것

一、佛白兩國國境內에 非武裝地帶를 設定하는提案以外에 劃一統制의 平和機構案에 關하야 討議를 할것

로카르노小委員會는 前後三時間半後 午後三時四十五分 겨우散會하엿다

리獨代表英京着 이든外相과會見

海牙提訴案에絶對反對를言明

英外相은穩健을要請

【倫敦十八日發電通】聯盟理事會의 招請에 應하야 倫敦에 特派된 히틀러獨總統의 心腹 리벤트롭大使는 隨員八名을 거느리고 十八日午後五時半 倫敦에 到着하자 即時 헤쉬駐英大使와 協議한後 午後九時 英國外務省을 訪問하고 이든外相과 會談하엿다 僅聞하건대 右初會見에서 리벤트롭氏는 佛蘇條約의 新締結이 로카르노條約에 抵觸되는與否를 海牙國際裁判所에 提訴하야 그判決에따라 本問題의 解決을 期하도록하자는 佛國側의 提案에 對하야 獨逸은 絶對反對이란 旨를 言明하고

一、佛蘇條約이 法律的으로 事實上로카르노條約과 一致되는 與否는 第二義的問題이오 事實上 政治的意味에서 佛蘇同盟이 로카르노條約에 依한 安全保障의 均衡을 破壞한것은 明白한事實이다

一、佛國이 海牙法廷의 判決을 듯기前에 이미 佛國은 佛蘇條約에 調印하고 또 批准하야 이를 確定해버렷다 今日 다시 法理論으로써 追及하는것은 極히 價値업는無用의짓이다 萬若 그判決이 佛蘇條約을 否라고 格判하면 그效果는 單히 佛蘇間의 公約을 密約으로 變更시키는데 끈칠것이다

라는 理由를 擧하야 正面으로 海牙提訴案을 反駁하엿다고한다 그리고 이든英外相은 多數試案의 誠意잇는 檢討와 討議에서만 國際協調가 生할것을 强調하고 十九日의 理事會에서 獨逸代表는 이精神으로써 終始하기를 要望하는 同時에 會議의 旋風을 防止하려고 리벤트롭氏에게 警告的으로 말하엿다

白代表起草의 折衷案要旨

【倫敦十八日發同盟】白耳義代表 방·젤랑首相은 로카르노小委員會의 委囑에 基하야 十七日夜半以來 英佛白三國代表의 覺書를 斟酌綜合한 折衷案起草에 着手하야 十八日午前十時 右起草를 完了하엿스므로 即時 同代表는 英國外務省을 訪問하고 專門委員에게 提示코 協議하엿다 折衷案要旨는 如左하다

一、軍事的協定

英佛白三國政府는 라인國境地帶의 安全을 保障하기爲하야 軍事的協定을 締結하야 三國參謀本部는 必要에 應하야 協議를 遂하야 軍事的協力具體案을 確立할것

一、國境非武裝地帶案

獨逸政府와의 사이에 交涉을 進行할期間中 라인非武裝地帶에 主로 英國軍으로된 國際警備軍을 配備할것

방·젤랑首相의 折衷案은 로

佛國領土內에 外國軍駐屯不許

佛國代表絶對反對

【倫敦十八日發同盟】로카르노小委員會는 新로카르노體制案의 確立에 關하야 大體 意見一致를 보앗스나 新體制案確立까지의 暫行案에關하야 英國代表와 佛白兩國代表의 意見은 容易히合致되지안허 倫敦會議의 形勢는 依然 極히 陰鬱하다 白耳義代表 방·젤랑首相은 英佛白三國代表의 覺書를 基礎로 折衷案을 起草하야 委員會에 提出하엿는데 英國代表 이든外相은 容易히 全面的支持를 表明치 안코 佛白 兩國代表와의 사이에 論爭을 反覆하엿다고 한다 目下 小委員의 爭點이라고 解釋되는바는 如左하다

一、常設國際司法裁判所提示案

英國代表는 提示案에 同意를 表明하고잇스나 裁判所의 判決을 尊重하도록 獨逸政府에 要求하는것에는 難色을 示하고잇다

一、暫定非武裝地帶案

英國代表는 佛、白、獨三國의 領土國境線으로부터 各其二十키로의 地點까지 非武裝地帶를 設置하고 獨逸領土에는 國際警備軍、佛白兩國領土에는英伊兩國軍을 駐屯시킬것을 主張하고잇는데對하야 佛國代表는 自國領內에 外國軍을 駐屯시키는데 絶對反對하고잇다 그래서 小委員會는 十八日午後十時 다시討議를 續行中인데 英佛兩國代表의 意見은 아직 一致되지안코 右小委員會의 結果에 期待되려잇는모양이다

이番에는對獨 形式的斷罪慫慂

〈變幻無常의英外相

【倫敦十八日發電通】十八日의聯盟理事會에서 英國代表이든外相은 獨逸이 베르사이유、로카르노兩條約을 侵犯한 事實을 再宣言하고 聯盟理事會는 速히 獨逸의 條約을 蹂躪한 行爲를 正式으로 確認하고 이를 로카르노條約國에 通告하라는 旨를 慫慂하엿다 十九日의 理事會에 리벤트롭獨逸代表가 到着出席한後에는 드디어 理事會에서 獨逸問責의 表決을하야 이를 獨逸政府에 投擲할 形勢에 잇는데 이든英外相이 右와 如히 理事會에 그處置를 慫慂한것은 爲先 形式的으로 獨逸斷罪를 決議하야 聯盟理事會의 面目을세워노코、徐徐히 新平和保障機構樹立의 善後措置에 進出하려는 意向이라고 解釋된다

카르노 小委員會에서 承認되면 即時 專門委員을 任命하야 仔細히 條約할터인데 專門委員會는 今週中에 確立案을 作成하야 二十二日의 理事會에 提出하고 承認을 求할 豫定이다 理事會가 承認한다음에는 히틀러總統의 『西歐洲新建設案』에 關하야 交涉을 開始할 터이다

佛國代表交替

【倫敦十八日發電通】十八日의理事會에는 佛國側에서는 플랑당外相에 代하야 봉쿠르無任所大臣이 出席하엿다

安岳의敎育熱

高普期成運動奏效

(一) 一記者

敎育은 아직 敎育의 必要를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마음으로 實感하는 이는 적다。自己子弟의 敎育은 알면서도 남의 子弟의 敎育은 모른다。年年、入學期를 當해서 入學難의 慘禍한 現象을 目前에 보면서도 增設에 對한 社會的努力이 顯著하지 못한것은 敎育의 必要를 衷心으로 깨닷지 못한 標가 아니고 무엇이며、能히 自己單獨의 힘으로도 學校를 設立할만한 사람으로도 自己子弟만 入學試驗、아니入學에 파쓰하면 그만으로 아는사람이 잇는것은 오직 自己子弟가 잇슴을 알고、다시 남의 子弟가 잇슴을 모르는 標가 아니고 무엇이랴?

이러한 雰圍氣속에 잇서서安岳人士들만은 마음으로 敎育의 必要를 痛切히 깨다럿고、남의 子弟의 敎育도 이것을 自己子弟의 敎育과 가리 알엇다。참으로 목이 마르는者는 울물을 파는 法이다。따라서 목이 마르다면서도 가만잇는者는 그實、참으로 渴症이 난 者가 아님을 아는 同時에 事實로 울물을 파고 잇는者는 그가 비록 입으로 말치 아니한다고할지라도 그는 물을 要求하는 마음의 明確한 者임에 틀림이 업는것을 알수잇다。安岳高普를 爲하야 今番、高普設立에 義務를 다한 人士의 十中八九는 다 입으로 말이 업시 오즉 울물을 파고 잇는 이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敎育의 必要에 對한 참된 覺醒을 알수가 잇는 同時에 無言의 實行에 對한 참된 價値를 알수가 잇다。

그러고 今番 安岳高普設立을 爲하야 誠意를 다한 無慮千名의 人士는 반드시 高普에 보낼 子弟가 꼭 잇서서 그런것이 아니다。도모지 子女를 가지지 못한 이도잇고、가젓서도 高普의 신세를 질 必要가업는 이도 만타。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런이들도 다 各各 自己力量의 밋는 限까지의 誠意를 다한것으로 말하면 自發的一體의 高貴한 義務와 誠意의 發露라고 볼수밧게 업고、따라서 남의 子弟의 敎育도 이것을 自己 子弟의 敎育과 가리 아는人士들이 아니면 不可能한 일이다。

나는 여기서 無慮千名에 達하는 安岳人士들의 姓名을 一一히 들지못함을 最大遺憾으로 생각한다。그러나 내가 여기서 그들의 姓名을 들고 안들고를 勿論하고 그들의 敎育을 爲한 社會的功績에는 一分의 增減이 업슬것이다。다시말하면 내가 姓名을 든다고 그들의 功績이 더 加해질理업고、안든다고 減해질理가 업슬것이다。

또한 그들의 社會的功績에 對해서는 出金額數의 多寡에 依해서 功績의 多寡가 判定될 性質의것이 못된다는 一點은 내가 여기서 特히 高調해야 될 義務를 가진다。勿論 돈의 價値를 客觀的으로 따진다면 두푼(二分)은 千兩의 五萬分의 一밧게 못된다。그러나 此를 主觀的能力으로 본다면 일즉에 貧者의 두푼은 富者의 千兩보다 더 貴한것이다。富者의 千兩은 먹고 입고 남음에서 나온것이다。寡婦의 두푼은 먹을것 가온데서 또는 입을것가온데서 그一部分을 節約함으로써 나오는것이다。

이런 意味로보와 나는 今番 安岳高普期成會의 境遇에 잇서서 各各萬圓以上을 出金한 金庸鼎、金庸僕、金澤亮、盧亨基、元楨溥、金應石、崔昌林 諸氏의 誠意보다 不足한 囊中에서 拾圓貳拾圓을 出金한 諸氏의 誠意에다가 幾培以上의 社會的價値를 더 부치는者이다。(續)

英國側新提案을 佛蘭西代表猛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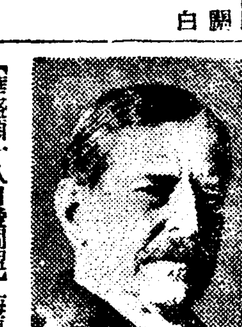
佛國境非武裝地帶設置案遂撤回

『로』條約國會議에서

【倫敦十八日發電通】十八日로카르노條約國會議에서 佛國代表는 猛然 十七日夜이든英外相이 提示한 暫定的新保障設置案 即佛獨逸國境線에 沿하야 佛國領土內五十키로米突幅의 非武裝地帶를 設定하려는案에 對하야 猛烈히 非難하고 꼿까지 强硬한 反對를 主張하엿스므로 이든英外相도 不得已右案을 撤回放棄하게되엿다

軍艦十八隻建造 兵員十萬으로增加

米海軍擴充案發表



【華盛頓十八日發同盟】海軍省은 十八日 今年度海軍勢力擴充計畫案의 全貌를 發表하엿는데 右案은 軍艦十八隻의 完成과 兵員增加를 包含한것으로 海軍長官代理안도류ㅡ스少將은 右에關하야 如左히 聲明하엿다

米國海軍은 『條約海軍』維持에 絶對必要한 建艦을 着着 實行할터인데 一九三六年에는 右의 十八隻建艦을 完了할 準備에 着手하엿다 航空母艦一隻、甲級洋艦一隻、巡洋艦三隻 潛水艦九隻、驅逐艦三隻

右各艦은 今年中에 海軍工廠에서 各各進水될터인데 海軍은 이以外에 現在 議會에 提出中인 豫算中에 潛水艦六隻 驅逐艦十二隻의 建造費를 要求하고잇스므로 法案이 成立될 때에는 一九三七年中에 即時 建艦에 着手할터이다 그리고 海軍當局에 右建艦에 必要한 百九十三萬磅의 鋼、精製를 米國製鋼會社及 國際鋼業會社에 命하얏다 또 右軍艦의 建造에 伴하는 兵員不足을 補充하기爲하야 米國海軍은 今後十五個月以內에 平時兵員을 十萬人까지 增加할 意向이다

(寫眞은 스완손米海軍長官)

失業救濟資金 十五億弗要請

米大統領兩院에敎書發送

【華盛頓十八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은 十八日正午 上下兩院에 敎書를 送하야 一九三六ㅡ三七年度 失業救濟資金으로 十五億弗을 計上하도록 要請하엿다

關稅問題圍繞코 冀察、冀東紛糾

【天津十八日發同盟】天津海關은 北寧鐵路局과 協定한結果 十八日 告示로서 三月二十一日부터 鐵道便으로 輸送되는 外國産貨物은 海關에게 檢查하야 右貨物이 申告書와 符合되면 鐵路局으로부터 下附되는 運輸免狀에 査證捺印하야 申告者에게發給코 右海關의 査證捺印이 업는 貨物은 鐵路局에서 그輸送을 拒絶하겟다는 旨를 發表하엿다 右는 冀東政府가 輸入稅率의 大引下를 斷行하얏스므로 冀察政權이 이에 對抗上 實施한것으로 關稅問題를 圍繞코 兩當局의 紛糾가 豫想되게되엿다

駐中蘇大使館 蘇中密約說否定

【南京十八日發同盟】中華民國駐箚 蘇聯大使 보고모로프氏와 國民政府間에 最近 對日、蘇中密約이 成立되엿다는 報道가 頻頻히 傳하고잇는데 蘇聯大使館에서는 十八日 午後 右報道를 否定하고 如左히 述하엿다

蘇中密約說은 데마도 甚하다 沒常識한 虛構이다

國境確定問題

日蘇兩國意見相衝

【東京電話同盟】滿蘇東部國境線의 確定問題에 關한 十六日의 大田大使와 스토모니야코프氏의 會談內容은 十八日 外務省에 公電이 到達하얏는데 蘇聯國側은 日本提議에 對하야

一、現行條約을 基礎로한 東部國境線의 確定

二、同地方의 紛爭處理委員會設置에 對하야 原則的同意를 表明하는것을 條件으로 滿蒙國境에도 同時에 擴張適用하고 십다

고 要望하엿다 그런데 滿蒙國境問題에 對하야 二日前인 十四日 大田과 스토모니야코프氏는 이미 滿蒙兩國의 直接折衝에 同意한다는 旨의 態度를表明하엿슴으로 大田大使는 即時그不信을責하엿던바 스토모니야코프氏는 右는 單純한私見을 述한데不過하고 政府로서는 直接交涉을 行할方針이란旨의 曖昧한 回答을한것이 判明되엇다 따라서 日本外務當局에서는 右公電內容을 檢討한 結果는 滿蒙問題는 東部滿蘇國境과는 別個로 進行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야 一兩日中에 廣田外相으로부터 大田駐蘇大使에게 訓令을 發하야 日本基本方針을 履行케하기로 되엇다

災害追加豫算 二千數百萬圓承認

【東京電話同盟】大藏省은 十八日午後三時부터 大臣官邸에 第一次豫算省議를 開催하고 馬場藏相、川越次官、賀屋主計局長以下各局部長이 出席하야 賀屋主計局長으로부터 十一年度實行豫算編成에 關한 方針을 說明한다음 內務關係災害豫算을 審議하엿다 그런데 內務省으로부터 十一年度에 計上할 災害豫算은 約三千萬圓을 要求中인데 이는 前內閣에서도 當然 追加豫算에 計上하고 特別議會에 提出할것이엇스므로 新內閣에서도 勿論 從來의 方針을 踏襲하야 二千數百萬圓에 査定한後 追第一號에 計上하야 特別議會에 提出하기로되엇다 또 右財源에 關해서는 從來대로 實行豫算編成에 依하야 生하는 歲入剩餘와 赤字公債로써 이에 充當할터이다

共軍河北潛入時 斷乎自衛權發動

日本軍中央部의決意

【東京電話同盟】駐中蘇聯大使보고모로프氏는 最近 猛烈히 暗躍하야 國民政府와의 사이에 軍事的政治的提携 密約工作中이라고 傳하는데 日本軍中央部는 最近 蘇聯共產分子의 北中策動이 特히 活潑化하야 赤化運動이 漸次擴大될 徵兆가 잇는데 對하야 重大關心을 示하고잇다 即 北中에잇서서의 赤化分子의 活動은 冀察政權의 樹立前後로부터 漸次表面化하야 共產軍의 山西侵入開始의 二月下旬頃부터 俄然 活潑한 動向을보여 共產軍과 어떠한 脈絡이 잇는것이아닌가하는 疑心이 濃厚해지고잇다 그나마 山西軍은 獨力으로 共產軍을 自省으로부터 擊退식히리라고 全혀 期待할수업서 同省內의 共產地區의 建設은 不可避의 情勢가 되엇다 共產軍의 山西省蟠居는 河北、山東省의 赤化分子의 活動을 俄然刺戟하야 冀察政權도 赤化、脅威에 衝迫하게되어 冀察政府와特殊한 關係에잇는 日本으로서도 赤化勢力의 山西侵入과 北中進出에 重大考慮를 하지안흘수업는 情勢가되어 多田中國駐屯軍司令官은 情勢를重大視하고 그推移에 至大關心을 가지고 萬一 共產軍이 河北省內에 侵入해오는일이잇스면 赤化防衛의 見地에서 斷乎 그魔手를 排擊할 手段을 配合할 決意를 굿게가지고잇다 軍中央部도 共產軍이 北中에 侵入할 境遇에는 日本權益擁護의 立場에서 自衛權을 發動함도 不得已하다는 見解를가지고잇는모양이므로 山西省에 侵入한 共產軍이 今後進路를 如何한 方面으로 取할는지에 依하야 北中內蒙古를 中心으로한 日滿蒙中蘇關係는 極히 微妙 또한 尖銳化할려고 日本軍中央部에서도 共產軍動向에 對하야 深甚한 注意를 하고잇다

八面鋒

◇京城의 洞名을 期於히 町으로 고친다고。理由는 統一을 하기 위함이라고。

◇統一이 아무리 便하다는 곤 由緒와 오랜 歷史를 가진 洞名을 고친은 餘實히 文化侵犯。

◇年給 올리는데 「一言도 『안한』府會議員 이번은 「一言도 『못해。』

◇이 惡稅適量을 한 府當局者、一言도 開口치 못하는 府會議員을 「齊하 辭職」可。

◇府內 普通學校 兒童의 轉學補缺은 府에서 마라본다고。

◇府의 할일도 엇나봐。맛지 못할 先生들이라면 애초에 任命은 웨햇노?

◇尹山溫博士 安息年으로 一年間 歸國햇다 오다고。

◇한동안 散亂햇든 머리를 暫時라도 쉬고 오시오。

人事·集會

◆金觀植氏(咸興永生高普校長)十九日入京 中央호텔에 投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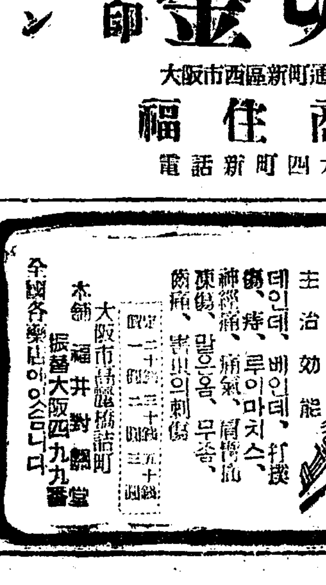
作業服 カタログ送呈
大阪天王寺區東平野町二ノ三四
作業服 卸問屋 宇鷹一夫商店
電話天王寺一九七七 振替大阪一四〇〇九番

スプリングと鋼線
山添發條株式會社
電話 振替大阪八一〇九〇

人絹端切各種卸
◎モスリン、綿ネル、絹ポプリン、本セル金巾、四綫、朱子、人絹
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懇切히指導합니다
大阪市南區反屋橋東詰 大阪商局第一三三號
(商報送呈 見本은要五十錢(切手))
合資會社 津村商會
電話南一四八九番 振替大阪二三八三三番

問屋 錢入 金現物袋
大阪市東區博勞町一ノ三六
株式會社 廣島屋本店(商報呈)
電話船場

製鋼 タングステン 最高級國產
印タイタン 双鉅切金
大阪市西區新町通四丁目十三
福住商店 (カタログ呈)
電話新町四六五六番



外用塗藥 不可飲
神經痛・루마치스・打撲傷・處傷・데인데
主治効能 데인데、베인데、打撲傷、痔、루이마치스、神經痛、痛氣、肩凝痛、頭痛、말을옴、무좀、齒痛、害虫의刺傷
大阪市 本舗 福井對翫堂 振替大阪四九九番
全國各藥店에잇슴니다

朝鮮向各種織物卸商
人絹、交織、本絹織物、毛織、綿布、麻布、其他流行各種、織物格安二等品及端切
大阪市南區末吉橋通二丁目長堀橋西二丁目中橋北詰
合名會社 森田加一商會
【森田商報進呈】

國旗 會旗 優勝旗
大阪 五町 田中旗店
日本毛織旗布 バンテン手販賣
カタログ送呈

營業品目
裏地アルパカ 紗天甲斐絹 スレッキ類 和洋ボタン 綿絲 絹絲
(カタログ送呈)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 西野卸店
電話東二七二六 振替大阪七三三七五

優勝旗 校·會·旗 青年團旗 附屬品一式 青年學校旗 正式國旗
旗問屋 上田旗店
カタログ進呈

合番椒粉
밀국수·소바·豆腐其他여러가지반찬에고초가루
(고초가루)

校門못드러서는兒童爲해 北村總代遂蹶起

十九日聯合會臨時總會

普校入學查定압두고 市內父兄의이烽火!

시내 각공립보통학교의 입학사정일(査定日)을 압두고 겨우다섯해동안남기고 어린자녀들을둔 일반가정에서는 례년의 쓰라린 체험에의하여「입학이냐? 락제냐?」하는 두가지 기로에 서서 그운명이 결정될날을 초조하게기다리고 잇는 요지음 시내북촌칠개소조선인정、동(町、洞)총대들은 해마다 당하는 아동교육상의 중대한 문제를로의코저 십구일오전열시반 다옥정(茶屋町)칠륙번지 정동련합회(町洞聯合會)안에서 제삼십이회림시총회를 열엇다。

이 총회석상에서 의안의끝자가 된것은 시내초등학교입학난완화책에 관한것으로 칠십륙정동총대중 삼십칠정동총대출석아래 몬저 그회장량재창(梁在昶)씨 대리로 상무리사정규환(鄭圭煥)씨가 림시 좌장이되여 개회를선언한다음 의제에드러가서「부학무당국에서 우리 조선인부민들에게 각종세금을 고루바더가면서 해마다느러가는학령아동들을 모다수용해줄만한학교를 증설해주지안는까닭에 매해 입학못되는 아동이 사천팔백여명 즉 지원자수의오할밧게 입학못된다는것은 자제교육상중대한문제일뿐아니라 부민된 그보담 직접관계자된 정동총대인우리들로 한가할수업는일이므로 학무당국에 대하여 이문제를드려가지고 입회해줄것을 요구하여야만 될긴급한당면문제에 처해잇다」는취지설명과 아울러지난 칠일에그리사회(理事會)에서 결의한 결의문랑독이잇슨후 일반도의 애드려가각 정동총대들로부터 부학무당국에 대한 가지각의 불평을말한바잇섯다。 즉대체의 의견으로는 경성부제일부(第一部)교육자금은 국고보조(國庫補助)로 매학교에대해서 년구백원외에 지방비보조(地方費補助)로 다시매교에 륙백원과 매학급마다백오원을주는데다가또다시지방비보조라는명목으로 매학급에 이백십원식을 주면서 제이부(第二部)즉조선인 아동을 교육하는 보통학교에는 지방비보조로 한학급에 겨우 백오십륙원외 전경성공립보통학교의 수업료(授業料)보조금으로 학무과(學務課)에 대하여 겨우 일년경비로 삼만오천원을 보조해주는 현상이즉 너머나현격한 차별이란는것이다。

그다음 리사회에서 제출한결의안(決議案)을 상정하여 갈론을박의 토론이잇슨후 일부수정을하여 다음과가티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오후령시반에 폐회햇다。

簡易校舍도조타 二部制도조타! 强硬한決議案가지고府에陳情

▽決議案△

첫째——현행제도의 교수방법을 고처서 당분간 오전、오후로난호아 이부제(二部制)를 실시해가지고 수용아동의 능력을 배증케해줄일。

둘째——현재의 화려하고 굉대한 벽돌집도조치만 그보담도 질소하고 견실한 목제(木製)라도 지으게되면 현재쓰는 보통학교한개의 비용으로 두학교내지 세학교도 훌륭하게맨들수잇다。

셋째——현재 부민이 부담하고잇는 각종세금은 결코적은것이안이나 만약 그재원(財源)이 부족하거든 적당한방법을 강구하여 충용하도록 부당국에 일임할。

그리고이상과가튼결의안을 룡파시킨 시내정동련합회림시총회에서는 곳진정위원으로 사직동(社稷洞)정규환(鄭圭煥)、적선동(積善洞)리동혁(李東爀)、관훈동(寬勳洞)안승복(安承馥)、혜화동(惠化洞)조정환(曺正煥)、화동(花洞)송량호(宋良浩)、행촌동(杏村洞)송창환(宋昌煥)씨등 여섯총대를 선거하여 명이십일오전열시 경성부청으로 이달(伊達)부윤、등강(藤江)학무과장등을방문하고 결의안을 수교한후 그실행을 철저히 요구하는한편 부당국의반성을 촉하기로되엿든데 그결과여하는 시가가시기나 만치 일반부민의큰주목을 끌고잇다

高工卒業式 十九日에擧行

崇專問題도一段落 尹氏、安息年으로歸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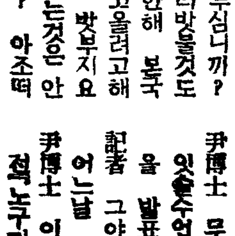
廿一日朝、特急으로平壤出發 明年八月다시歸壤

숭실전문학교장 윤산온(尹山溫)박사가 어번 귀국함에 대하여 일반의 추측도 구구한바 업지안흠으로 과자는 십팔일 오후에 경창리(景昌里) 윤박사의 자택을 방문 면회하고 다음과가튼 문답을 하엿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윤박사의 금번의 귀국은 안식년인관계로 귀국함이오 결코 조선의땅을 아조 떠나버리는 것이 안임을 충분히 립증할수잇섯고 따라서 윤박사가 최후까지 조선 사람을 상대매 교역자생활을 하다가 조선의땅에 장사지내겟다는 가륵하고 아름다운 감격에 넘치어굿게 악수하종교가다운 인정미를 오직 고혜여젓다

【平壤】신사참배문제에 관련되여 숭전과 숭의의 교장을 당국으로부터 파면당한 윤산온(尹山溫)박사는 금번에 바로 안식년(安息年)인관계로 이십일일 오전렬시「이신상분발 특급「노조미」로 부인과 동반하여 평양역에서 출발하게 되엿다 이사건이 잇슨뒤이라 윤

"一片丹心오로지 朝鮮의친구고저"

再逢을約束하는老博士



기자는 잠시나마 복잡한 문제의 화중에 잇다가 이제 낙착을 지은뒤에 아직 여독마저 잠시귀국하는 로박사의 심경을 무러다

記者 얼마나 밧브십니까?

尹博士 무얼 그리밧블것도 업서요 그저 한해 본국에 가서 쉬이고올려고해서 출발준비가 밧브지요

記者 이번 떠나시는것은 안식년관계입니까? 아조떠나시는것입니까?

尹博士 원 천만에요 예정대로 안식년관계로 떠나지요

記者 어떤편에서는 아조떠나신다말하는데요?

尹博士 무어요? 그럴리가 잇슬수잇겟지요 나는것짓말을 발표한일이업지요

記者 그야그러치요 그런데 어느날 떠나시겟습니까?

尹博士 이십일일 토요일오전 노구미로 평양을 떠나 이십륙일 신호(神戶)를 출발하야 귀국하겟소

記者 언제나 도라오실렴니까?

尹博士 명년팔월초순에 평양에도착하겟습니다

이상과가튼 대화를한후 윤박사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여 일천구백이십일년 선천(宣川)에서 일어낫든 폭탄사건때에 주위의 사정이 엇절수업시 귀국햇섯슬때에는 다시 도라오지못할것가튼 감상도 업지안헛섯스나 이번의 문제로는 마엽안식변만 안이라면 귀국할리유조차업고 교장의 직무를 일헛다고하지만 어대까지나 배후에서후원하여 교세를 옥 진전식힐각오와 결심을하고 잇다고 력설햇고 다시 조선형제들에게 다시맛날때까지 신체가 건전하기를 귀지를통하여 전달하여달라고 힘잇게부탁하엿다 (사진은 윤박사)

志願의不均等을

府에서場所따라各校에配定

시내보통학교의 금춘입학년의모집정원은 겨우오천명밧게 못되는데 그지원자는 일만이십일명으로 배가되여갓다나 심하든입학난은 금년에들어서 더심각하게되엿다 그런데 학교에딸아서 배되는지원자가 정원수보다 삼배사에서 바든지원자수에의하여 고사를한다면 어떤학교에서는 그리경쟁이업시 입학될수잇는곳도 잇스나 어떤학교에는삼대일 사대일의 격렬한경쟁을 하게됨으로 가튼경성부민의자녀로 어떤곳에서는 쉽게입학되고 어떤곳에서는 어렵게되여 결국입학되지못하는 수효가 만코 적어서는 불공평이 생기게 될터임으로 경성부에서는 지원자만흔 적은 학교로 지원자의 주소를 보아서 가장 갓가운 학교로 넘거기로 하엿다。 그래서 그동안 각학교당국자와 부학무과에서 지원자를 배정한결과 아래의 표와가티 되엿는데 이로써 어느학교이나 지원자의 경쟁률은 균등하게되엿스며 지원자가 다른학교로 넘어간것은 곳 우편으로 통지로 발하기로 되엿다 한다

學校名		學級數	當初志願數	配定數
校洞	男	二	三五九	二六七
	女	二	二七三	二一五
齋洞	男	二	二七四	二五八
	女	一	一七〇	一七〇
於義洞	男	二	二六五	二四五
	女	二	二四八	二四四
仁峴	男	二	二六五	二六五
	女	一	一三八	一三八
水下洞	男	一	一九八	一一〇
	女	一	一八〇	一五〇
貞洞	男	二	二四六	二四六
	女	一	一五五	一一二
梅洞	男	二	三一九	二八〇
	女	二	二四三	二三一
漢洞	男	二	三六一	二七〇
	女	二	二三三	二〇三
麻浦	男	一	三二八	三二八
	女	一	一〇一	九五
德壽	男	二	三三七	二三七
	女	二	二六一	二五一
龍山	男	二	二五四	二九一
	女	二	二二九	一八七
昌信	男	二	三一五	二一五
	女	二	二四一	二四一
壽松	男	二	二四四	二六〇
	女	一	一四六	一五一
孝昌	男	二	三三六	二七六
	女	一	一一九	九五
舟橋	男	二	二四五	二四五
	女	一	一五四	一五四
清雲	男	二	二四七	二六四
	女	一	一五二	一六〇
竹添	男	二	二〇九	二三〇
	女	二	一四八	二三六
惠化	男	二	三三九	二三九
	女	一	一七七	一一九
新設	男	二	二六六	一七〇
	女	一	一七九	一一〇
漢江	男	一	九九	九九
	女		二三	二二
龍江	男	一	二一九	二〇四
	女	一	一一六	一一六
阿峴	男	二	三四五	三六〇
	女	一	一三四	一三四
往十里	男	一	一七八	一七八
	女	一	五〇	五〇
崇仁	男	一	二〇六	二〇六
	女	一	六六	一一〇
永登浦	男	二	三七六	二九九
	女	一	一七六	一二八
計	男	四三	[illegible]	[illegible]
	女	三二	[illegible]	[illegible]

"튜럭"담벼락에衝突

小兒一名담미테깔려卽死

부내본정(本町)삼정목 굴(堀)운송점자동차운전수 리복만(李福萬)(二一)은 경(京)재칠칠일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부내광화문통(光化門通)칠십칠번지 군사령부 귀숙사안으로부터 박그로나가려하다가 잘못담과 충돌하야 담이 무허젓는데 담이문허지는바람에 담아래에서 마츰 놀고잇든 부내적선동(積善洞)에사는 종로소학교삼년생 아부영선(阿部榮善)(一○)은 무참히 치어죽엇슴으로 소관종로경찰서에서는 게원이 곳현장에출동하야 현장을검정하는한편 운전수를 엄중취조중이다 (사진은 참변현장)

안해죽인男便에 懲役十三年言渡

지난일월팔일에 가정불화로 말미암아 임신오개월중에 잇든안해 리씨(李氏)(二五)를 때려죽엿다는 강원도홍천(洪川)서구성(徐九成)(三七)은 십구일 오전경성지방법원에서 이진원(伊集院)재판장으로부터 지난번 검사구형대로 징역십삼년의 판결을 언도하엿다

天氣豫報

豫報 京城地方 今夜大體로晴天 明日흐리기쉽다 京畿全道 今夜同上 明日同上

昨日 最高 三度三分 最低 零下五度四分 今朝(六時) 零下四度七分 今日正午 四度六分

町洞마다掃除夫두어 塵埃「인풀레」防止

京畿道衛生課에서强行豫定

경성부내 집집마다의 쓰레기는 종래 경성부청 소제부가 일주일가량마다한식 도리다니며 집집마다 장치해논쓰레기통에 모와진 쓰레기를 처가게되여 잇섯는데 소제부의손이 미처도라가지못하야 쓰레기통이 넘으면 통옆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여 위생상으로도 조치못할뿐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쓰레기통을 죽 거리에 느러노와두는것이 조치못하고 또 쓰레기통을 준비안하는집도 잇는한편 쓰레기가 오래동안 통속에서 썩을때에는 냄새가 몹시나고 여름철에는 파리를길르는곳이되야 폐해가 만흠으로 경기도위생과에서는 그간 여러가지로 쓰레기 처분방법을 연구중이든바 경비는들더라도 각정동에 인부를두어 매일아츰마다 집집마다 모혀진쓰레기를가저다가 경성부의 지정한장소에버리면 경성부청의소제부는 이곳의 쓰레기만 매일처가도록하야 쓰레기통을 전페식힐예정이라는데 이방법은 경비관계상 급작히 실시할수업슴으로 우선종로와가튼 큰거리에는 매일 소제부에게 쓰레기마차를 끌고다니며 장가튼것을 치게하야 그소리가 나거든 주민들은 각각자긔집의 쓰레기를 마차에까지 갓다버리게하는 방법을취하리라한다 명치정(明治町)、욱정(旭町)、수정(壽町)에서는 이미 각각전임인부를두어 쓰레기를차서 조흔결과를엇고잇슴으로 도위생과에서는 오는오월쯤 각정동대표와 련락하야 위생상으로나 미관상으로나 가장조흔전긔방법을속히실시할예정이라한다

閨房에侵入한面書記 뜻못이루자放火逃走

강원도 화천군 상면 파포리(華川郡上面巴浦里) 상면면서기로 잇는 한상우(韓尙愚)(三三)는 십오일 오후아홉시경 그동리 김형우(金亨雨)(假名)의 집 전부석(全富石)(二一)의 자는방에 들어가서 그에게 폭행을 하려하다가 거절을 당하자 그는 그녀자의 목을 누르다가 이상스러운 소리에 이웃집에서 자든 사람들이 달려오는소리가 나매 박그로 나가 석냥을 켜서 전부석의 집청아에 불을 질르고 어데로 종적을 감추어슴으로 소관화천경찰서에서는 련락하야 그의 행방을 엄탐중이라한다

"아나"事件公判開廷

被告들 犯罪事實을 全然否認 金山牧師를證人으로呼出

관서 흑우회(關西黑友會)원으로 평양유정(平壤柳町)오십이번지사는 채은국(蔡殷國)(三二)과 동방무정부주의자련맹(東方無政府主義聯盟)원으로 서울통동(通洞)륙십삼번지 사는 리정규(李丁奎)(一名又觀)(三○)량명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 피고사건은 지난 십칠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 향천(香川)검사의 담임으로 제일회공판이 엇섯는데 사건당변호인 소완규(蘇完奎)서광설(徐光卨) 두변호사로부터 증거신청을 하엿든바 십구일에 재판소에서는 직권으로 평양흥강(興岡)사는 목사(牧師) 김산(金山)씨를 호출하야 증인으로 심문하기로 결정하엿다

사건내용은 피고량명이 소화구년팔월에 그들동지 사오명과 가티 서내관철동(貫鐵洞)제일문구점(第一文具店)에 모히어 조선안에서 무정부주의운동을 전개시킬것을 협의하엿고 또그해구월에는 평양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기숙사와 평양서문통(西門通)숭현학교(崇賢學校)기숙사에서 좌익민족주의자(左翼民族主義者)와 무정부주의자가 서로 만나 제휴하야 현사회 제도의 타파운동을 이르킬 협의를 하엿다는 것인데 피고들은 그밧게도 수차 모혀서 협의를 하엿다는 것인데 피고들은 친구들 끼리 모혀 논일은 잇스나 무정부주의운동을 전개시키려는 협의를 한일은 전연업다고 절대 부인하엿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자백하엿느냐고 무를때 그것은 고문으로 심한 취조를 바덧기때문에 허무한자백을 하엿다고 대답하엿다

中等校合格者

中央高普

金基泰 金禎泰 桂鳳一 鄭玩洙 李鎬天 金定遠 高宗元 李鎔九 權赫衡 曹桂南 張益模 申鉉珏 金東元 崔基洪 朴淳鎬 康永昌 張榮基 趙東瀚 朴炳道 金玄起 南大府 李根壹 許潤 林榮圭 朴基洙 洪性俊 洪鍾赫 鄭闕昌 洪思璧 文鍾博 金泳善 明時純 姜大俊 洪錫範 崔文奎 李炳浩 李廷振 安同熙 金榮琪

許喆 李明洙 朴浩烈 洪宇英 金奎恒 金鐘浩 李午薰 宋奎五 陸源擺 吳振 姜大馨 李南淳 金四喆 金源植 金鍾述 韓泳祚 張禹哲 金炳基 鄭民熙 鄭彌燮 金璿泰 金堯建 李相敦 崔文植 李相贊 朴龍燦 金必鍊 李容夾 朴成坡 李鍾文 高文錫 趙容健 尹炳奭 李大鎬 李昌根 金東澤 金敦性

文履京 南基洞 朴兼根 金炳勛 曹根 金相五 金用駿 金斗鉉 張益化 李思權 宋憲圭 趙昌錫 李相桃 金泰鎭 全宗植 金甲重 徐丙化 李東薰 高光先 尹完成 朴三[illegible] 兪東根 朴基默 李麟馥 閔亨植 全周萬 朴良元 金柄相 韓善奎 姜吾遠 成奉善 鄭云植 金京洙 延琦星 洪七貞 鄭夏鵬 鄭顯弼 金永祖

金勝煥 河仁壽 申相浩 趙道濟 郭海完 金秀經 崔吉鉉 安瑨煥 朴淳英 全鳳信 金阿奇 金祥奎 金若鎬 柳熾 朴恒圭 權五範 鄭耆謨 李炳斗 車東基 金東潤 鄭萬榮 沈鏞鉉 陸海植 安成泰 李鍾達 金興東 朴鍾華 李公雨 車哲放 池榮宇 沈宗弼 金仁中 表允鉉 朴章熙 朴奇烽 金永玉 金聖東 鄭求昌

올림픽蹴球候補金君 合宿練習次로渡東

世界올림픽大會蹴球派遣候補選手인 普專蹴球部主將金容植과 專의金永根兩君은 來二十五日부터 三週間東京早大球場에서 열리는 第一次合宿練習에 參加코저 二十一日밤十時五分 京城驛發列車로 渡東할터이라한다

關西陸上代表合宿 마라손孫君參加

近畿陸上競技協會에서는 十八日로부터 近畿以西地方올림픽候補選手의 合宿練習을 美吉野運動場에서 行하기로되엿는데 마라손에는 世界最高記錄保持者孫基禎君을 爲主로、鹽飽、中村等의 驍將들이 參加할터인바 孫君은 二十一日에열릴 第四回京仁間驛傳競走大會를 마치고 곳合宿練習次로 出發할터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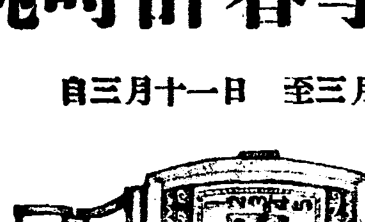
아마拳聯委員會

全朝鮮아마추어拳鬪聯盟에서는 來四月八日 東京 日比谷公會堂에서열릴 世界올림픽 拳鬪派遣選手權 決勝에 三選手를 派遣코저 同聯盟委員會를 二十一日午後五時부터 同事務所에서開催할터이라한다

運動界人事

◆李吉用君（[illegible]日大生）이 [illegible]에就職

平壤 高級綢緞專門 廣林商會



腕時計春季特賣

自三月十一日 至三月卅一日

祝御入學 祝御卒業

クローム側10型ライト7石入丸型	リボン又は皮付	¥6.30
〃 10型セイコー 10石入〃	〃	¥7.25
〃 9型ネーション7石入〃	〃	¥6.00
〃 8型ロビン 7石入〃	〃	¥7.90
〃 8型セイコー 10石入〃	〃	¥9.20
〃 9型ネーション7石入〃長角型皮付		¥7.50
〃 8型シチズン 10石入〃變型皮付		¥9.70
〃 9型セイコー 10石入〃長楕型皮付		¥8.75
〃 8型セイコー 10石入〃長角型		¥11.00
十八金側8型カムデン15石入丸型リボン付		¥21.50

大澤商會京城支店 京城本町一丁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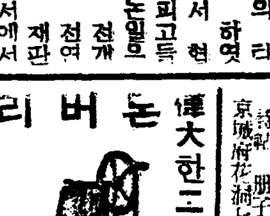
小資本이라고걱정업다 商賣繁昌 伊票의製品은人氣의中心。熱狂的歡迎을바라는新商人에 魅力의焦點이되야全鮮海外에까지 광장한好評을獲得하고잇다 ◇ 實로놀낼만큼팔닌다。자미날만큼 利益을본다……同業他店에서놀낼만큼成功繁昌。急스피ー드의繁榮招來ー商業의成功은商品에잇다……새人에는平凡한眞理가尊重

理髮美容用品 文化商品伊藤製 製造輸出入 伊藤萬商店 東京市下谷區御徒町三丁目 上野驛前昭和通

場所時節不關小資로容易히누구나開業되며 化粧品店雜貨店等에只今곳確實安心、有利商品의當店通信販賣部開設以來滿十八箇年 同의休刊도업시發行(毎月)いとうタイムス四六倍判百頁內外의大商報滿載、貴店名捺印「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記入申込卽送呈、但商人外는不應

山羊乳 朝鮮配達 明本山羊牧場

조흔家庭工業 논버리 最高의社會的意義잇는大事業을進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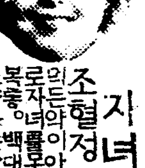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함 第一 第二 內外貿易 株式會社 大阪市

朝鮮書家 扁額 詩箋 冊子 京城府花洞七七 [illegible]揮毫場

和盛旅館

京城自動車學校生徒募集 學則要二錢切手 認可 京城府太平通(電話本(2)○四九一番)(振替京城一三一七番)

東光醫院 內科 外科 花柳病科 皮膚病科 X光線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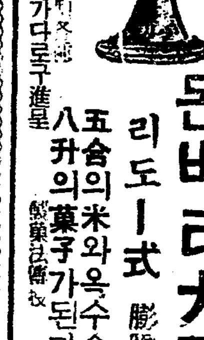


지녀가업스신분께 조혈정 紡織業

京畿中林洞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李圭元 大陸고무 總販賣部 總販賣部支店

工業은 人生의幸福이오나 泰昌工業所

副業本業 自宅で儲かる ◉專屬製造者募集 가장安全確實히된다 マルハマ紙工業所 大阪市港區市岡元町四丁目



돈버리大王 리도ー式膨脹機 五合의米와옥수수가八升의菓子가된다 兒島製作所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

朝日國際ニュース 繪本桃太郎 江戸みやげ子守唄 悲戀華 浪花館

多情佛心 로맨스의거리 團成社

三銃士 稻入娘 告婚の夜 몬데이의荒武者飛行 朝鮮劇場

法律을몰으는만큼 鍾찌약한 悲劇을惹起

益益激增된訴訟事件

웃지못할世相

上이것은大阪을비롯하야 各地의裁判所를들어다보면 굉장히增加된 訴訟事件을볼수가잇다。當然히勝訴될것도法律을몰음므로서 敗訴되아서울고잇는사람이 相當히만타。그中에도第一만흔것이 金錢貸借、家屋賃借、商業去來와處理하기困難한糾紛事件이다。조곰한일을어드리서 裁判所의괴롬을끼치고、열이면열가지法律의 制裁를밧지안코면안되는世上！世上에는한가지만잘보아도事件이일어나면곳 應用할수잇는故로 日常法律을알어두어서 事件이일어나면곳 應用할수잇스면便利하다 最近大阪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에서『日常法律百科辭典 附家庭の辯護士』라고하는 難問題가解決될수잇는 기쉬운法律書가發表되얏는바、一般普通人에는絶好한 相談役이다 同書는從來어려운法律書와도달러서實際問題를取扱한것으로金錢의貸借는勿論、民事、商法、土地、家屋、難產、相續、戶籍等의難問題로머리를골는 알지안코 解決하는至極히 便利한것으로서 同書冊만잇스면、辯護士는無用이다。더구나同書는總頁四百餘頁의大冊으로서 定價二圓인바、法律의民衆化라는意味로 半額인一圓과 送料十錢으로販賣하고잇스니 希望者는前記現代出版社에 葉書로申込한즉바로送冊하여주고代金은着本後 送實共一圓卅錢이라한다。

百萬圓보다貴한子女 子女를못낫는 婦人들게大福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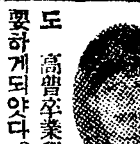
子女들이업는家庭만큼寂寞을늣기는것은업다。女性은子女를나을것은天與의義務가잇다。그런대結婚後二三年五年十年동안에一回도懷姙한일이업는婦人들이만히잇다。間或姙娠의目的을達하엿다하드래도早產、流產等의原因으로 解產되지 不具、不健全한것이往往出產된다。이것은天意에悖逆되는것만안이라人生의最大不幸한일이다。今般大阪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에서新發賣한『姙娠自由自在、子の出來る法と育て方』은醫學博士의最新學理와實驗에基因된姙娠의原理와其方法及健全한育兒法을누구에게나알기쉽도록말하야서詳述하여잇슴으로本書의一讀에依하야 그대로實行하면男女間에所望대로子女를生產할수가잇다。더욱附錄으로서『健かな產姙法』을添付하야잇슴으로애들이너무만하서生活에不安한분과母體의健全을 必要로하는분들에게絶好의指導書다。同書는四六判美本定價一圓八十錢인바五百部限하고送料共一圓으로前記現代出版社에서 一般에게頒布하고잇슴으로希望者는只今곳『略解テ』를添付하라고葉書又는片紙로申込하면代金은着本拂로送實共一圓二十五錢에送本한다。

훌늉한！ 內職副業이 發見되얏다

코무리가든職業은危險性이만코손도업수가어렵다고보담一日四五十錢이라도조흐니確實한收入이잇는內職副業이잇스면 一家의增收를어더서生活安定의幸福스런生活을할수가잇다。今般大阪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에서 發表한『內職副業總案內』는理想的인 버리冊으로 無資本同樣으로又는 極小資本으로 老幼男女누구에게나 될수가잇고、또 本業副業으로써 確實有利한일을 調査發表하고 內職副業의일을 發表하며 商品原料의 仕入製品의 販路까지도記載하고잇다。더욱小資本으로되는 小賣店의開業法及婦人就職案內도 調査發表하야잇다。同書는 四六判約三百頁로 特價九十六錢에 前記現代出版社에서 一般希望者에게 頒布되야잇슴으로 直接葉書로 申込하면代金은 着本拂인대 送實卅錢增으로送本한다。

立身出世는 中學卒業부터

獨學의最新法發表



現代에成功할려고하면學校卒業만으로는 안된다！아무리하여도 高等卒業程度의 學力이 必要하게되얏다。店員이나 職工이나 學問이업는분은 늘남의뒤진다。況將來大成을 希望하는靑少年에잇서서는 一日이라도 等閑히 하지못할緊急事다。家庭事情으로 上級學校에 못가고煩悶으로 지내는 靑少年諸君이여決코 悲觀할것은안이다。今般大阪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에서 發賣한『國民模範中學全科講義錄』은 文部省中學校令에準據한 修身、國語、作文、漢文、英語、物理、心理、歷史、博物、算術、代數、幾何、圖畫等의 中學全科를 整然하게 統制한것으로 大小간빼지안코 맨든講義로서 獨學者의 一大指針으로조고하면習校卒業참으로理想的인 講義錄이라고할수가잇다。全學期 十二卷合本을겨우 一圓五十錢 (送費廿一錢)으로大特賣中이다。中學을卒業함에는五個年의長時日과約五百圓의月謝가必要한外에敎科書參考書、用品等莫大한費用을안드리고도다른講義錄으로工夫할여고하면적어도一個年內外의時日과十數圓의會費가 必要한바今回特賣中인 國民模範中學講義錄은 단지一圓五十錢의 代金으로 自宅에서 自由로 工夫가되고 더구나 中學卒業과 同等의學力이어더짐으로 目下大評判이다。希望者는前記現代出版社에 葉書로申込하면 代金은引替로送費共히 一圓九十五錢에 送冊한다 同店의振替番號는大阪五六〇一四番이다。

아무리어려운 願屆書式이라도 척척써진다

世上의進步됨을따라社會制度가益益複雜해진다、무엇이거나써논것이라야有效한時代가되엿다。圖章하나、署名하나、의一章이나、목이나하야、圖章찍는如何로非常한損失을보는例가不少하다、조고마한屆書도自手로쓸줄을모르면、곳代書人에게 依賴하다그뿐이나、조고만한五十錢은어느틈에날러간다하기짝이업다。이러한缺點을補足하야 萬人適合의指導書는업는가하는一般需用에應하야『改正書式全書』이라고題目한約三百頁의書籍을苦心編纂하야東京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에서發賣하엿는데同書는社會의趨勢와必要에應하야、日常身邊에일어나는、賃借賣買、讓渡、貰入、抵當、請負、雇傭、登記、戶籍、寄留、兵事、營業、特許願、渡航願、納稅事項民刑事訴訟及人事訴訟手續等에願屆書、願書、申請、申立訴狀及添付書類의書式約二百種으로極히明瞭히누구나容易하게알도록하엿스니本書一冊만잇스면代書人의必要업시會어려운書式도쉽게쓸수잇스므로事業의能率을增進하는上으로보드라도자못便利하다고申込者가殺到하는現狀이다。同書는三百頁의大冊인데特히前記現代出版社로直接注文하는분에게限하야定價一圓八十錢인것을特價一圓으로特別頒布하니希望者는葉書로申込하면代金은着本(送實共一圓廿五錢)拂로送本해준다。

便紙잘쓰면 立身出世가빨너！

植原文學博士發表

異人交際에나商業去來에도 便紙를잘쓰면 他人에게尊敬을밧고무슨일에던지 쉽게解決이되는反面에잘못쓰면 엉어리同樣으로生涯를그릇칠일이充分히 表現되지못하고 드되여表理를傷하고저면의感情을사서 엉뚱한失敗를하는일이만타。文學士植原路郎氏의『實用新案手紙大辭典』은 實用、交際、商用、葉書文、候文과口語文、趣味의便紙、其他모든便紙쓰는法의即席에서알게되고、如何히片紙를잘쓸수잇는본이라도本書一冊만잇스면마음대로便紙가척척써지는참으로理想的인便紙辭典이다。그의定價는二圓인바 一千名限하고겨우一圓送料十五錢이라는 破格的廉價로 特賣中이다。더욱十版發賣記念을爲하야、常用漢和辭典、いろは引新辭典、文章新辭典、戀愛書簡全集、模範日記의五冊을特別景品으로서右便紙辭典注文者에限하야 同封無代進呈하는故로 만으로도一圓以上의價値가잇스니實로出版界空前의壯擧이다。希望者는 大阪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로申込하시면代金은着本拂로送實共一圓卅八錢에 다고하니絶品되기前에至急申込이可하다。

살기어려운世上에 一躍成功의快報

算盤하나가唯一한武器

아무라보고쓰는것을잘하드라도珠算을잘못하면 애써서배운일도쓰는것도다無所用으로서他人의面前에서生恥시도못한恥辱을當하는일이만타。珠算이善手라고하야서小店員이一躍重要한地位에出世하는例는往往히잇다。銀行、會社、商店其他如何한職業이라도珠算이善手이면他人의羨望의的이되도록立身出世가빨느다。大阪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에서發表한『新式速成珠算獨習の秘訣』書은누구라도一週間習練習을하면숙숙熟達되도록苦心硏究한結果獨特한考案으로、加、乘、除、暗算法、未選法、開平法、開立法、步合算、其他珠算全般에亘하야一一히挿畵를너어서빠진업시詳述하야잇다。同書는四六判箱入美本定價一圓五十錢인바大特價一圓送料十五錢으로前記現代出版社에서一般에게頒布하고잇슴으로希望者는葉書로申込한즉代金은着本拂로荷造送費共一圓三十八錢에送本한다고。但目下發賣記念으로『珠算獨習の秘訣』注文者에게『珠算筆算原理速成術』及『詳解九九ノ原理』와携帶에至便한極上等의『算盤』一個와三大景品을無料同封進呈하고잇스니好評을博得하고잇스니希望者는品絶되기前에至急申込하라。

運조흔運轉手 머리못든學士들

世上일이라알수업다。大學出로서좋홍한學生들이就職難으로 이리저리몰니는者들이퍽으나흔하야겨우就職이되야도四五十圓의 싹라리가석만흔便인대 何等의學歷도업시自動車運轉手가되면百五十圓內外의月收를어더서堂堂히活社會에飛躍하고잇다。只今社會에서는別로大資本이업서도도는高等學校의敎育을밧지안터도팔에確實한技術만잇스면如何한不景氣라도무서울것은업다。立身成功을希望한靑少年은빨리自動車界에進出할것이다 自動車運轉手는滿洲國、陸軍省關係等의活躍의天地는實로無限하다 今回東京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에서發行한『最新圖解自動車講義錄』은 中央自動車學校長大月先生이 十數年來의貴한經驗에 依하야서 著述한것으로小學卒業程度의學力만잇스면겨우三個月쯤의 自宅自由工夫로 免許試驗을 밧게되는것으로 目下大大的好評을 博得하고잇다 全國自動車學校의 教科書로도 自動車營業者의 參考書等에도 採用을 맛고 잇다。同書는 三冊合本紙數六百頁의大冊으로 挿畵도 二百六十餘定價三圓五十錢인바、一千部限하고 特價 一圓七十錢으로 發賣하고잇슴으로 希望者는 現代出版社에葉書로 申込하면 着本拂로서 送實共一圓九十五錢에 送本하여준다

五十錢銀貨가 八十圓에팔인다

거짓말가틀 참事實！여러분이日常使用하고잇는 貨幣中에서、相當한高價物이잇다。그中에는 數百圓하는貴重品도잇고 一錢銅貨로八十圓以上에 팔이는 것도잇다。東京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現代出版社에서 發行한『金銀銅貨鑑定鑑』에 依하야 이런金은 貴目을 차자내서 돈을버려주시요 價目부친것은 모다 名鑑記載의價格으로 全部 前記現代出版社에서 買受한다고하니 右名鑑은 三錢切手十枚를 前記現代出版社에보내면 곳送冊하여준다고한다。

出版界空前の大特賣斷行

國民百科大辭典

- 谷口文學士 詳解漢和大辭典 三、八〇 一円卅錢 一五
- 井上 常用漢和辭典 一、〇〇 四十錢 六
- 國語研究會 いろは新辭典 一、五〇 八十錢 六
- 谷口 新式英和辭典 三、五〇 一円八十錢 一〇
- 辭書刊行會 現代新語大辭典 一、〇〇 四十錢 六

青年世渡の道

- 小原俊夫 通俗經濟學講話 一、二〇 八十錢 六
- 文館 日本六法全書 三、二〇 一円七十錢 一五
- 城山 證文の書き方 一、八〇 七十錢 一〇
- 精神修養 一、〇〇 五十錢 六
- 上田文學士 成功の經路 一、八〇 八十錢 一〇
- 藤井 立志成功傳 一、五〇 六十錢 六
- 鳥居 修養人の道 一、八〇 五十錢 六
- 吉村正夫 名士新立志傳 一、八〇 七十錢 一〇
- 藤井 古今東西偉人傳 一、八〇 八十錢 一〇
- 頭山清 西郷南洲先生 一、六〇 七十錢 一〇
- 普通教育會 國民讀本 一、五〇 五十錢 一〇
- 軍事教育會 忠勇美談集 一、三〇 五十錢 一〇

電氣の實際智識

- 野村 蒸汽機關の實際智識 二、〇〇 一円卅錢 一〇
- 秋山工學士 發動機の實際智識 二、〇〇 一円卅錢 一〇
- 山田工學士 鐵筋コンクリートの智識 二、〇〇 一円卅錢 一〇
- 秋山工學士 土木の實際智識 二、〇〇 一円卅錢 一〇
- 化學工藝協會 化學商品の製法 一、八〇 四十錢 四
- 化學工藝協會 化學工藝製造法 六、〇〇 一円五十錢 一五
- 藥劑師數名 化粧品製造販賣法 五、〇〇 二円七十錢 一二
- 大月先生 自動車講義錄 三、五〇 一円七十錢 一〇
- 食料品研究 各種パンの製法 一、八〇 四十錢 六

俳句入門

呼吸靜座法

- 家庭醫學全集 三、五〇 一円 一〇
- 病治療法 一、七〇 三十五錢 四
- 美容美顏美人法 一、七〇 三十五錢 四
- 美人になるまで 一、八〇 五十錢 四

五分間演說集

- 五分間演說と挨拶の仕方 一、二〇 五十錢 六
- 社交儀禮作法 一、二〇 五十錢 六
- 男女交際の秘訣 一、六〇 四十錢 六
- 和洋料理の拵へ方 一、六〇 三十錢 六
- 社交常識辭典 一、〇〇 四十錢 六
- 男女交遊法 一、六〇 四十錢 六

座談と社交の秘訣

英語の早道

- 中學校教諭 青木常吉著 特價五十八錢
- ABCより會話まで 九、五〇 六十錢 六
- ローマ字獨習 一、五五 二十五錢 四
- ローマ字の先生 一、六〇 四十錢 四
- 實用百科全書 一、八〇 九十錢 一〇
- 文字の書き方 一、七〇 四十錢 六

字くづし辭典

- 五體筆書新辭典 三、五〇 八十錢 一〇
- 實用手紙の書き方 一、七〇 四十錢 六
- 女子手紙文のしをり 一、七〇 四十錢 六

愛の手紙

日本文學集の大投賣！

紅葉名作選集　漱石名作選集　花袋名作選集　藤村名作選集　桂月名作選集　蘆花名作選集　文豪名作選集

七冊合本定價七円の所處分の爲め只一円に投賣！

世界文學集の大亂賣

- 川柳入門 一、八〇
- 山水行脚雲のゆくへ 一、〇〇 五十錢 六
- 文藝小品花紅葉 一、〇〇 五十錢 六
- 美文の作り方 一、〇〇 五十錢 六
- 珍文奇談逸話集 一、二〇 七十錢 六
- 文章百科大辭典 一、〇〇 四十錢 六
- 名探偵になるまで 一、二〇 八十錢 六
- デカメロン 一、〇〇 五十錢 六
- ショップガール 一、〇〇 五十錢 六
- もだん・ぐろてすく讀本 一、〇〇 五十錢 六
- ダンサー 一、〇〇 五十錢 六
- 今樣梅ごよみ 一、二〇 六十錢 六
- 天國見記 一、〇〇 五十錢 六

かくし藝

- 實用少學の書き方 一、二〇 四十錢 四
- 新式手紙辭典 一、〇〇 三十錢 六
- 習字速成法 一、三五 二十錢 四
- 七體いろは帖 一、三五 二十錢 四
- 日用手紙文 一、九〇 五十錢 六
- 名前の付け方 一、〇〇 卅錢 六
- 家相寶典 一、二〇 四十錢 六
- 夢吉凶判斷 一、〇〇 四十錢 六
- 西洋うらない 一、八〇 二十錢 四
- まじない秘密寶典 一、五〇 三十錢 六
- 一萬圓利殖法 一、八〇 四十錢 六
- 內職副業總案內 一、八〇 四十錢 六
- 秘法妙術傳授書 一、八〇 九十錢 六
- 小資本利殖法 一、六〇 三十五錢 六
- 金銀銅貨幣鑑 一、八〇 四十錢 四
- 圍碁上達の秘訣 一、二〇 七十錢 六

護身術奥傳　柔道極意新教範

- 催眠術極意 一、二〇 五十錢 六
- 柔道の極意 一、二〇 五十錢 六
- 靈術全書 一、二〇 五十錢 六
- 忍術の極意 一、二〇 三十錢 四
- 柔術の極意 一、二〇 五十錢 六
- 劍道の極意 一、二〇 五十錢 六
- 相撲四十八手の極意 一、二〇 五十錢 四
- 手品奇術種あかし 一、二〇 二十錢 四

武道全科講義

- 記憶術 一、二〇 六十錢 六
- 青少年百科全集 一、二〇 三十錢 四
- 記憶力增進法 一、六〇 三十錢 四
- 青年百科辭典 一、二〇 七十錢 六
- アゴはづし 一、八〇 三十錢 四

松茸栽培法　促成栽培法

- 加藤農學士 藥草栽培と增收法 一、二〇 八十錢 六
- 山本農學士 米麥二倍增收法 一、二〇 八十錢 六
- 井上農學士 利益增大養豚法 一、二〇 八十錢 六
- 加藤農學士 肥料の施し方 一、二〇 八十錢 六
- 加藤農學士 肥料の作り方 一、二〇 八十錢 六
- 山本農學士 蠶の飼方と增繭法 一、二〇 八十錢 六
- 山本農學士 桑の栽培と增收法 一、二〇 八十錢 六
- 井上農學士 養鷄家の相談相手 一、二〇 八十錢 六
- 山本農學士 養雞二倍產卵法 一、二〇 八十錢 六
- 帝農研究會 百合栽培法 一、六〇 三十錢 四
- 帝農研究會 家庭養鷄法 一、二〇 七十錢 六
- 帝農研究會 蒟蒻の栽培と販賣法 一、八〇 四十錢 六
- 帝農研究會 除虫菊栽培法 一、八〇 三十錢 四

浮世秘帖　性典

- 三宅 戀愛の眞髓 一、六〇 卅錢 五
- 青木 花柳界の內幕 一、六〇 三十錢 四
- 羽太博士 性慾の新研究 二、〇〇 八十錢 一〇
- 浮世華紙 一、二〇 六十錢 六
- 原田 禁斷の實 一、二〇 七十錢 六
- 秋の下 男女戀愛の赤裸々 一、〇〇 五十錢 六
- 澤田順次郞 性慾の神秘 二、五〇 一円二十錢 一〇

國民中學講義錄　商業簿記講義　速記術獨習講義　現代文學講義錄　海員船員受驗講義　小學校教員受驗講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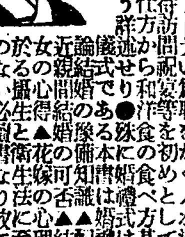
- 農村靑年の針路 一、二〇 八十錢 六
- 農村の改造 一、二〇 八十錢 六
- わさび栽培法 一、八〇 五十錢 六

立身成功案內　官費貸費學校案內　全國諸學校案內　就職戰線へ　北米遊學案內　詳解算術　日本三千年史　自動車講義錄

鐵道員受驗講義　巡查受驗講義　遞信官吏受驗講義　無電技師養成講義

男女共に心得べき！ 諸礼法 婚礼式 世間一般 挨拶の仕方

空前の寶典



殘本處分大投賣斷行

辭典拾冊合本タバの一圓 (分冊は各四十錢)

一種五圓十圓で教へた祕法盡く公開！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御註文案內

圖書出版 卸 現代出版社

大阪市東淀川區木川西ノ町

振替口座大阪五六〇一四番

家庭

무서운 狂犬病!

"개에게 물린때는 물린즉시 병원에"

광견병되면 명의도 못고친다

「개」가진사람주의할일

「미친개에게 물리어지낸는속담도잇지오마는미친개에게물리엇다가는 공수병(恐水病)이라는 무섭고 고약한 병에 걸립니다. 공수병은 광견병이라하는데광견은 미친개란뜻이요 공수는 물을 겁낸다는 뜻입니다. 광견병에 한번 걸리고나면 물이 몹시 마시고 시프나 호흡이 곤란하고잘 마시어지지 안는까닭에 고만 떨고 날뛴답니다. 그런것을 녯사람들은 잘 모르고서 아마 물을 보기 겁내나 보다고 공수병이라 이름지은 모양입니다. 광견병은 오즉 개와 사람에게만 잇는 것이 아니요 소, 말, 도야지, 괭이, 닭, 양, 비둘기, 원숭이등 동물에 다 잇습니다. 단지 어떤동물이 그병에 걸리든지 발병만 된뒤라면 아모리 명의라도 죽기까지 내버려두는외에 별로치료할 방법이 업기에는 마찬가지외다. 미리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하실점을 멧가지 엿주어 두겟습니다.●

이병도 전염병은 전염병이도 공괴나 음식물도 전염하는 것이 아니요 주장 그병에 걸린 동물에게 물린다면 그병균이 침에 섞기어서 살속으로 들어와 전염되는것이랍니다. 물론 다른 동물도 주의하겟지만은 제일 주의할것이 개라 미친개만 업시한다면 아조 안심할수 잇습니다 그러니까 개단속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광견병을 박멸하는 우물고누의 첫수입니다

(一) 임자업시 돌아다니는 개를 보거든 주의하실 일

(二) 행동이 수상한 개를 그중에도 꼬리를 축 늘어트린 개를 보거든 주의 하실일

(三) 댁의개는 밧듯이 매어두어서 미친개에게 물리지 안토록 하실일

(四) 댁의 개는 매년 봄가을로 예방주사를 마치어 미친개에게 물리더라도 전염되지안토록 하실일

개주사는 봄가을로 경찰서에서 시행합니다. 또 도청위생시험실에서는 매일 무료로 놓아줍니다.

×

사람들이 광견에게 물리고 나면 그 물린 자죽이 아프고 가렵고 확근확근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어째 마음이 가라안지안하서 우울해지고 두통이 나고 음식도 잘 못먹습니다. 이런때를 전구긔(前驅期) 내지 우울긔(憂鬱期)라고 하지요. 전구긔는 정작 병이 나기전의 증조란뜻이요 우울긔란 우울해지는 증세를 가르치는 뜻입니다. 그러케 한 이틀 지낸 뒤에는 병독이 뒤통시로 범하야 호흡하는 힘줄이 비틀리는듯시 몹시 한모금도 마시기에 아픔니다. 물을 마시는데 아프기는 하고 물은 마시고는 십고 하야 물을 보기 무섭게 아니 물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고 드리날뜁니다 이런때를 흥분긔(興奮期)라고 하지요. 흥분긔란 그흥분되는 증세를 가르치는것입니다 차차흥분긔가 기퍼갈사록 침도 삼키지 못하야 질질 흘리고 목소리도 쉬어 천연 개소리처럼 빽빽 지르기만합니다 그러케 반나절 내지이삼일 지낸 뒤에는 외몸에 쥐가 나고 가 되다가 구경 심장마비(心臟麻痺)로 죽습니다. 이런때를 마비긔(麻痺期)라고부르게 됩니다.

개●에●게●도●예●방●주●사●

물린사람도마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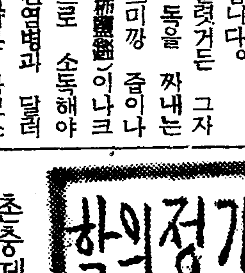
목숨을건지는『파스트ㄹ』주사

이야기만 들어도 이무서운광견병에 작년중 경긔도에서만걸릴뻔한사람이 일백설흔일곱명걸리어죽은사람이 아홉명입니다. 그원인은 모도다 미친개에게물린것이요 물린사람의 대부분이 나히어린 아히들이랍니다. 부모된이의 주의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개를기른이의 책임은또얼마나 중대합니까? 위선 응급처치하는 방법이라도 알아 두서야 합니다. 그랫다가 행여불행한 경우가 잇더라도 처치를 그릇치지 말아야합니다.

(一) 개에게물렷거든 그자죽을 꼭 눌러 독을 짜내는 동시 초나 나쓰미깡 즙이나 이십배 히염산(稀鹽酸)이나크레오린삼십배액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다른 전염병과 달러석탄산가튼 소독약은 아모소용이 업습니다

(二) 문개가 미친개인것을 알앗거든 발병되기전 빨리의사에게 가서 파스퉁씨의 주사약으로 예방주사를 마저야 합니다. 이 주사는 하로 한번씩 열여드레동안 꼭 계속해 마저야 합니다

(三) 개나다른 동물이 미친개에게 물렷더라도 예방주사를 마저야 합니다. 그 예방주사는 수의(獸醫)가 놋습니다.



촌충떼려다락태

問 삼십세된녀자인대 촌백충을치료코저하얏스나 촌충은치료되지못하고 임신삼개월에 낙태만하얏스며 아즉도복통이심합니다 약광고에는 임신중에 해롭단말이업기에 먹엇드니 이팔이 되얏스니 제약한자에게 한등관계가업겟습니까 치료비를법적으로청구할수업슴까요 (定州女)

답 광고에흔히 그런말이잇슴니다。임신중에 해롭다는말이업더라도 특히무해하다고 긔재된말이업스면엇지할수업슴것입니다 죽접진찰을 밧고그리되얏다 하더라도 과실죄난될는지 모르겟스나 악의는업는일노 생각됩니다 한번법률가에게 아러보십시요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백혈구를검사하나

問 이십사세되혼여자인데 지금폐병으로요양중입니다 한달전부터다른쪽하복부가 아퍼서 의사에게진찰하고 백혈구까지검사하엿스나 아모이상이업다고합니다 그후부터로는 나제는아프지 안하나 밤이되면 배전부가아프며 배속에서 꿀꿀소리가납니다 열도업고 설사도하지안하며 다른증세도업습니다 무삼병이올지 속히하교하여주시옵소서 (근심하는女子)

답 그때 백혈구(白血球)를검사한것은 급성맹장염(急性盲腸炎)인가 의심을두고 한것으로서 맹장염은아닌것이겟지요 그러나 폐병으로 요양중이시며 한달전부터의 우편하복통이잇섯다하오니 회맹부결핵(廻盲部結核)인것갓습니다 그고임파선(淋巴腺)에 침서되는것일듯생각됩니다 그러나 차차로 장첨막(粘膜)을상하게되오면 설사혹은 변비증을이르키게될것이오니 속히 전문의사에게진찰을바드시고 아픈쪽 배를 따듯케하시며 간유, 네오톤토니콤등의 강장제를복용하게하시요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실용적과사교적

물건에도성격

─사람구하듯힘 드는물건사기─

먼저경제지식이필요

우리가 사람을친해보면 그성격이나 생김생김이 여러가지로 달른것을 알수잇습니다. 똑똑한 사람도잇고 간사한사람도잇고활발한사람도 암된사람도잇습니다 이와마찬가지로 물건을사는데도 잘골라보면 이러케 여러지 성격이잇습니다. 이것을 멧가지말해보면 첫재 실용적인것이잇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치면 마치 근검질박한 청년과갓습니다 둘재는 사람으로치면 아주간사스럽고 영리해서 아주 재치도잇고 사교적이지마는실상은 까불르고 경박해서 속속드리 친할수는업는것과갓흔것이고 셋재는 첫재와 둘재의중간치 비슷한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을사는데는 산뒤에 마음이 유쾌한 물건도잇고 그와반대로 산뒤에 마음이 불쾌한물건도 잇습니다. 그럼으로 소비량이 만코 적은데따라서생활이 풍족해지기도하고 곤란해질수도잇지마는 역시 물건은산뒤에 마음흡족하게하는것을 사는것이조흡니다 그럼으로 때로는 좀과용을해도 무방합니다, 가령말하자면 무스득매일이나하는 싸게파는데만 도라다니지말고 때로는 서양서 건너온 향수병가튼것도 하나쯤은사는것이 조흡니다.

그리고 『쇼ー윈도』밧게서 그냥 드려다보기만하고서 빗갈이 조타던지 모양이 엡부다고해서 곳 드려가사는것보담은 아주 물건사는날은 시간을 넉넉하게 만드러가지고나와서 한물건을 사려면 가튼물건을가지고 적어도 너댓집은 도라다니면서 잘 물색을합니다。그러면 첫재 눈동부도되지마는 나중에 생각하면 그중에 어느것이 제일나흔가를 골라서 살수가잇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주의할것은 물건을살때는 무엇보담도 눈치가 빨러야합니다。그래서 상점의와책의 계교를 간파하는것이 필요합니다。가령 한개의 비누를 산다던지 『크ー리ー무』를 살때라도 흔히 유명한 상표를부처서 다른 상점보다 싸게보이기위해서 원가를 까고라도 싸게매여노흘때가잇습니다。그럴때에 만약 사는사람이 이것을할가 저것을할가하고 망사거리면 점원들은 흔히 여러한말을 합니다。『이것은 유명하기는하지마는 저 생각가태서는 이것이……』하고 다른것을 팔라줍니다。그때에『그래도 저는 이것을 늘 쓰는것이여서요』하고 그유명한 상표가 붓흔것을 잡으시요。그러면 그상점은 그물건애대해서 리익을 보지못하엿거나 보아도 얼마되지안습니다。

끗흐로는 빗싼물건이란 빗싼때문에 특별히 조흔점이잇슴니다。그럼으로 이러한 빗싼물건의 조흔점을 알어두는것은 맛치 사회적으로 유명한사람과갓치 이야기를 만히 해본것과갓치 리익되는점이 만습니다。또 평소에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식을 알어두어서 미국돈이나 불란서돈이 국제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것을 잘 알어두면 외국물건을 살때에매우 편리한것입니다。

남자한사람에게 애인이 一五二〇인

─애인명부를작성중─

미국쉬카고시에 사는『까ー디너ー스뉴워ー드』부인은 얼마전경찰서를 차저가서

『우리댁양반은 내국는 안해가 눈이 말똥말똥하게 사러잇는데두 불구하고 엇떤젊은녀자와 결혼하야 저녁마다 나가자나 따끔하게 좀 다실해주』하고 호소를 햇드랍니다 계원이 듯고보니 확실한 이중결혼죄(二重結婚罪)라 곳 그의남편을 잡아다가 취조를 햇습니다 그런결과 부인의 말과가치 그는 최근에 방년십팔세되는『크라리스』란 미인과 결혼식을하고 부부생활을 하는것이 판명되엿습니다 그런데 그남편은 이사실을 진술한외에 그보다 더큰사실을징글징글 자랑삼아 터러노앗습니다

『정식결혼한것은 말하면 안해와 클라리스 둘뿐이지요 그래치만 게집은 이둘뿐이 안인뎁쇼 내에게는 이외에도 애인이 일천오백이십명이 잇습지요 저는 이애인들의 명부록을 꾸며보앗는데 너무만어서 나중엔하도귀찬하야 팽개처버렷습니다』 이가리 태연자약하고 호언하는사람에게 애인이잇다는 사실은죄가 되지안흐나 할수업는곡이중결혼이란죄명아래 이호색은 목하 감옥사리를 하는중이라합니다 (쉬카고發同盟時言)

『어서벌금내』

『요녀석 벌거벗고 나도라다녀? 벌금이야 벌금내라』 순사가 엇더케 딱딱거리는지벌거숭이 거리의큐피ー사시가잔뜩 겁이낫지요──사시장천 녀름이요 해수욕하는 사람들로 들끌는미국『마이아미』란곳은 요새도 더워서 옷입기가 귀찬습니다。아모리 해수욕장이요 아모리 어린애기로서니 벌거벗고 거려다니는 날에는 이와가른처분。

쥐 『당신은 우리만 보면 달려드러 잡아 먹으니 웬까닥입니까』

고양이 『너이놈들이 남의것을도적질 해다먹고, 못된병을 퍼트리고 다니는죄로。』

쥐 『당신은 이집 생선도 막훔처다먹은 일업습니까』

고양이 『요놈 나는 집고양이다、그런일업서』

쥐 『나도 집쥐애요』

(글도사람 한이순)

망두석재판 (一)

童話 金相德

어느 시골에 재판을 잘하는원님이 한분계셧습니다。이원님은 엇더케 재판을 잘하는지 소문이 굉장해서 그 가까운골(郡) 아닌골에서까지 재판하기 어려운일은 모다이원님에게로 가저왓습니다。원님은 오는대로 아모리 어려운일이 잇드래도 척척시원스럽게 처리해주고햇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정말 어려운 일이생겨서、그원님도 쩔쩔매여야단이엿습니다。

섯달그믐이 갓가와오니가 시골마다 도라다니면서 팔려고비단장사 한사람이 서울가서 조흔비단을 만히사서 질머지고 시골로 나려오다가 비단짐이 무겁기는하고 숨도차서 길가 잔디밧 망두석(돌로 사람을 맨들어세운것) 앞에 비단짐을나려놋코 그압에안저서 쉬다가 그만 고단하야 꼬박꼬박졸앗습니다。한참이나 졸다가 정신이나 깨여보니까 큰일낫슴니다。등뒤에 노앗던 비단짐이 간데 온데 업섯습니다。두눈이 방울갓치 동글하야 아모리 휘둘두루며 차저보앗스나 아까운것이

업는시골산길이라 지나가는 사람도업고 잇는것은소나무와 무덤과 돌맹이망두석뿐이라 무러볼곳도업고 차저볼곳도 업섯습니다。

그래 그비단장사는 원님보고차저달라는 것입니다。

아모도업는 산속에서 낫잠을자다가 일어버리고와서 그것을차저달나하니 아모리 머리가밝고 재판잘하는 원님이지만 이번에 이런일이야 엇더케차저 주는수가잇겟습니가。그럿치만 한골의 원님이되여서 백성의일을모른다고할수도업고 더구나 머리밝고 재판잘한다고 일홈까지난 자긔가 이번에 비단짐을차저주지못하면 일홈이 떠러지겟스니 아모리생각하여도 못차저주어서는안되겟는데 아모증거도업고 아모꼿도 잡을수업서서 참말로 원님은 밥맛도업어지고 속으로는시 알코만게십니다。

『암만해도 이번에는 비단짐을 못찻슬것일세。조흔꾀를못내시나보이』

『이번일이야말로 넘우도 엉터리업는일이니까 원님도 할수업스시겟지』하고백성들은 모히는 곳마다 그소문이나고 이야기는사람마다『이번에는 아모래도 못찻는다』들엿습니다。

『귀신이나 하나님가트면 알수잇슬가……그것을 엇더케알아낸단말인가』

『차저달라는놈이 밋친놈이지…』

누구든지 의례히 못찻는것으로 작정하고 이러케들말하엿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원님의속은바작바작탓습니다。

이러케 잠잣고만 여러날잇슬수도 업는뿐더러 백성들은 아주못찻는줄알고 락망하는모양이니 한시밧비 도적을 잡을도리를 하여야겟는데……도모지조흔 생각이 나지를 안허서 원님은 밤에도 잠이오지안헛습니다。

×

과연 무슨조흔꾀를 생각하셧는지 여러날뒤에 당을고 계시던 원님의입에서 명령이나렷습니다。엇던명령이 나리는가하고 모도들귀를 기우리고 듯노라닛가

『그비단을 일허버릴때 아모도 그엽혜 망두석이란놈이 섯섯쓰니 필시 그망두석의 죄인즉 그놈을 당장잡아오너라』

천만뜻박게、그엽혜지키고잇는사람이업고 압헤서 대령하고잇던 사람들은 하도어이가 업서서 엇던사람은눈이 띡띠옷고 엇던사람은 눈이 둥글해젓습니다。

地下村 (七)

姜敬愛 作 / 熊超 畵

칠성이는 밤길에 채어 굴르는 도토리를 집어 먹으며 애기 기쓰는 소리에 눈살을 잔뜩 찌프리고 그만 뒤뜰로 나와버렷다。애기로 인하야 잠간이것던 큰년어머니의 생각이또나서 그는 바자것드로 다가섯다。

『으아으아』

하는 애기 우름소리에 머리를 돌렷다。영애의 우름소리가아니오 아주 가지난 어린애기의 우름인것을 직각하자 큰년의어머니가 애기를 나앗는가 햇다。그러니 불안햇던 맘이 다소 덜리나 애기하고 입에만 올려도 입에서 신물이 돌지경이엇다。지금 봉당에서 피똥을 누노라 벽은 고양이 팔한 그런 애기를 날바엔 차라리 진자리에서 눌러죽여버리는것이 훨신 나을것갓햇다。

큰년이 가튼 그런 계집애를 나앗나또눈먼것을……그는 희하고 웃음이 터젓다。그웃음이입가에서 살아지기도전에웨? 이동내 녀인들은 그런 병신만을 나흘까하니 어쩌지 이상하엿다。하기야 큰년이가 어디 나면서부터 눈멀엇다니 위선나도 네살때에 홍역을하고 난담에 경풍이라는 병에 걸리어 이런병신이 되엇다는데하자 어머니가항상 외우든 말이생각되엇다。

그때 어머니는 알든 자기를 엽고 눈이 섯가리싸혀 길도 찻을수 업는데를 눈속에 푹푹빠지면서 읍에 병원에를 갓다는 것이다。의사는 보지도 못한채 어머니는 랍로도 업는 복도에 한겨이나 서고잇다가 하도 갑해서 진찰실 문을 열엇더니 의사는 눈을 거칠게 떠보이고 어서 나가잇스라는 뜻을 보이므로 하는수업시 복도로 와서 해가지도록 기다리는데 나중에 심부름하는애가 나와서 어머니손까락만한 병을 주고 어서 가라고 하엿다는것이다。

어머니는 그말만하면 흥분이되어 의사를 욕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는것이다。그때마다그는 어머니를 핀잔하고 그말을 막아버리군하엿다。무엇보다도불쾌하야 견될수업섯든것이다

약만 먹으면 이제라도 내병이 나을까 큰년이 병도…아니야 이미 병신이 되엇는데야 약을 쓴다고 날까 그래두 알수가잇나 어쩌다 조흔약만 쓰면 나도 남처럼 다리팔을 맘대로 놀리고 해서 동량도 하라다니지안쿠 내손으로 김도매고 또 산에가서 나무도 황황직어오구 예새끼들한테서 놀님도 밧지안쿠……그의가슴은 우쩍하엿다 눈을 번쩍떠다 병원에나 가서물어볼까……그까짓 놈들이 돈만알지 뭘아러 어머니의 타는말 그대로되푸리하고 맥업시 주저안젓다

큰년네집도 조용하고 애기의 우름소리도 끈첫는데 배가 쌀쌀 고팟다。그는 해를 짐작해보고 어머니가 이제 들어오면 얼굴에 수심을 띄우고 귀미테 머리카락을 담북 흘리고서 너웨 동량하라 가지안헛니 내일은 뭘먹것니 할것을 머리에 그리며 무심히 엽헤 서잇는 댑싸리 나무를 바라보앗다。

혹시 이 댑싸리나무가 내병에 약이 되지나안흘까 그는 댑싸리나무 냄새를 코미테 서늘히 느끼자 이러한 생각이 불숙 일어 댑싸리나무 겨드로 가서 한입 뜨더물엇다。잘강잘강 씹으니 풀내가 역하게입에 올하고 겨웃질이 나온다。그래도 눈을 꼭감고 숨도 쉬지안코 대강 씹어서 삼켯다。목이 찌저지는듯이 아프고 말큰 침이 작구만 흘러나린다。그는 이침마저 삼켜야 약이 될듯해서 눈을 꿈쩍거리면서 그침을 삼키고나니 까닭업시 두줄기 눈물이 주르루 흘러나린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제발 이손을 조금만이라도 놀려서 어머니가 하는 나무를 내가 하도록 합시사하엿다。평소에 이런생각을 한번도 해본적이 업건만 어머니가 나무를 무겁게이고 거름도 잘것지못하는것을 보아도 무심햇건만 웬일인지 이순간엔 이러한 생각이 일엇다 그한참이나 꿈쩍안코 잇던 그는 손을가만히 들어보고 이번에나 하는 맘이 가슴에서 후닥닥그렷다。하나 손은 여전히 떨리어 옹주려든다。갑자기 몸이 하고 겨웃질을 하자 땅에 머리를 쾅드좁고 훌쩍훌쩍 울엇다。

아주 캄캄해서야 어머니는돌아왓다。또산으로가서 나무를해이고 온것이엿다。

『어디 아프냐?』

어둠속에 약간 들어나는 어머니의 윤곽은 피로에 차혀너머질듯햇다。그러고 지른 풀래가 치마폭에 홋신배어 마늠내가리 강하게 풍겻다。

『이애야 웨대답이 업서』

아들의 몸을 어루만지는 장작갓이 가른 그손에도 온기만은 돌앗다。

愛用者御優待 美と幸の懸賞

專賣特許 파파인酵素應用 藥用크림

죽은깨·여드름에는

永遠히빗나는 珠玉의女王은 다이야몬드

永久히직히는 美容의女神은 アモンパパヤ

特殊强力한藥用의效力에依하야 皮下沈着의色素에作用하야 新陳代謝가旺盛하야 주근깨 기미가빠지며 脂肪分解作用으로여드름은때가되야 밀여버린다● 新春에마지할美와幸福의길을자랑키위하야 アモンパパヤ를愛用하시라。左의規定에따라膳物을드립니다。

賞品▲ 다이야몬드入指環 푸라치나臺 服部時計店特製品。一人一個式三名에進呈

럭키ー링 美와幸福의守護 象毛에金帶指環。一人一個式百廿名에進呈

분방석(粉音) 選外되신全部에進呈

アモンパパヤ (아몬파파야)

懸賞應募者에게

問題 右의愛用스타ー의名과愛用者인당신의芳名과年齡이세가지를記入하시오。

用紙 アモンパパヤ外箱大簽마음에 떼여裏面白紙에記入하시라。

方法 封筒에너허三錢切手貼付

締切 昭和十一年四月末日到着分

發表 主婦之友婦人俱樂部六月號

賞品 昭和十一年五月廿日付發送

◇正解者多數時에는抽籤에依함

東京市神田區松住町十一 株式會社 杉田商店 電話下谷 一六七〇番 振替東京 七八四六一番

▽定價 一號一圓 二號一圓八十錢 ▽送料內地十錢 ▽販賣店 各百貨店·化粧品店·藥店 ▽見本 詳細說明書進呈 二錢切手

三月十七日낫부터三日間大公開 特選三大作品特別興行 每日三回興行 晝間二時 夜間七時半 大衆料金 階上席十五錢 階下席十錢均一

P・C・L 社會喜劇 木村莊十二監督 三色ビルディング 德川夢聲 神田千鶴子 主演

國境內彈隊

惡魔의出藝團

第一劇場 鐘路四丁目 電光 二一五三番

三月十七日낫부터 晝間一時 夜間七時開演 新舞臺公演 第一週 新舞臺所演脚本 ◇白燈…作 朝鮮의어머니 四幕 一幕 어머니의집 二幕 平壤의집 三幕 눈오는밤거리 四幕 共同墓地(아버지무덤압) ◇어머니더구나朝鮮의어머니라면 아들과딸을爲하여우서야할것인가? 우러야할것인가!

劇外 流行歌 朴英娥 康鴻根 吳小玉 魯英谷 金鶴 리오레코드 專屬歌手 李銀波 金時勳 밀리오레코드 專屬歌手 스켓취 數景 次週 東劇直接劇座誕生公演 東劇座北鮮巡業中 靑春座 西鮮巡業中

東洋劇場 西大門通 電光 3 三三五番

十九日ヨリ五日間特別封切大公開 入場料 階上 大人五〇 學生三〇 階下 均一 一日二回 晝十二時半 夜六時半始 一、パラマウント特作發聲日本版 新興探偵映畫 ガラスの鍵 フランク・タットル 監督 ジョージ・ラフト 主演 二、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文藝…牧逸馬先生最後の絕筆 都會の怪異七時〇三分 木村莊十二監督 中野英治 丸山定夫 千葉早智子 嵯峨善兵 主演 三、東日大每國際ニュース 四、パラマウント本年度超大作 壯烈悲愴 雄大果敢 最後の駐屯兵 チャールス・バートス 監督 ケーリイ・グラント ガートルード・マイケル クロード・レインズ 主演 名畫『ベンガルの槍騎兵』を遙かに凌ぐ感激と昂奮の名作! 파라마운트獨占封切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二五四番

三月十九日밤부터三日間! 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日은 晝夜二回公開! 유나이뎃트二十世紀超特作全發聲日本版! 亞米利加로 캉돌映畫로第一級品 저진拳銃 巨匠…로란드·브라운氏監督作品 巨人…죠지·방크롭트氏大力演 腐敗가극度로達한亞米利加!! 모든것이多角的生涯에風靡가된魔窟 『갱』의무리!! 지금이곳에서이映畫은一切의 『히로이즘』的感傷을버리고그의鏡面에서잇다 ◇유나이뎃트二十世紀超特作全發聲日本版!! 豪華絢爛한千萬奇化의『레뷰』巨篇 百萬弗小僧 監督…로이델루스氏 主演…에디캔터 ……

에디캔터는미라가운대에서슬픔과괴로움에는 七千七百萬弗의大衆의女息과問題들…

供 時代劇喜劇 緋の笑ひ 監督…二川文太郎 主演…澤村國太郎 マキノプロダクション制作品提供

桃花劇場 電話二三二番

閑中漫筆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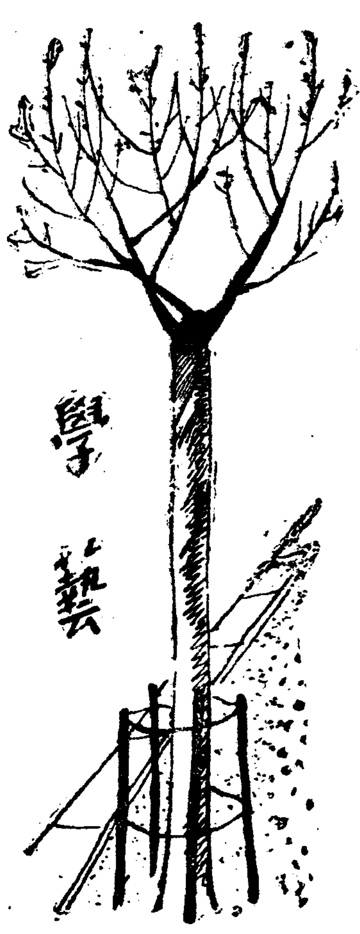
就職 (下)

萬海

그러나 就職에는 맛당히 가릴것이 잇슬것이다 만일 먹고사는것만이 사람의 最高目的이라면 就職에 對하야 手段을 가리지 아니할것인즉 가릴것이 업스나 사람은 사람이오 김생은 아니다 生命이라는것이 모든生物에 잇서서는 最高目的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사람에게 잇서서는 高尙目的이 될수는 업는것이다 사람은 사람노릇을 하는것이 生命보다 重하기때문이다 사람노릇은 사러서 하는것이 常道이지마는 不得已한 境遇에는 生命으로 바꾸는수도 잇는것이다 그러타면 사람노릇을 하기위하야 生命을일부러 내버리는수도 잇슬것인대 하물며 就職에잇서서 가리지 아니할수가 잇는가? 또는 生死의 境界線을 두고서 사람노릇을 한다 안는다 하는것을 極端의議論이라 할지라도 就職이라는것은 반드시 生死를 判斷하는자리는 아니다 就職이라는것은 다만 生活의問題를 開拓하는 方便의 한가지가 될뿐이다 就職은 한다고 꼭잘살고 못한다고꼭 굶어죽는것은 아니다 그려고보면 就職이라는것은 垂죽할것도 못되지마는 五體投地 焚香再拜할것도 못되는것이다.

그러고 사람은 容易하게 굶어죽는것도 아니다 朝鮮사람이 아모리 就職難을 말하지마는 굶어죽기는 그보다 百倍千倍가 어려운것이다 사람은 굶어죽지 안는다는것을 前提로하고서 사라나가는것이 조타 그리하고 依賴的인 就職에만 힘쓰지말고 自動的인 生活의 荒蕪地를 開拓하는것이 사람으로서 굶어죽는일은 별로 업는것이고 問題는 조금잘먹고 잘입고 사느나 잘못먹고 잘못입고 사너나 하는 方便의 差異뿐인데 사람은 잘못먹고 버서가며 사는것도 아니지마는 잘먹고 잘입고 사는것도 가진것도 아니다 다만 잘살기위하야 正當히 努力할뿐이다 就職을 가리다는말은 良心에 부끄러운것 人格이 損失되는것 社會에 惡影響을 끼치는것 이러한 就職은 안는것이 조타 이러한것은 無職의 國士라든지 職業의 豪傑이라든지 그런사람들만이 아니할뿐아니라 江湖上 好漢이나 俠骨의男兒들도 아니하는짓이다 『就職難』 이라는 말이 朝鮮에서 第一聲이 되여야 오를까?

學藝



文藝時評

浪漫인가 寫實인가?

—今月創作의吟味— ②

白鐵

또한 以上과가튼意味에서 今日과가튼 文壇의분위기를 浪漫 或은

寫實의一方의主張에依하야 支配하려고 하는努力도 나의見解에依하면 弄談에 각갑은困難한 問題라고생각되다! 왜그러냐하면 今日의 文學界는 몬저도指摘한바와가티 그어느편에依하야 統化되기만한 單純한것이아니고 여러가지色調의 이즘이 各方에서 交流되고잇는狀態이며 이狀態가 계속되는동안에는 文學이 一定한 이즘에依하야 統一되지못하고 數個의 獨自의분위기에 分立되는自由를許諾해야할것, 그不統一性 그混流狀態에 그混亂의 眞相이 잇는듯한까닭이다!

다만 여기서 이러한 混亂의 現狀은 그것이 過渡期的이아니만치 이浪漫과 寫實의兩者를 두고보면 그未來의 運命에대하야 우리들은 一定한 方向과 그暗示를 생각할수는잇다 생각컨대 今日은 確實히 리얼리즘이 否定되려는傾向이잇다 하나리얼리즘은 아직 全面에 그대로 남어잇다 또한 浪漫主義가 到來하려는것도 事實이다 林房雄은 벌서浪漫主義의新宣言을 發表中에잇다 하나 저버한머리가 온다고 곳 여름이와잇다고는 斷定할수업다 (西洋에의俗言!)이

東洋에 浪漫의文學時代가 그대로 實現되어다고信賴할수업다는것이 그暗示와豫期의全部다!

이러한 浪漫과 寫實의 相剋 그것은 생각하면 現在에 우리들이 生活하고잇는 實際의條件에 一定한 規定을맛고 잇는것은 勿論일것이다 破壞가시작되엿다하나 남은 機構는 그대로굳어잇다 建設을 理想하고잇다하나 좀처럼 그未來는 쉽게 到來될것갓지아라 그리하야 根據을 確實히 잡지못한 不安定한 諸相의表現으로서 從來의信仰을 破壞하며 그方法과 價値를 變化하려는때에 한편으로時代의方向을 混同하고 事物의動態을 混亂하는 狀態그것의反映으로서 한편으로 浪漫의 精神을 高唱하는代身 딴편으로는 리얼리즘의道를 指摘하는 論文이 同時 同紙面에 揭載되는 現象도 致來되고 잇다는것을 理解할수잇는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今日의 文學이 여러가지 분위기에 區分되여잇는까닭에 一面으로 바라보면 浪漫이 그것을 支配할만하고 다른一面에서 보면 寫實도 아직 그것을 整理할수잇스리라는

特殊한 風景을 暗示하고 잇는까닭이다…그러하야 浪漫인가? 寫實인가?의 一方의主張에依하야 文學者들은 敢히今日의 文壇의분위기를 統制하려고하는것이다!

그럼으로 처음에말한바와가티 이問題가 實際에잇서서 어느程度의 現實的意義를 가지고잇는지 우리들은 이浪漫과 寫實이 今日文學의 그때그때의創作에는어떠케 反映되여잇는가를 追求해 보는것은 創作을 吟味해가는方向의하나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그어느편이 今日의 創作을支配하고잇는가를 차저보아서 不幸히 그어느편의彼岸에도 到達하지못할것이 明白한事實이라고하야도 그것은 決코 내自身의責任은 아닐줄아다! 엇던責任이잇다면 그것은 亦是 現在의 混亂한상태 그것에 잇는것이아닐가?

하나 勿論 여기서 나는 創作評을 重視하는것이 本來의意圖이엇기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무슨 浪漫、寫實의두가지 方向을 前提로하야 모든作品의 評價를 그두가지 前提條件 가운데 無理로 歸着식히려는 態度는 取하지안코 다만一般의 創作評으로서 그方向을 定하려고한다! 따라서 이批評가운데서 讀者와

豫想하는것과 딴方面에그리고 浪漫과 寫實과도그 아무 關聯이업는 彼岸에 到達할는지도 모른다는것을 나는豫想하고잇다 왜그러냐하면 今日의文學이 事實에잇서서 混亂된것이라면 거기에는 단순히 이두가지의 浪漫、寫實의色彩마이아니고 여러가지의 色調가 雜流되고잇스리라는것을 理解할수잇는까닭이다

戲曲 春香傳 (完)

【禁無許上演】

柳致眞 脚色

獄司丁戊 그나 그뿐이면 조케 그러지안허도 백성들은 춘궁에 죽을지경인데 매호마다 빠치지말고 무어던지 돈될것을바다들이라니 집집에는 우름소리오 거리에나가보면 농시방장인데 남부터대하고 유리하는 백성들뿐이라데

獄司丁乙 그래 그게 어떼탄말인가? 원님께서 그러는게 잘못이라말인가?

獄司丁戊 누가잘못이래? 사내가 놀라거든 그러케 크다라게 놀란말이여,

獄司丁丁 쉬!、아서라、누구듯겟다。이사람들 살이 살올먹고 쇠가 쇠를 먹는단말모르는가? 제잡담하고 우리 술이나 한잔 바더먹으려가세。(獄司丁丙을보고) 여보게 웨 그러케하고 안젓는가、어려나오게나 나 한잔 냄세。아까 누가뇌물을좀집어주는데 이것보게 못지하지?(파수보는獄司丁甲을보고)파쇠 자네도 오게。옥에가친 춘향이야 그냥 둔들 어듸 가겟는가?

獄司丁戊 먹을것 보고 실타는 놈 어듸잇겟는가 자、가세、이사람들。

獄司丁들 다 退場。獄庭에도 아모도업다。獄中은 아까부터 캄캄해저잇더니 이때 별안간 獄담우에서 獄中으로 사람인지 귀신인지 씨꺼먼影子회뛰어들어간다。春香은 잠이들엇다가『에그머니』하고 소스라처 소리친다。門間使令무슨소리가하고 獄庭으로 나와본다 獄窓으로 보얀 달빼치 훌려드러오는데 아모것도업다。獄中에는 春香이무서워서 어절줄을 모른다

春香 (소리지른다)여보!아모도 업소!

門間使令 웨 그래?

春香 (獄門을가르키며)저것보오

門間使令 (獄門을열고드러가며) 아모것도 업는데……

春香 ……그럼 꿈이던가?허지만 꿈으로해서는 너무 생시갓고……생시로 해서는 너무 꿈갓고……

門間使令 이러케 소름여거치고 몸에찬땀이흐른것을 보아하니 아마도 무서운 꿈을 꾸엇나보다 정신 차려。춘향아。

(그때 멀리서 同數를외이고지내가는 장님의 소리)

春香 꿈으로 하여서도 너무도 수상하다。마즈막소원이니 저 장님을 좀 불러주오。점을좀 처보게。(하면서 門間使令에게 自己주머니를털어주며) 약소하지마는 가진것이 이것이니술이나 사 자시오。

門間使令 (돈을바더넣으며)이거 미안한데……(박게나와서)…여보! 봉사시님!

(許봉사 두리번거리고잇음)

許봉사 게 누구랄스게?

門間使令 아ー 서문파 허봉사로군。

許봉사 성중(城中)에 동경(讀經)와다가 가는 길일세。그래 나를 웨 차젓는가?

門間使令 옥에가친 춘향이가 해몽을하려하니 옥으로 들어갑소。

許봉사 춘향이가 해몽을해?(獄으로 드러가며) 춘향이 어텟는가?(춘향앞에가서)오ー진시오와본일 대단히 미안하네 기간 장처와 고생이 어떠한가? 어듸 상처를 좀 만저보세。내가 보든 못하야도 내손이 약손이라 내손으로 만지면 장독(杖毒)이 천병만마진(千兵萬馬陣)을 물리듯할것 업서진다。(春香의 매마즌다리를 더듬 더듬 만저본다)이매질을 어느놈이 하얏나?

春香 왕방울쇠가 하엿소。

許봉사 그놈이 독하고 모진놈이엿다。이놈 청초에 동정냥을 바드려오면 회해일(禍害日)을 바다주어서 부른배가 터지게하겟다。그래 꿈은 어찌 꾸엇나?

春香 아까 옥사정이와서 하는말이 날이새면 사스도생신이라 생신잔치끄테 죽인다기에 욕사와사 분한마음 머리를 부듸치며 복칭통곡(伏枕痛哭)하자 비몽사몽간에 한꿈을 어덧스니 옥창압헤 피어잇든앵도화 어즈러히 떠러지고 단장하던 큰거울이 한복판이 깨여지고 문우에 허수아비 달녀 뵈이고 옥담에 가마귀안저 까옥 까옥 울어 뵈이니 이것이 흉몽(凶夢)이오 길몽(吉夢)이오?

許봉사 (주머니를 어루만저銀마구리 珊瑚算籌를 끄으려내며) 그러면 위선신수점부터 처보자 이애 내가 네점에 돈을 밧것느냐마는 무물불성(無物不成)이라 돈들안노면 신령이 동하지안는 법이다。

春香 (비녀를빼여 내노흐며)가진것이 이것뿐이니 복채 저다말고 위선신수점을 떠명히 잘처주오。

創作의 方法論에 抗하야 ⑧

李甲基

唯物辯證法이란 定形的 世界觀을 機械로 본다면 作家는 巨大한 機械의 암헤 선 職工에 不過하다。이곳에서는 作家의 個性的表象이라든지 感情的인 諸意欲이 이 世界觀의 定規的

强要에 依하야 絶對의沈默을 직혀야한다。作家는 다만 現實的인 모든 文學的 素材를 原料로 이 機械의 型틀속에다 집어너홈으로써 任務가 끗처진다。그뿐아니라 藝術家는 이 素材를 自由롭게 選擇할 自由도 許與되여잇지안타 맑스主義의 政治中心의 革命的思想은 所謂 創作 스로ー간에 依하야 文學的 素材에 잇서서도 嚴格한 制限을 加하야왓다 『모든 階級鬪爭은 政治鬪爭이다』라고한 맑스의聖書的敎示에依하야 藝術運動을 政治的諸活動의 一翼에다 機械的으로 歸屬식힐려는 文學에對한 지나친謬見은 論外로하드래도 文學製作에잇서서 作家의個性的諸活動과 그素材의 論理的諸規定으로 文學은 完全히 그故鄕에서 放逐되엿스며 한개의 政治思想의 從屬이되엿스며 哲學的諸論理의 形象的解釋으로 滿足하지아니할수가 업시되엿스며 그實演者로서 始終하게되엿든것이다 豊富한多樣性을要求하는

生命의『學』은 完全히『槪念』의 論理로化하얏스며 이곳에서 맑스主義의 生産에對한 工業化의理想은 實現을보게되여 作品은 機械産物과가튼千篇一律의 類型의陳列에 빠지지 안헛든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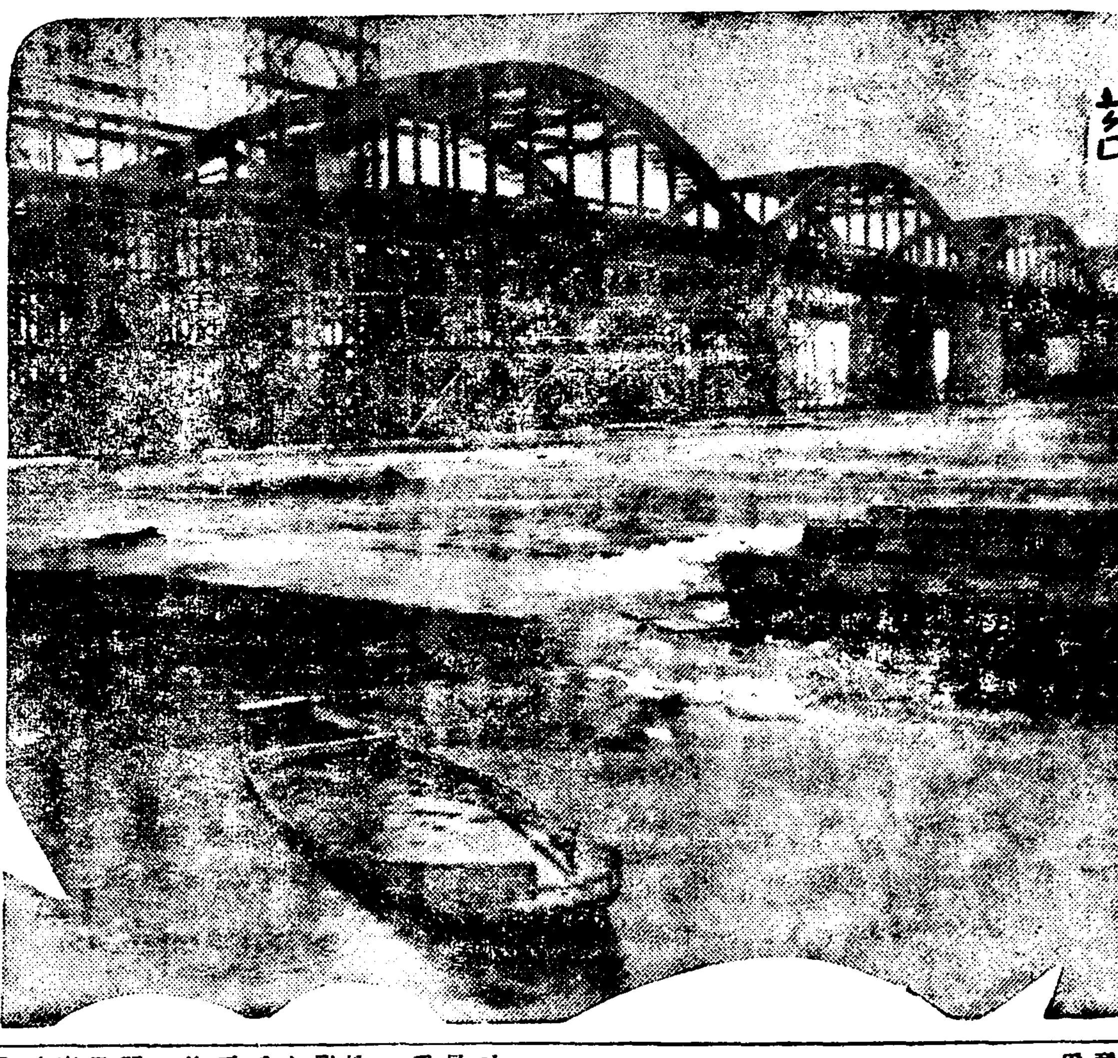
맑스主義文學이 藝術的으로破綻한 根本原因은『文學은 黨의것이라야한다』는『레ー닌』의 文藝政策에關한 冒頭의 命題에따라 藝術的價値를 機械的으로 政治的價値에다 單一化한것에 잇스나 이것을 文學制作上의 問題에다 빗추어보면 이所謂 政治的價値의 獲得을爲하야 創作을 方法論的設計에서 實踐하려는데 잇섯다。

이러한 藝術的方法에對한 回式主義的傾向이 一種의 偏頗한 主知的謬謬에 빠저잇다는것은文學에對하야 若干의常識이라도가진者로서 能히看破할수잇는것이나 맑스主義의全理論的體系에亘한 論理的綜合性과 眞理에關한 熱情的信賴가 한時代의文學의性格을 支配한根本的인要素가 되엿든것이아닐가

허나 藝術的眞實의非論理性은 이러한機械的方法論에依하야 致命的委縮에빠젓든것이아니엿든가 原體作家가 그素材를加工할때 또는 그藝術品을評價할때 斷乎한 判斷을 나릴때 그것이 實踐的諸活動의 過程에對하야 方向과 順序를 주고 同時에 製作된 作品에 完全不完全을 評價할때의 모든 標準을 規定하는 法則을 理論的으로 認識한後에 비로소 實踐할수 잇는것은 實로 藝術의 問題에 限하야 極히 例外的인 인페이다 藝術創作과 方法論과는 因緣업는 分野다 表象은 槪念으로 規定할수업다 萬一 그것이 可能하다면 그表象이란 벌서 죽은標本으로서밧게 볼수업다 通常實際로 創造하는 藝術家는 그藝術의 諸原理에 對하야 正當한 敎示를 주는사람이 아니다 그는 原理와 方法論에 依하야創作하는것도 아니며 規準과 法則에 依하야 評價하는것도 아니다ー創作할때에當하야 作家는 自己의 調和的으로形成된모든 創造的能力의內的活動에 따라 物理에 잇서서는 銳敏하게 發達한 藝術家的 分別力에 따르는것이다。作家에對한 普遍性의 問題는 그의個性的諸能力을 抑壓하는데 잇는것이 아니고作家의 모든表象活動에 世界觀的 基底를 주는데잇다

人間의 文化的實踐에 잇서서 方法論의 不完全性은 藝術에限한것이 아니다 廣義로 解釋할수잇는 技術一般에 잇서도 同一하다。따라서 이것은 學的創作의活動과 그成果의 理論的評價 即寫實法則 理論等의學的基礎의 理論的評價에도 適合한다 方法論과 實踐이 가장一致하는것으로 지금도아직통一般의 理想으로 되여잇는 數學에잇서서도 幾何學의 基礎에關한 究明的으로 解決되여잇지안흔 論爭問題와 無數의 方法의 正當한根據如何의 論爭問題에잇서서는 數學의 體系를수잇는 巧妙한方法을 使用하야도 그方法의 論理的健實性과 그正當한應用의 限界와의 充分한 說明을 주려고하면 實노 無能한것이라고한다 이것으로보아도 하물며 論理에잇서떠난 藝術的眞實의 創造에잇서서 方法論이 얼마만한 効果를내리라는것은 能히推察할수잇는일이다。

陽春路程記



파 (배빈)

어룡의 鐵橋城도 무허지니 겨울은 맛침내 武裝解除를 당햇다。

千軍萬馬와가치 휘달니든스켓을는 季節의退敗인가!

그러나 여긔에 또 狂奔의 攻勢가잇다。노래人가락과 노울소리와 술향긔에 무르녹는 風流를 꿈꾸는 『뽀ー트』

江邊도 都市에 갓가우면 享樂의 場所이되나보다。(細水)

關北紀行斷章 ⑥

起林

18、肉親(가)

"이것두 먹어라" "저것두 먹어라"고 집어 노호시는 바람에

이번에도 또 배탈을 내가지고 도라와다。

19、肉親(나)

담포를 둘러쓰고 十里를 온

누이의 눈섭에는 고조가 달렷다。

어려운 두발을 부억에 떨겨다가 주물러 주며

갈나진 손등의 부스럼 자국을 헤여 본다。

20、出程

두고떠난 그날밤은

食堂의 茶人맛도 유달리 쓰드라。

斷想 不老長生法批判 (上)

鄭權陽

近來新聞雜誌等에는 不老長生이라는怪物이 뛰놀고잇다。不老長生時代를 現出하고잇다。『不老』 『長生』이 두 글자가 가진 一種 不可思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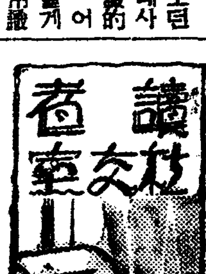
魅力 과 그글字가가진모든 性과 서로關聯하며 좀더오래사러보겟다는 사람마다의 常識的心理에깃드려 不老長生法이 어리석은 現代人을 사로잡고말게되엿다。쩌ー나리즘은 이에常識的인解說을爲하야 紙面을割愛함으로써 그의誠意를表示하고 新聞의廣藥、化粧品等廣告는 不老長生이라는文句를넛치안코는 到底히 効果的일수는업시되여버렷다。좀더 오래사러보자 좀더青春을享樂하자는 淺薄한생각에 사로잡혀잇는 똑똑하여보이며 넘우나 반편이요 어리석은 現代人의눈압헤는 이不老長生이라는것은 더할수업는福音이요 아름다운女神이안일수업다。

이리하야 老人뿐만이 안이요 中年、靑年까지도 强壯劑나 强精劑는 回春劑나 법석들이다。요러現代人의心理를 노칠수업다는드시 독까삔、마무시酒、人蔘엑스、松葉、마늘、무엇무엇 이게되엿다。不老長生이라면 고속홀몬놀 생각하게되리만치되엿다

其他 不老長生法이라고하는바를 드려보자。淸凉하고 溫和하며、空氣조흔곳에 살어라 家屋은넓어야하고 寢室이잇서야하고 樹木花草를심으며

過激 한勞働을避하고 遊蕩을해라 休息을充分히해라 肉食을적게하고 菜食을해라 精神의 過勞를避하고 愉快的生活을하며 營養素를 充分히 取하여야한다。其他에도 여러가지 그럴듯한意見들이 提出되여잇는모양이다 여기서는 月的이다르기에 이만긋치고 以上에가지를批判하야보자 『슈타이나하』의手術은 그當時獨逸서는 相當히宣傳되고 어떤사람은 그의天才를擁護하기도하엿스나 其後 別다른 신통한効果를보여주지못하고 도로혀 그런手術에依하야 大金을빼앗기고非難하는소리만는되가게되엿다 其後獨逸서는 이手術을 不老長生 또는 回春의 目的이아니요 게르만民族의피의 純潔을擁護하는惡質遺傳撲滅策 即斷種法의武器로化하고말게되엿다。여기서도 우리들은 支配階級의 御用醫學의 悲慘한末路를볼수잇다。

讀者交換室



▲李一成氏께。『病院』자리를讓渡할생각이잇사오니 住所를알려주소서 電光一三八九 權丙祐

▲今月十八日 新聞紙上에 下問하신바를 아는대로 쓰겟습니다

記 (太歲는丁巳年)

大正六年陰六月二十四日은 陽曆은 八月十一日 六月月建은 丁未月、六月二十四日 日辰은 乙酉日 寅時는 戊寅時

忠南公州邑常盤町五三 金婉郞

▲讀者諸賢中에左記書籍을所有하신분은 該冊子를 讓渡하실분이 업습잇가? 萬一讓渡하실분이 게시거든 아래住所로 알려주시기를바랍니다

一、東國通鑑(新版)上下一秩 一、四千年文獻通考全一冊 一、全鮮名勝古蹟全一冊、雷峰文集(池德海氏實紀)全

慶北尙州邑南町 池瑛

本人이藥種商(新藥의)試驗을치고저 하오니

一、受驗資格 一、受驗에必要한參考書籍 一、受驗場所 一、受限期日等을알으켜주세요

▲새기와집에 양전한房이 安國洞에 하나잇는데 어떤분이살림안하는분으로 방마세(五圓)에떠가지고 밥은나가잡숫는분이면빌리가 원하시는분은 별궁뒤길가 手藝材料를파는『錦繡舍』에와서 자세한말씀을 무러주시오 (安國洞生)

▲누구시든지 左記雜誌又는新聞을所有한분이 게시면 下記住所로통지又는 郵送하시면 要求하는代金은 勿論薄謝를드리겟습니다 紙上으로通하기보다 直接下記住所로하여주시요

新少年…三三年六月號
同……三一年八月號
同……三三年二月號
어린이 三一年五月號
新少年 三三年四月號
東亞日報 昭和十年一月十五日分
朝鮮日報 同 十二月三日分

外新少年三三、三四年度分에宋徹、宋哲二、宋鐵利의 文藝作品이잇는것과 朝光、東亞日報十年十二月分에鐵利의 作品이실린號를 求합니다

三水郡好仁面仁山里 李曉方 宋鐵亨

▲身體虛弱이甚한 三十男이 體溫을收復코자 附子를服用하라하옵는데 形便上丸藥이나 末이라야 조켓사오며 價格의低廉方策을願하오니 右에經驗이 계신분은 本欄을通하야 詳細히下敎하야주시오면 感謝不已하겟나이다 體質에附子는 適合합니까 (平康 苦悶生)

▲二月十八日附 讀者五、一九五號第五回 讀者社交室欄 徵求生의要求問題中 第一號의答은如左홈

記

一、大正六年(丁巳年)陰六月二十四日은 陽大正六年八月十二日
一、月建은丁未
一、日辰은乙卯
一、寅時는戊寅

(要求博士)

▲本人은約五個月동안 市內某處에서 醫業의 個人敎授를바더오든中 經濟上形便으로 中止하고잇는바 劇團의 歌手를志望하고잇사오니 所望하시는분은 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심을望하나이다 京城府齋洞八四ノ三八 金松樂

▲生은某中等校入學을目的하야 受驗準備에熱中이온데 初等學校六學年에 適合한 入學準備用參考方(作文)集新古物을 無關하고 日間買入코저하오니 冊名及原價를明記下敎하야주소서

▲以下列記를下敎하야주시면感謝하겟습니다

一、朝鮮內에서도 每年美展을啓展합니까
二、日本內地에서啓展的에朝鮮人도出品할수잇슬까요以上
三、各啓展的出品手續과 場所時日資格等을下敎하소서
四、入選後엔如何한 名譽를어들까요、
五、二十歲靑年인대 入校는못할形便이고 獨習으로 成功할수잇슬까요

慶北安東郡豊川面河回柳時滄

新刊紹介

▲日蓮聖人讀誦經 安震湖著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二八 卍商會發行 振替京城一三六三八番 定價七十五錢

▲懸吐鮮譯 阿彌陀經 附 八大人覺經 安震湖著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二八 卍商會發行 振替京城一三六三八番 定價二十錢

▲懸吐鮮譯 觀世音普門品經 附 高王經 安震湖著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二八 卍商會發行 振替京城一三六三八番 定價三十錢

▲基督敎報 第四十六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基督敎報社發行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ローマ字 三月號 東京市麴町區丸ノ内三丁目二 ローマ字ひろめ會發行 振替東京九一一番 定價二十錢

▲實生活 三月號 京城府樂園洞三〇〇 實生活社發行 振替京城二一九〇八番 定價十錢

淋疾及合併症新療法

注射 네오가루고노ー겐

(ネオカルゴノーゲン)

迅速히膿을개게하고 白濁을淸澄케하며 疼痛을鎭靜함

淋疾과가티細菌의感染으로因하야 생기는疾病에는細菌學的療法이가장合理的으로奏効하고淋菌의撲滅이라는根本的治療를 해볼수잇는것이다

그런데從來의 許多한藥劑는化學藥의힘으로 鎭痛止膿効果를엇기에만汲汲한現狀이다

本劑는 細菌學的治療로 淋菌왁친을 主體로삼고게다가消炎、鎭痛、利尿、防腐의效果가잇는칼슘及우로사민등을配合하야 만든것으로서 通常淋菌왁친과달라서 獨特한 處理法에依하야 고抗原量을數倍量이나엇엇다

卽三—五回의注射로完全히淋疾의疼痛、排膿、下腹部膨滿等의 自覺症狀을消滅하고 尿의白濁을淸澄케하야 顯微鏡下에檢査하여도 淋菌의消失을보게된다

右와가티本劑는 多數한醫家의 絶讚하시는바로 그臨床實驗에잇서 그偉効를顯出하야 顯著한治療成績을 收得하엿다

特히淋毒性合併症、睾丸炎、攝護腺炎、膀胱炎、又婦人의 子宮內膜炎、卵巢炎、喇叭管炎에는手術할밧게 道理가업는境遇에도本劑의 注射로能히 治療할수가잇다

用法 一回一筒(二〇CC)隔日로靜脈內에注射함

包裝 五管入 拾管入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特約店

京城本町二丁目 山岸藥店 / 平壤府大和町 猪名千壽堂藥店
同 同 古城藥店 / 同 森田眞榮堂藥店
同 同二丁目 北島藥店 / 同 日新堂藥房
同 同 阿部昏藥店 / 同南大門通 木下康藥店
同 同三丁目 森川回天堂藥店 / 木浦大和町 伊藤朝太郞藥店
同 同 木村眞三郞藥店 / 木浦榮山町 佐伯仁正堂藥店
同 同 新井藥房 / 大邱府大和町一 岡田回春堂
同 南大門通二 坂井峰太郞藥店 / 同 元町 木下忠藥房
同 明治町二丁目 大矢晉松藥店 / 全羅南道光州北門 田島宇蔵藥店
釜山府本町 大黑南海堂藥店 / 全羅北道全州本町 石田清生堂藥店
同 辨天町 藤田悌三郞藥店 / 元山府本町二丁目 山野藥業堂支店
同 同 ヤマノ藥業堂 / 清津明治町 稻垣日本堂
同 寶水町三丁目 石見屋藥局 / 羅南生駒町 伊藤藥店
馬山府都町 / 元山旭町

黃昏 【40】

韓雪野 作
安夕影 畵

그들의문답(六)

『갈배 동동, 울배 동동……』
하는 목동의 노래를 부르며 소배부르기를 기다리든 그시절의 기억과가터 여러가지쓰고 단 옛기억이 되살아오는 것이엇다。

봄들로『메와』『나시와달내 캐러 다닐때에 렴석하고 보고 미人속의 것을 차다가 움집웅질 쉽어먹든 싱숭우려기 어린 주직을, 한선날, 대보름날 널뛰기판으로 술술 쪼차다니며『바재』스구멍으로 엿보든 웃총각때의 주식을, 려순은 생각해내엇다。그어느때인지, 한번은 전찬은일로 면상을 잡고 어우러지게 싸운일도 잇다。

그러건만, 제일 친하든것은 준식이엇다。

려순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잇는동안, 준식은 딴생각을 하고잇섯다。

사실 준식이가 제일 알고십흔것은 무엇보다도 요사이의 회사내정이다。개중에도、직접자거들과 관게를 가진 주임이무슨생각을 가지고 사장실로 들어가는지? 무슨 이애기가 그들의사이에 박귀여지는지?를알고십헛다。회사혁신에 대한 이애겨를 그들도 대강 듯고잇섯스며、한편의 확장이、한편의정리로 낫하날것도 히미하게나마 눈치차리고 잇섯든것이다。

그래서 사실인즉、주임의 신랑으로 이애기를 끄려가라고 정님의 말을 창황히 이끄려왓든것이며、따라서 아알고십흔 어구에까지 말을 전개식혓든것이다。

그는 정님이와 학생물림과주임의 삼각관게에 대하야 다시 멧마듸 더 말한다음、

『참말 털보가 정님이를 가어히 재사무실에 두라고 사장에게 청대려 가는게 아닌지 몰라?』

『글세요……………』

하고 려순의 눈치를 본다。

사실 려순은 금시초문이다。

『요새 사장실로 자루 들어가지요?』

『네――』

『어제 수상하지 안어요? 하는품이……』

『두사이스문을 닷고 애길해서 제방에선 들리지안어요』

하다가려순은 문득생각이나서

『참말 그저께는 무슨 긔게목록가튼것을 가지고 애기하든군요』

하고 그때 본대로 대강 말한다。

『오래 애기 헤서요?』

하는 준식은 속으로뭐가단 하는생각을 헷스나 내색은 내지안엇다。

『한참 실이 헤서요。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주임이…… 그럼 그러케 알구 나가겟다고…… ……그러며 픽 마죽해 하는 낫색이드군요。그러치만、기계목록을 소집하며 정새해서 말하는품이 녀자 애기 갓지는안어요』

『하하그럼 그애긴가 부군요? 전부 색기게를 드려놋는다든…… ……』

『글세요……』

하다가 려순은 별안간 또생각난드시 말을 잇는다――

『주임이 나가다음에、경제씨가――그전사장 아드님 말이애요 그가 와서 애길 하는데、인사문제가 가장 어려운거니까 함부로 하다가는 되려 낭패가 된다고 하드군요』

『사장은 뭐레요』

『자센 몰을엇서두、댓바람에 흥두께 내밀드시 헤서는 않될거지만、거게는 또 그만한 방칩이 잇지안켓는가구요。그러며 자기의권만 욱이는모양이여요』

『그건、전부터 잇는 말이니까 조마간 그러케 될테지요』

『그리구 참 어제께 또 무슨 회의가 잇섯서요。전무이하서무과장과 인사과장이 오고 또공장주임도 낭중에 왓서요』

『역시 그애길테지요?』

『글세요。문이 다처서 잘들리진 안어도、각과장들이 서류를 내노코 설명하다가 잇다금 공장주임데려 무슨말을 뭇는것이 멀지 그애긴 가봐요』

『하하』

『그리구 참、무슨 도면(圖面)과 좋게표 가튼것도 잇섯서요』

하는 려순의 말을 바더가지고、준식은 좀더 자세 알아보려 하엿스나 려순은 그이상 아는것이 업섯다。

해서 준식은 한편 유감된 생각이 잇섯스나 조금도 그런티를 보이지안코

『하여간 려순씨가 게시니까 인젠 소식이라두 자루 어데 듯게됏습니다』

하고 웃음을 짓는다。

그는、려순이가 좀더 눈스거빠르고 알심잇게 내정을 탐사해 주엇스면 하고 바랏다。

그리하야 그는 어데대한 한마듸 암시의말을 잇지안엇다――

『인제 좀 자루、애기할만한재료를 만들어 주십시요』

라디오

十九日(木曜)

◇午後六時 童話"소리업는鐘" 鄭奎浣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國語』 田川孝雄
◇同七時三〇分 園藝講座(二)園"藝農業의諸般準備" 金雄珏
◇同八時 獨唱 一、歌劇『로헹그린』中에서…바그너作曲 二、告白…베-토-벤作曲 三、小夜曲…슈-베-르作曲 四、간지스江…스칼라띄作曲 五、마리아·마리…카푸아作曲 安輔承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夢中歌" 曺鶴鎭 鼓手 韓成俊
◇同九時 連續野談"斗獄神由來"(第一席) 尹白南

第一放送
◇午後六時 箏曲
◇同七時三〇分 講演
◇午後八時 (大) 民謠
◇同八時二〇分 (東) 淸元
◇同八時五〇分 (大) 浪花節

二十日(金曜)

◇午後〇時〇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아리 四、굿거리 奚琴 金德鎭 大笒 方龍鉉 細篴 韓成俊 杖鼓 池九龍
◇同三時一五分 趣味講座『근三는草木들』 李德鳳
◇同六時 노래공부 (一)、물오리 睦一信謠 玄雲田外寶演兒童數名 二、개나리꼿 朴世永謠 同 復習時間『算術』 ?俊與
◇同七時 世專新入生發表
◇同七時三〇分 園藝講座『園藝作物의播種』 金雄珏
◇同八時 (東) 파이프오르간… 日本橋三越로부터中繼 一、봄의山을넘…프리믈作曲 二、洪牙利舞曲 第五番 브람스作曲 三、人形의結婚式…브라운作曲 四、星條旗여永遠하라…수-자作曲
◇同八時三〇分 小春香歌外 一、小春香歌 二、平壤歌 三、달거리 四、노래가락 朴牧丹 李竹葉
◇同九時 連續野談『斗獄神由來』(第二席) 尹白南

第一放送
◇午前十時三〇分 (東) 어머니講座
◇午後〇時五分 (東) 漫談
◇同二時 (大) 婦人의時間
◇同六時 (東) 노래공부
◇同七時三〇分 (東) 어린이와家庭의밤
◇同八時 (東) 파이프오르간
◇同八時三〇分 (東) 라듸오·드라마

二十一日(土曜)

◇午後〇時五〇分 伽倻琴併唱 一、短歌『竹杖芒鞋』 二、唱琴調『바라령』 丁南希 鼓手 丁元變
◇同一時二五分 獨唱과管絃樂(레코-드演奏)
◇同六時 노래공부(二) 一、물오리 睦一信謠 玄雲曲 二、개나리꼿 朴世永謠 玄雲曲 外寶演兒童數名
◇同六時二五分 講演 春季皇靈祭를當하야 沈宜麟
◇同七時三〇分 音律 一、平調會像 二、吹打 三、與民樂 玄琴 金雨媖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 野談『靑鳥』 申鼎言
◇同八時三〇分(東) 獨唱 第一部 一、세계의日本詩 스트라빈스키作曲 二、자장가 그라챠니노프作曲 第二部 外一曲 第三部 一、바다저편 北原白秋作調 山田耕作作曲 一、보리타작의노래 外二曲 藤原義江 피아노伴奏 高木東六
◇同九時五分 歌詞 一、白鷗詞 二、漁夫歌 文山紅 文明仙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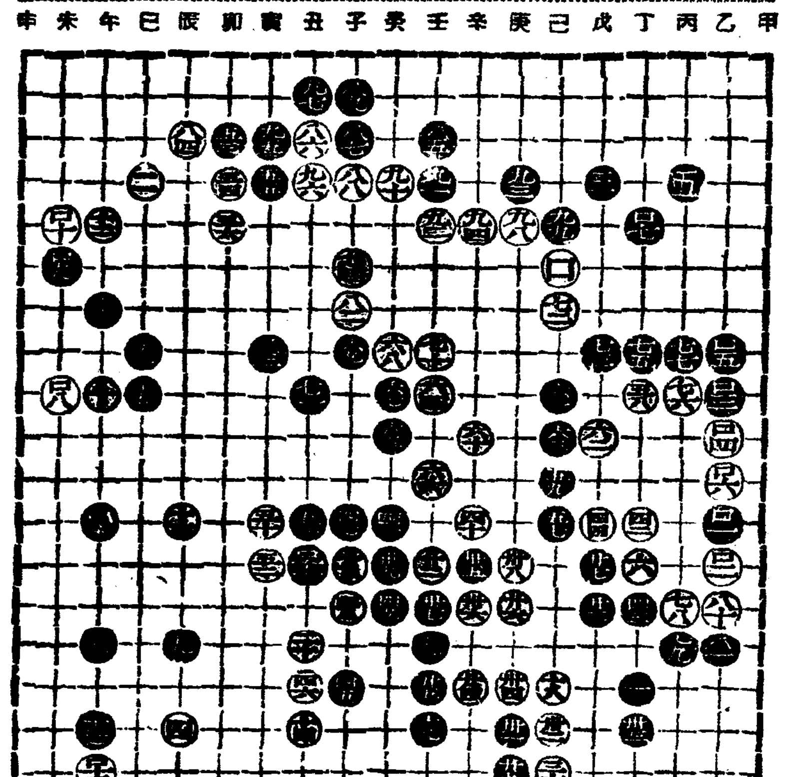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前一一時(東) 彼岸會法要
◇午後〇時三〇分(東) 雅樂
◇同一時一〇分(名) 琵琶合奏
◇同一時四〇分(大) 義太夫
◇同二時二〇分(東) 映畵劇
◇同六時(東) 이야기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 全國靑年라듸오辯論大會
◇同八時三〇分(東) 獨唱
◇同九時五分(名) 歌謠曲

曆

三月二十日(金) 二月建辛卯小(二十七日) 辛丑·土·婁·開
●祭祀에食할
●年齡六日(舊十二日)
●春分二十一日(舊二十八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7=

白 丁奎春
黑先 權秉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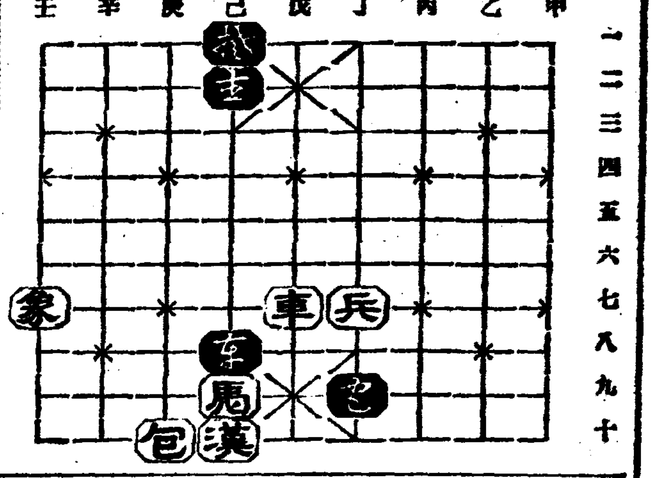
●九七 丑의二
○九八 庚의五
●九九 己의五
○一〇〇 己의六
●一〇一 乙의十二
○一〇二 乙의十三
●一〇三 乙의九
○一〇四 乙의十
●一〇五 乙의八
○一〇六 乙의十一
●一〇七 丁의五
○一〇八 未의九
●一〇九 未의六
○一一〇 未의五
●一一一 丑의十三
○一一二 午의十八

◆觀戰者談 黑三(乙의九)으로 丙의二二에 逃立하면 白의安危如何 同好人士의 高見에任코저하노라 黑一七(丁의五)은 保守堅手之策의 善手이다 白一二(午의一八)은 絶對必要이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十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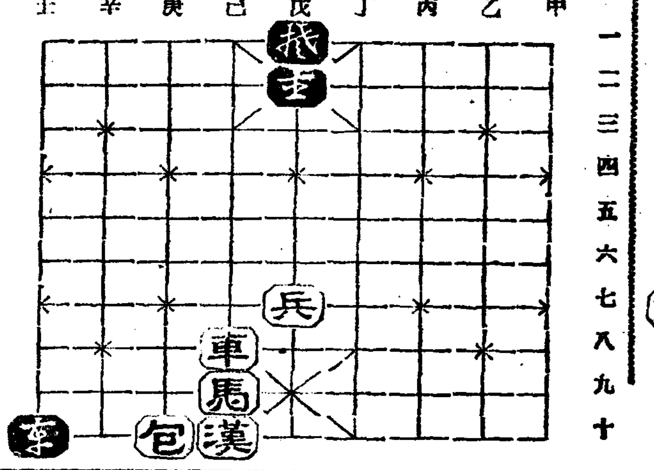
漢一兵 手先 李在鳳 對 金漢奎

◀百三十手圖▶



◀百四十手圖▶

戊十車—戊九 己八[illegible]—己七 戊九車—丁九打包 己七[illegible]—壬七打象 丁七兵—戊七 己三[illegible]—戊三 丁九車—戊九 壬七[illegible]—手 戊九車—己九呼將 己二[illegible]—戊一



學校入學試驗問題

京城公立女子高等普通學校

國語科 （第二日 其二）

一、一切經ノ大出版ガ途ニ完成セラレタノハ、ドンナ力ニヨルト書イテアルカ。次ノ文ニヨツイテソレト思フトコロニ——線ヲ引キナサイ。

二度資を集めて二度散じたる鐵眼は、終に奮って第三回の募集に着手せり。鐵眼の深大なる慈悲心と、あくまで初一念をひるがへざる熱心とは、强く人々を感動せしめしにや、喜んで寄附するもの意外に多く、此の度は製版・印刷の業着々として進みたり。かくて鐵眼が此の大事業を思ひ立ちしより十七年、即ち天和元年に至りて、一切經六千九百五十六卷の大出版は遂に完成せられたり。

二、次ノ語句漢字ニヨミガナヲツケ下ニワカリヤスク說明シナサイ。
1、臨終
2、論語
3、丸木舟
4、餘念なく

國語科 （第二日 其三）

一、次ノ文中ノカタカナ書キノトコロニ漢字ヲ入レナサイ。
イシ、カヒ、カチク、ジウヒ、ヌノ、ノウサンブツなどが、ジダイにより バショによつて、それぞれ クワヘイ の ヤクメ をしたこともあつた。

二、『恩に報いる』トイフ事ニツイテ自分ノ思ツテヰルコトヲ文ニ綴リナサイ。

三、次ノ文中ノカタカナ書キノトコロニ漢字ヲ入レナサイ。
バウフウが、時にガウウをトモナひ ダイゴウズイを オコすのは ジヤウシヨウする クウキチユウに タリヤウ の スジヨウキ をフクんでゐるためである。

算術科 （第一日 其一）

次ノ計算ヲセヨ（整數ノ答ハ整數第三位マデ求メ下ハ四捨五入セヨ小數ノ答ハ小數第二位マデ求メ下ハ四捨五入セヨ）

1 (1) 9245 2737 5488 +9576 (2) 3684 9378 5253 +3469 (3) 4623 9364 7958 +4325
(4) 7896 2389 9268 +3574 (5) 9802 −6246 (6) 7721 −1841
(7) 4944 −1295 (8) 3208 −1738

2 (1) 82.46 × 2.9 (2) 35.79 × 7.3
(3) 5.739 × 85 (4) 264.8 × 0.46
(5) 5)47670 (6) 6)44563
(7) 7)90839 (8) 8)53832

3 (1) $21\div(1\frac{3}{4}\times2\frac{2}{9})$
(2) $4+(3\frac{1}{2}\times1\frac{1}{7})\times\frac{1}{6}$
(3) $1\frac{3}{125}\div(\frac{1}{5}+\frac{3}{25}+\frac{8}{75})$
(4) $3\frac{3}{4}\times6\frac{2}{3}\div4\div18\frac{3}{4}$

算術科 第一日(其二)

ドノ問題モ式ト運算ト答トヲカキナサイ。

4 1m平方ノ正方形ト直徑1mノ圓トガアル。
(イ) 周ハドチラガドレダケ長イカ。
(ロ) 面積ハドチラガドレダケ大キイカ。
答

5 月利ガ1分5厘デ11月間ノ元利合計ガ1980圓50錢デアルト元金ハ幾ラカ。
答

6 銀ノ目方ハ同ジ體積ノアルミニウムノ目方ノ3.9倍デ アルミニウムノ目方ハ同ジ體積ノ水ノ2,7倍デアル。銀5000ノ目方ハ幾gカ。
答

7 某電氣會社ノ電燈料ハ1月毎ニ計算シ、1キロワツト時ガ16錢ノ割デ、キロワツト時ノ數ガ數電燈ノヲ 超エルト 超エタ部分ニ對シテハ電燈ノ數マデ14錢ノ割デ、外ニ配線貸付料トシテ1燈ニツキ5錢ト電力計貸付料トシテ5燈ハ20錢デアル。或家ニ5燈アツテ或月ニ8キロワツト時使ツタ、此ノ月ノ電燈料ハ幾ラデアルカ。

算術科 （第二日其三）

1、次ノ式ノ□ハ如何ナル數カ。
(イ) 3圓:1圓50錢=60m:□
(ロ) 3.4×□=11.56
(ハ) $□-\frac{4}{3}=2\frac{1}{5}$
(ニ) $\frac{4}{5}=\frac{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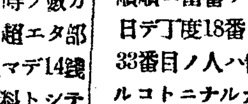
2、甲乙丙三人ノ年ノ和ハ31デ甲乙ノ年ノ和ハ23, 乙丙ノ和ハ18デアル．甲乙丙三人ノ年ハ各幾ツカ．
（式ト運算ト答）
答

3、或ル人ガ山ヘ登ルノニ午前九時ニ家ヲ出テ每時2 km ノ速サデ正午ニ山ノ上ニツイタ，山ノ上デ一時間休ンデ下リハ每時3 km ノ速サデアルト何時ニ家ニ歸リツクカ．
（式ト運算ト答）
答

算術科 （第二日其四）

ドノ問題モ式ト運算ト答トヲカキナサイ．

4、下ノ圖ノ三角形デいノ角ハ80。デろノ角ハはノ角ノ 3倍デアル．ろ,はノ各ノ角ハ何度カ



答

5、月曜日カラ每日同ジ人數ツヾ順番ニ當番ヲシテ第二週ノ水曜日デ丁度18番目ノ人マデヤツタ33番目ノ人ハ何曜日ノ當番ヲスルコトニナルカ.日曜日ニハ當番ヲシナイ．
答

6、賃貸價格2500圓ノ宅地ヲ持ツテ居ル人ハ每回ニ地租何程ヲ納メルカ、宅地租ハ年二回ニ納メル、地租率ハ土地ノドンナ種類デモ其ノ 賃貸價格ノ100 分ノ3,8デアル
答

7、小賣商人ガ仕入品ニ3割5分ノ利益ヲ見積ツテ定價ヲ附ケタガ買手ガナイノデ定價ノ8掛デ賣ツテ17圓28錢ヲ得タ幾ラノ益ガアツタカ、損ガアツタカ
答

國語科(甲)第一日分

一、次の文を口語體の文に直しなさい。
(1)海まき上ぐるたつまきも、起らば起れ、懼かじ。
答
(2)人人其の望む所を修め、志すまゝに學び得るに至れり。
答

二、次の文のわけを書きなさい。
李退溪先生は、赤貧の中に人となりしが、健氣なる陸の秋を守りて學問にいそしみぬ。
答

三、次の文中——のひいてある言葉を使つて、それぞれ一つづつの短い文を作りなさい。
(1)市街の中央を東西に貫ぬく幅百メートル餘の大通は、むしろ公園とも いふべきものである。
答（むしろ）
(2)地下鐵道、乘合自動車などの乘下りにも、むやみに先を爭ふやうなことはありません。
答（先を爭ふ）

四、綴方
左の文題で文を綴りなさい。
答

算術科 （第一日分）

(1)次ノ式ヲ計算セヨ。
37.8×1.5÷(7.5−4.8)×16+57 0÷5 （運算ト答）
(2)次ノ式ヲ計算セヨ。
$(2\frac{1}{2}+\frac{1}{8})\div(5\frac{3}{10}-3\frac{4}{5})\times(3\frac{11}{14}-2\frac{1}{21}-1\frac{1}{6})$ （運算ト答）
(3)男生徒ノ學級ハ45人アツテソノ平均身長ハ136糎女生徒ノ學級ハ36人アツテソノ平均身長ハ121糎デアル。男生徒女生徒合セテノ平均身長ハ何程デアルカ。（糎マデ出シソノ下ハ四捨五入セヨ） （式ト運算ト答）
答
(4)1分間ニ甲ハ375mヅツ乙ハ225mヅツ走ル。甲乙2人ガ同所カラ同時ニ出カケテ反對ノ向キニ池ノ周圍ヲ走ツタラ2分デ出會ツタ。コノ2人ガ同時ニ同所カラ同ジ向キニコノ池ノ周圍ヲ走ツタラ再ビ一所ニナルマデニハ何分カカルカ。（式ト運算ト答）
(5)あじや洲ノ面積ハ地球全表面ノ$\frac{2}{25}$デ全陸地ノ$\frac{8}{25}$デアル、陸ト海ハ各全表面ノ幾分ノ幾ツカ。
（式ト運算ト答）
(6)12人デ15日間ニ或仕事ノ$\frac{1}{3}$ヲシタ、殘リヲ18日間ニスルニハ人數幾人ヲ增サネバナラヌカ、
（式ト運算ト答）
(7)或人ガ 鷄卵600箇ヲ18圓デ仕入レタトコロ其ノ中ノ36箇ハコハレテ居リ、4分ハ腐ツテ居タ、ヨイモノヲ1箇ニツキ4錢ニ賣レバ利益ハ幾割カ、
（式ト運算ト答）
(8)元金1500圓ヲ年利6分ノ複利デ預ケルノト單利デ預ケルノトハ2年間ニハ利息ノ差ハ何程トナルカ、 （式ト運算ト答）

國語科（乙）一日分

一、次の文を口語體の文に直しなさい。
(1) 海まき上ぐるたつまきも、起らば起れ、懼かじ。
答
(2) 林藏の探檢によりて、樺太の事情も始めて我が國に知らるゝに至れり。
答

二、次の文のわけを書きなさい。
鐵舶は、心構せし樣なりしが、筒筆も取らで數日を過しぬ。
答

三、次の文中——のひいてある言葉を使つて、それぞれ一つづつの短い文を作りなさい。
(1) 市街の中央を東西に貫ぬく幅六十間の大通は、むしろ公園ともいふべきものである。
答（むしろ）
(2) 道下鐵道・乘合自動車などの乘り下りにも、むやみに先を爭ふやうなことはありません。
答（先を爭ふ）

四、綴方
左の文題で文を綴りなさい。

國語科 （甲)第二日分

一、次の——のひいてある言葉にかな假名をつけなさい。
純潔。明朗。吹雪。著述。野邊 爆擊。雜草。探る。名殘を惜しむ。街路樹の木陰に遊んでゐた 悉く救助の用に當てたりき。

二、次の文中——のひいてある片假名(かたなが)を、漢字で括弧(かつこ)内に書入れなさい。
シ( )設經エイ( )よろしきを得る。
カンシヤ( )の外ありません
其のソウカン( )實にヒツゼツ( )のツ( )〜すところでない。
テキギ( )、シヤシン( )をソ( )へて
インサツ( )部に廻す。
帝國ギカイ( )のキヨウサン( )經をなければならぬ。

三、次の文を讀んで、後(あと)の(1)から(6)までの問に答へなさい。

豐前(ぶぜん)の 中津(なかつ) から西へ 十二キロ、激流岩をかむ山國川を右に見て、川沿の道をたどつて行へと、左手の山は次第に頭上にせまり、遂には道の前面に突つて人の行手をさへぎつてしまふ。これからが世に恐しい青のくさり戶である。享保(きようほう) の頃の事であつた。此の青のくさり戶にさしかゝる手前、道をさへぎつて立つ岩山に、毎日每日根氣よくのみを振るつて、餘念なく穴を掘つてゐる僧があつた。幾年かたつ中に、穴はだんだん奧行を加へて、既に數十メートルといふ深さに達した。

此の洞穴(ほら)と、十年一日の如く默默としてのみの手を休めない僧の根氣とを見た村のくゝは、今更のやうに驚いた。

出來る氣づかひはないと見くびつてゐた岩山の掘拔も、これではどうにか出來さうである。一念こつた不斷の努力は恐しいものであると思ひつくと、此の見る影もない老僧の姿が、急に尊いものに見え出した。そこで人人はいつそ我我も出來るだけ此の仕事を助けて、一日も早く洞門を開通し、老僧の命のある中に其の志を遂げさせると共に、我我もあのくさり戶を渡る難儀をのがれようではないかと相談して、其の方法をも取りきめた。其の後は老僧と共に洞の中でのみを振るふ者もあり、費用を寄捨する者もあつて、仕事もいたはかどつて來た。しかし人は物にうみ易い。からして幾年か過ぎす中に、村の人人は此のにあきて來た。手傳をする者が一人へり二人へりして、はては又村全體が此の老僧離れるやうになつ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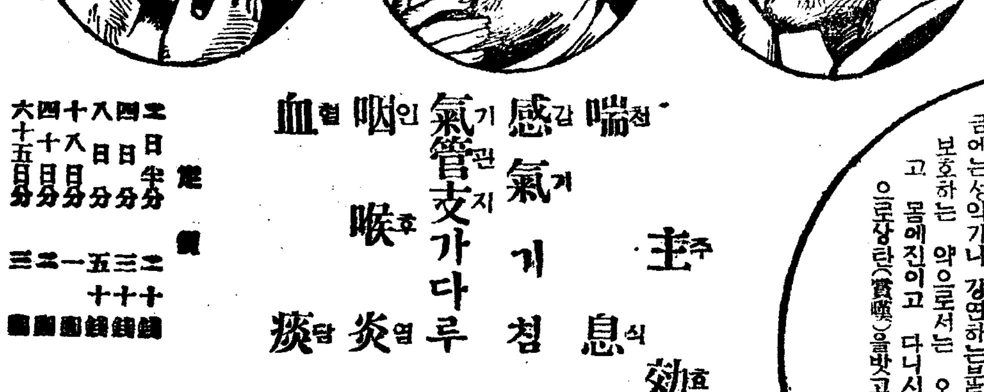
けれども老僧は更にとんじやくしない。彼の初一念は年と共に益益固く、時には夜半までも薄暗い燈を便りに、経文をとなへながら一心にのみを振るふこともあつた。

老僧の終始一貫した根氣は遂に村の人人を恥ぢさせたものか、仕事を助ける者がまたぽつ〳〵と出來て來た。

からして、老僧が始めてのみを此の絕壁に下してからちようど三十年目に、彼が一生を捧げた大工事が見事に出來上つた。洞門の長さは實に百八十メートル餘に及び、川に面した方には所所にあかり取りの窓さへうがつてある。

(1) 老僧の姿が急に尊いものに見え出したのは、なぜですか。
答
(2) 十行目に『其の方法をも取りきめた。』とありますが、其の方法を取りきめてから村人どんなことをしましたか。
答
(3) 村人全體が此の老僧から離れるやうになつたのは、なぜうか。
答
(4) 『老僧は更にとんじやくしない。』とは『何とんじやくしないのですか
答
(5) 十七行目の『からして』とはどうした事をいふのですか。
答
(6) 次の言葉のわけを書きなさい。
イ、激流岩をかむ。
答
ロ、終始一貫した根氣。
答
ハ、寄捨。
答
ニ、初一念。
答

世界어느곳에서도잘팔이는龍角散



喘息 主効 感氣 기침 氣管支가다루 咽喉 炎 血痰
百日咳 呼吸困難 목쉰聲 肺病 기침 홍역 기침

定價 四十五日分 三十錢 八十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五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東京市神田區豐島町 本舖 株式會社 藤井得三郞商店 振替東京 九一番 電話浪花(67)〇〇〇九二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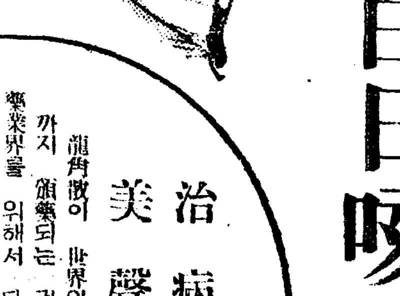
F11—16

登錄商標

龍角散 (룡각산)

龍角散은 누구나 벌서 아시고 게시는바여니지금에는성악가나 강연하는분들이 인후(咽喉)보호하는 약으로서는 오직 이것뿐이라고 몸에진이고 다니시며 이구동성으로상탄(賞嘆)을받고잇습니다

龍角散은治病効果가빠름으로肺病、肋膜炎、肺結核으로變症되을방지합니다。



담기침 천식

流感기침·喘息 百日咳、목쉰데

治病과 美聲도

龍角散이 世界의모든 樞要都市에서까지 領藥되는 권위약으로 되기것은동양藥業界를 위해서 다가티 경하 할바입니다 龍角散은 喉 기침병은 물론이고 아모리중한이 천식이나 백일해라도 단시일에 근치식혀주

國境은까다로운곳 密輸嫌疑者또變死
이번은新義州稅關事件으로 死因에는疑雲이重疊

【新義州】지난 십오일밤 화원(花園)밀수의 혐의로 신의주세관에게붓들려왓든 신의주약죽정(若竹町)거주 김안식(金安植)(三七) 어린청년이 십육일오후 네시경 돌연 세관대합실안에서 사망한 괴사변이잇서 신의주경찰서로부터 장곡천(長谷川)사법주임이하 형사대가 도립의원의관과 가티 현지에 출장검시하얏는데 변사자는 아편을 먹은듯한 형적이 잇다하며 그청년은 십오일밤세관리에게 붓들려왓든 청년으로 자살까지 할리유는 업슬듯하다는바 이괴상한 변사사건은 아직도 해결이 되지못한채로 시체를 가족에게 내여주엇는바 그 가족들은 지난십칠일도 세관에 몰려가 통곡을하며 야료를하얏다 이보다먼저 세관리는 그청년이 사망할때시에 크게 황망하야 부내 명산의원(明山醫院) 의사를 자동차로 다려다가 진찰케하얏스나 그의죽은 다음이엇다는데 세관까지가든 명산의원장 황명곤(黃明坤)씨는 『괴위사망한뒤에 갓슴으로 음독자살인지 구타치사인지 도모지알수가 업섯다』고 말한다

學年延長運動
雲頭公立普校

【雲山】운두 공립보통학교(雲頭公立普通學校)는 소화구년에 개교된바 사회변을 졸업하고 나와서는 대부분 취학할 길이업서서 이곳 저곳으로 방황하게 됨으로 이를 우려한 지방유지급한부형들은 지난십오일 동교에 백여명이 집합하야 후원회를 조직하고 초등교육긔관이나마 완비시겨 문맹에 헤매이는 자녀를 좀더 양육 하려는 열성을품고 학년연장 운동에대활약을 할려이라는데 후원회역원은 다음과 갓다한다

會長 鄭源榮 副會長 金鎔禧 總務 鄭根鶴 顧問 赤尾壽太郞 飯島信吉 林芙三男 新谷康次 評議員 金致煥 金禎根 金貞煥 李碩鉉 朴衡萬 尹泳 南鍾元 許泳振 鄭根鶴 崔鉉載 金鎔輸 尹豊鉉 崔煥俊 幹事 鄭寅漢 尹圭範

年收二百圓未滿者에 戶別稅附加稅賦課를提唱
元山第二教育部會席上에서 某議員의怪常한氣焰

【元山】원산조선인교육 특별경제예산 심의시에 한긔수(韓璣洙)의원은 전원산 조선인호수가 약일만호인데 교육비를 부담하는 호별세부가세(戶別稅附加稅) 부과호수가 이천팔백호밧게 안된다는것은 당국에서 조사를붉충분이한 탓인줄알며 원산에 변수이백원미만자가 불과소수라고 보는데 전호수의 칠활이 면세하고 잇다는것은 제이교육비재원의 빈약을 초래한것이니 좀더 철저히 조사하야 일반에게 부담식히도록 할것이라는 의미의 괴귀염을 토하얏는데 이에 대하야 부당국자는 다음과가티 말하얏다

호별세부가세의 면세점은 변수 이백오십원이나 원산부 제이특별경제의 재정상태는 변수 이백원수입을 표준하야 부과치 안흘수밧게 업스니 그것은 원산의 조선인농호수의 칠활이 변수 이백원미만이기때문이다 즉 호별세부가세의 부담능력자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납세인원이 감소되여교육비 재원에 적지안은지명을 정함으로서이다 고로 그들비민에게 즉변수이백원미만자에게 교육비를 부과한다는것은 가난에 시달니는 사람들더 괴롭히는 결과밧게 안되니 불능하다고 말하얏다 이에 한긔수의원은 다시 인식부족된 자설을 들어 세궁민층에도 교육비를 부과해야되겟다는 보충이잇섯는데 이때 김양근(金楊根)의원은 다음과가티 조선인 로동자의 비참상을들어 그들가를 논한바잇섯다고한다 원산모파업소(鑛業所)에서로동하는 모모동자의 로임을 알아보면 매일오십전이라고한다 이 오십전을 가지고 한집안식구가 생활하는것도 어려우매 여유보다 빗혼지는 형편인데 지난번 입학시에 자긔아동을 입학식혀야되겟는데 입학금 십원을 구할길이업서서 자긔의복을 전당포에 전당하고겨우입학식힌것을 보앗거니와 현하 비참한 생활을하는자에 학교비부과는 불가라고 주장하얏다

道立鐵原醫院에 小兒科設置運動

【鐵原】지난십사일 철원유지간담회석상에서 철원에 의료시설이불완하나 소아과(小兒科)가업는것이 유감이라하야 철원도립의원내에 소아과를 설치운동에 착수하기로하얏다고한다

元興講習所 今春復活開學

【新上】함남정평군 문산면 원봉리(咸南定平郡文山面元峰里)에 잇는 원흥강습소(元興講習所)는 대정십일년 사월에 설립되여린근수개리의 무산아동을 모집하야교수하여오든중 소화팔년십이월에이르러 제일차 정평농조사건(第一次定平農組事件)으로인하야당국의 폐쇄명령을밧고 폐쇄한채금일까지 이르럿는데작년십이월경부터 동강습소를부활시키려고 원봉리 유지들의 발긔로 긔유재산천여원에 천오백원의신재산을 조성하야 합이천오백원의긔본재산을 만들어 금춘사월부터숙망의 개교를하게되리라한다

大大邱建設計畫
面積은現今보다約三倍 人口는十四萬으로增加
明十二年度에는實現

【大邱】대구부에서는 십일년도부터 남조선의 대도시를 건설하고저 대구부린접군인 달성군(達城郡)관내의 수성면(壽城面)달서면(達西面)、성북면(城北面)등의 전부또는 일부를 대구부에 편입하야 행정구역을 확장하고저 재반준비를 다한후 총독부의 의사를 타진한바 도시계획과 행정구역확장은 불리할수업는관계상 단지 구역확장만으로만 인가하지안홀 방침임으로 대구부에서는 도시계획근본조사를 하기위하야 전문인원을 배치하고 종래의 계획을 일신하야 도시계획과 행정구역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조사하기로결정되엿다는데 새방식에의한 계획안과 총독부방침과 절충되리라함으로 소화십일년도에는 호수이만이천호가 삼만호로 인구십만팔천명이 십사만으로 현재면적보담 약삼배나 확장되여 일약남조선의 대도시가 실현되리라한다

前後八回에亘해 五萬圓어치密輸
平壤阿片密輸後聞

【平壤】긔보=평양서에서 검거취조중이든 아편밀수출사건은그후련욱 확대되여안동현에 출동하엿든 형사대는 그곳의 련루자세명을 체포압래하여다가 준엄한 취조를 계속하고잇다 사건의관계자는 부내 서성리(西城里)김진관(金鎭觀)을 위시하여전부 밀매명으로 함북성진(咸北城津)과평양 안동현삼각관계이로 거액의 아편을 밀수하든것인데 김진관을 체포할때에 안동현방면에 밀수코저 징출두려노흔뤄천원가격의아편을 발견압수햇다 련루자들의 자백에 의하면함북산간군부의 화전민(火田民)들이 밀조한 생아편을 사가지고 대리석(代理石)과가티 꾸미어평양에 운반해다가 다시 안동에 밀수출하든것인바 지금까지 한번에 륙천원、전후여덟번에 오만여원의 생아편을 밀수출하든것이판명되엿다한다

咸興興化組合 解散總會紛糾

【咸興】함흥에잇서서 유일한조선인경영의 극장인 동명극장(東明劇場)은 함흥 흥화조합(興化組合)의 경영긔관으로 십수년래경영하여 오든바 작년팔월중순동조합 제이십사 정긔총회에서 흥화조합(興化組合)을 주식회사로 변경하는동시 명칭도 주식회사동명극장으로하자는 결의를 보게되여 이래황항식(黃恒植)씨등 십오명의간부가 그조직준비에 분주활동하여오든바 드디어 지난십륙일 오후세시부터 함흥상업회관내에서 흥화조합 해산총회와 주식회사동명극장 창립총회를 개최하엿는데 개회벽두에 이회합이 결의긔관이냐 동의긔관이냐 하는 즉 동총회의 권한(權限)문제가 론의되어 간부간에의견이 불일치를보아 한참 긴장한비상이엿스나 결국유야무야중에 그냥진행되엿스며 본토에 들어가서 역시조합원중으로부터 흥화조합(興化組合)에는 일주(一株)에 삼십원이라는것이 주식회사동명극장(東明劇場)에진체(振替)하는데는 일주이십오원으로 전부당은 오원이나뎌하하엿느냐고 전제하고서 이에 개하하라 리유(理由)를라고 간부측이 어떠한 즉흥화조합(興化組合)재산중 영업용대지(營業用垈地)일백팔십여평이 평당(坪當)삼십원으로 평가되는데 워 평당시가는 사정평가하야 결국조합원에게 일주오원식 손해보게하느냐고 질문하는 절대다동시 재사정을 요구한다고웨치며 때룡가치하야 김원(金源)배도빈(裵道彬)등오륙명이 찬성을 련발하야 장내는일시 소연하엿는데 이에대한 간부측의 답변은 수개월전에 사정한것으로서 동과(發起)수속을 하는데 중대한것이라는 모호한대답으로 호도하는동시 조합원의량해를구하엿스나 결국김원(金源)은탈회 사오명은긔수권 또인의 불찬성이엇스나 상업회(商業會)측에 이백칠십이표라는 절대다수를가지고잇섯슴으로 다수가결로 그냥통과되엿스나 해산총회입으로 금후불찬성측의 태도가 극히 주목되며 함흥시내상계에 일대센세이숀을 주고잇다

組員六一五人中 負債員四五〇人
負債總額百八十餘萬圓
破産에直面한慶北漁業者

【大邱】경북도에서는 수산어자의 부채조사를 어업조합별로 조사중이든바 실륙일 전반의조사가 완료되엿슴으로 동업부로 발표한바에 의하면 어업자조합원수 오천오백삼십오명중 부채가잇는 조합원이 사천오백삼십사인인바 이에 대한부채액은 어조급수조(漁組及水組)의 부채가 사십만삼천팔백륙십오원 금조(金組)이십사만칠천사백이십구원은행심만천백팔십일팔원 운반업자(運搬業)로부터 일만팔천륙백구십원 도매상(都賣商)으로부터 십일만오천륙백삼십원 개인(個人)팔십오만이백이십원 기타 륙만오천팔백십칠원 합계일백팔십일만삼천오백일원에 달한다는데 리자(利子)의최고는 년사할팔부 평균리자 일할오부의 고리라한다 이고리부채는 년년이 끄리를물고 이상할정도로 증가하는 현상이라는데 이대로 방임한다면 수산업자의 파산은면치못할것이 결국 시일문제라하야 일반은 주목한다하며 각군조합별 부채는 다음과 갓다고 한다

▲慶州(陽南、甘浦二漁組)
(1)組員數五〇三人中 負債組員三二〇人
(2)漁組又水組負債 六八、七四四圓
(3)金組負債 一〇、二二一
(4)銀行 九、六五〇
(5)運搬業者 一〇、四四〇
(6)都賣商 七、一七〇
(7)個人 一〇五、四六五
(8)其他 二三、九七一
計 一六六、九一七

▲迎日郡(長鬐、九龍浦、迎日、曲江、淸河、松羅)六漁組
(1)組員數 二、七〇九人中 負債組員二、二〇〇人
(2)漁組又水組負債 三三二、一九八圓
(3)金組 一四二、七七二
(4)銀行 七四、五二〇
(5)都賣商 七五、五六〇
(6)個人 六六五、三六〇
(7)其他 一九、七八六
計 一、二二〇、一九二

▲盈德郡(江口、盈德、丑山、寧海)四漁組
(1)組合員數 一七〇八人中 負債組員 一五六四人
(2)漁組又水組 七五、三六三圓
(3)金組 六〇、七八八
(4)銀行 二七、八〇〇
(5)運搬業者 八、二五〇
(6)都賣商 二七、九五〇
(7)個人 七二、八七三
(8)其他 三、七〇〇
計 二七六、五二四

▲鬱陵島漁組
(1)組員數 六一五人中 負債組員 四五〇人
(2)漁組又水組 二七、五〇六圓
(3)金組 二三、五四八
(4)都賣商 四、九五〇
(5)個人 六、五六〇
(6)其他 一八、三六〇
計 八〇、九二四

總計一百八十一萬三千五百一圓也

梁元台氏無事釋放

【熙川】평북희천군 장동면 관동(熙川郡長洞面館洞)김윤태(金允台)(二七)의 가정비극에 간부(姦夫)라는 루명을쓰고경찰(警察)에 취조를 밧는동시에 사회주목거리로되엿든 량원태(梁元台)씨는 이즘에와서 진범인 김계송(金啓松)(三一)이가 자백 하얏슴으로 애매히 뒤집어쓰든 루명을 버서버리고 무사히 석방되엿다고 한다

大膽한兇器強盜
蔚山郡下에서一夜五處侵入 現金을強奪코潛跡

【釜山】지난 십륙일오후열한시삼십분경 부터 십칠일오전세시까지 약세시간동안에 경남 울산군 온산면(蔚山郡溫山面)하에 듯기만하야도 무시무시한 식도를가진 삼인조복면강도가 오처에 출몰하얏다한다 동면 리진리(梨津里)농업 김성서(金聖瑞)(五〇)집에 길이약일척가량된 식도를 가진 삼인조복면강도가 침입하야 현금 일천원을 내어노라고 협박한후 주인 김성서를 끌고 집안을 일일이 들추어서 현금십사원오십전을 강탈하고 김성서의 처에게 폭행을 할려다가 강경한 저항으로 뜻을이르지못하고 도주하야서 이웃동리인 삼평리(三平里)음식점 김봉식(金奉植)(四〇)집에 또침입하야 가족을 협박하고 현금팔원오십전을 강탈한후 어여 동리 음식점 김태여(金泰餘)(三〇)집에 침입하야 현금오원삼십전을 강탈하고 또 동리 연초소매인 김과중(金科仲)집에 침입하야 현금 륙원을강탈하고 그길로 동면운화리(雲化里)농업 도룡한(都龍漢)(三八)집에 침입하야 돈을내라고 협박하얏스나 돈이업슴으로 그길로 종적을감추엇다한다 이급보를 접한 울산경찰서에서는 서장이하 서원이총동원하야 현장을조사한후 팔방으로수배하야 범인체포에 맹활동을 개시하고잇는중인데 범행의경로로보아 동래군(東萊郡)하로 도주한듯하야 도경찰부 보안과에서는 인접경찰서에 수배하야 대활동을개시하고잇다한다

全協系金甲煥君 十四日滿期出獄

【大阪】제주도(濟州島)출생으로 대판시동성구저사야정(大阪市東城區猪飼野町)에 거주하고잇든 김갑환(金甲煥)(三一)군은 삼년전에 전협화학노조(全協化學勞組)사건으로 검거되야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일년륙개월의형을 밧고 대판게시형무소에서 복역중이던바 지난 십사일에 만긔출소하엿다고한다

恩露學院에曙光
木下氏四千餘圓의喜捨로 經營權도同時變動

【永登浦】삼십여년의 장구한역사를가지고 이래만흔 인재를육영하여오든 로량진(鷺梁津)은로학교(恩露學校)는 원래여사도길고 빈한한 동리사람들의 미약한 힘을모아 경영하여나려오든 관계상 언제나 파란이 끗칠사이업고 항상경영난에 빠저 몃번이나 교문을 닷첫든일이잇스나 교주·유억겸(兪億兼)리응삼(李應三)차정한(車正煥)리강호(李康□)등제씨와 유지 리석진(李錫□)리원시(李源시)리학수(李鶴秀)외제씨의 열성으로오늘까지 끌어나려오는동안에 사천여원의 만흔 채무를 지고도모지 갈곳길이 막연할뿐아니라 교사가 협착하야 해마다 신학긔가되면 물밀듯 몰녀들어 모다수용할수가 업서서 언제나유감으로 녀이든터인대 금번에로량진명수대(鷺梁津明水臺) 목하영(木下榮)씨가 자진하야 학교부채 사천여원을 변상하기를쾌락하는동시 토지이천오백평을긔부하고 학교를 명수대로 이전신축할것과 종래의 교주들과협력하야 장래영구히 동교경영의책임을 지기로 임이 모든수속을 완료하엿슴으로 이로써존폐기로에서 헤매이든 동교에일조의 서광이빗치여장래 제이세국민교육상 큰도움이되엿다고하야 일반은 새로취임한 교주목하영(木下榮)씨의 특지를감사히 여인다한다

봄다운明朗한뉴-스

남의結婚成就시기려 卅青年이同情呼訴
元山府外星羅里의結婚行進曲

【元山】만물이 소생의 희열에 뛰는 명랑한 봄이가저다주는봄다운결혼행진곡=지난십칠일갈마경찰관주재소(葛麻警察官駐在所)로부터 원산서에 상신된 보고에 의하면 원산부외성라리(元山府外星羅里)에 사는김복길(金福吉)(三一)은 동리에사는현리남(玄利男)이라는 방년 십구세된 처녀와 약삼개월전부터련애를 시작하야서로 백년가약을 맷고 일생을 가티 지나기로 결정한후 쌍방의 부모에게 결혼승락을 청하얏든바 두집부모들은 완강히 이에 반대하얏다고한다 그러나 두젊은남녀의 정열은 부모의 반대야잇건말건 일종 진실하고 강렬하야저서 다른사람의 선망하는적이 될뿐아니라 그들의 사랑은 명랑한 봄빗과 함게 일층 아름답고 빗나기 시작하야 동리에잇든 청년들로 하야금 동정을 불금 하게 되엿다고 한다 그리하야 성라청년 삼십명이 지난십칠일 전긔 갈마주재소에 차저와서 전긔사실을 전하는동시에 그들 두사람이 결혼하도록 힘써달라고 『결혼원』을 신입하얏다고한다 이에 동소에서는 전긔 두사람의 부모들을 출두시켜 잘설복하야 쾌락을어든후 곳 두사람으로하야금 즉석에서 결혼식을거행케하야 자유결혼의 개선가(凱旋歌)를 놉히부르게하얏다고한다

平壤府內各處에 少女誘引魔橫行

【平壤】최근평양부내에는 소녀유인범인들이 발호하여 소녀들을가진 가정에서는 전전긍긍중에잇다 부내 염전리(鹽田里)칠십구번지 김일민(金日敏)의 김영숙(金英淑)(七)은 수일전 장대현유치원(章臺峴幼稚園)에서 돌아오든중 엇더한 남자두명과 녀자한명이 나타나 과자를 사주면서 억지로 끄을고 기다가 다시엇던 사진관에 드리가 사진을 찍은후 다시끄을고 어대로가려하므로 놀내여울고 야단을 하자 그대로 가버려 간신히 집에돌아간사실이잇서 부모들은 경계를하는중이요 이런사건이 부내각유치원 부근을 중심으로 속출하고잇는 관계로 경찰도경계를개시햇다 엇잿든 소녀를가진 가정에서는 주의를 게울니 하지안어야겟다고한다

面長을相對로 寄附金反還訴

【平壤】성천군삼덕면 신덕리(成川郡三德面新德里) 박재순(朴在舜) 박찬필(朴燦弼) 박치록(朴致祿)의 세명은 면장 박번수(朴範洙)를 상대로 긔부금 십구원반환소송을 제긔햇다 삼덕면장 박번수는 소화구년 시월삼일 삼덕면사무소를 건축한다고 면직원을 출장식혀 긔부금을 면민전부에게 바덧스나 소화십년초에 건축한다는 면소는 건축에 착수치안헛슬뿐아니라 도당국의 건축허가도업다 이때문에 박재순은 십원 박찬필은 오원 박치록은 사원을 반환하라고 수차독촉햇섯스나 응치안홈으로 법의힘으로라도 무의한 긔부금은긔어코 도로 차저야겟다는것이다

살길찻는滿洲移民
盈德通過百餘名

【盈德】경북영덕군(盈德郡)으로 강원도계(江原道界)에 접하엿스며 서으로영양(英陽) 청송(靑松)등의군의 교통관문(交通關門)임으로 근일에는 영덕을통과하는 만주이민군(滿洲移民群)을 매일발견할수잇는바 발서백여명의수에 달한다는바 남부녀대로 영덕연두에서 서로붓들고 이별의서러운 눈물을뿌리는정상은 참아볼수업는 정경이라한다

崇義女校
賢母良妻養成이 本校의教育精神
西朝鮮最古의女子中等校

관서지방에서뿐이아니라 전조선 녀자중등교육긔관중에서 가장오래인 력사를가진 숭의녀학교는 지금부터 삼십삼년전인 명치삼십륙년 시월삼십일일 북미합중국 북장로파 외국전도부에서 파견한부인선교사폐스트(양과) 동교설립자인 선우리(鮮于理)양이 부내 경창문안(景昌門內) 현재녀성서학원 긔숙사에서 창립을 보기에일으럿다 이당시의녀자들은 규중에갓치어 인간갓지안은 경멸스러운대우를 밧고잇든 려명과이엇든만큼 생도모집이 어지간이힘들엇고 요행해방을바터 학교에 출석하는생도들도 장옷을쓰고 또는 삿갓을쓰고 보호자들이 호위를하여가지고 래왕하엿다니 지금사람으로는 상상도못할 주위환경에 처해잇섯든것이다

그러나 사면초가중에서도 설립자인 선우리양은 백절불굴의 철석가튼 의긔로 경영하여나아가기때문에 점차일반에게 리해도밧게되여 모혀드든 규수들은 수가격증하게되엇고 명치사십일년에는 감리파와 공동경영하게되여 교세는 더욱확장되엿섯다

대정이년팔월이십오일에는 조선교육령에의하여 총독부지정을바터 수업년한 오학년의 완전한 학교로의 엄연한존재를 보히게되엿고 대정팔년에 감리파는 분리하여 정의녀자고보(正義女高普)를 건설하게되여 시 북장로파단독경영에 환원되여 현재에 일은것이다

현재재적생은 본과(本科)삼백십삼명 보육과(保育科)삼십명합계 삼백사십여명을 이십사명이 꾸준히 교수를 계속하고 잇다 상수구리(上水口里)언덕우에 이풋처고에 소사잇는 아담한 건축물들은 과거오백여명의 일군을 길러내엿고 현재에도 현혁한공헌을하고 잇는숭의 의보금자리이다

긔성팔경의 봉룡문과 룡악산(龍岳山)을 구버보든 숭의동산에서 곱게곱게 자라난 조선의 어머니딸들의 씩씩한 용모를 누가 칭찬치안흘자가 그발자한활동을 시인치안흘자가 그누구드냐? 힌저고리에 물벗치마는 여름의 제복 롬색저고리에 끈색세-루치마는 겨울의 제복이니 숭의의제복을입고 가두에 활보하는현재의 광경과 삼십사변전 옛시대에 삿갓쓰고장옷쓰고 힘어시거려가든 그광경을 대조할제 과연 격세의감이 용당 업지못할것이다

신사참배문제로 일시는 어린가슴들을 압호게도 햇섯지만이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것이므로 언제까지나 최고의 력사를가진 숭의동산만흔 계속될것이다

각색표본의완성 긔숙사 식당 목욕실 세면소 세탁소등 주부도덕을 배호든 온갓긔관이 완비되여잇슴은 물론 긔독주의에 체험하여 품성도야에 진력하는만큼 참말로 녀성다운녀성으로서의 위대성을배화서 어떠한난관이라도 돌파할수잇는 인격을 양성하고잇는것이 숭의학교의모든이다

◇

도와뎌울다고 지혜지식을길러
실로행할복적무엇인가
천하모든집을 회복하게하여한
집되게함이로다
숭의학교 숭의학교
숭의녀중학교 만세만만세
하나님이보호하사
숭의학교 만만세라

(平壤支局一記者)

◇寫眞 同校校舍全景、設立者 鮮于理夫人

私立中等學校巡禮 (六)

中等校合格者

永生女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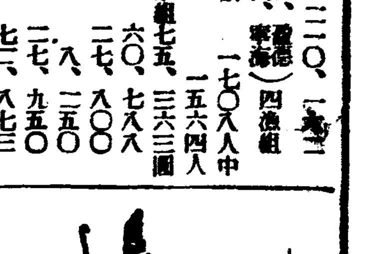
羅貞烈 梁榮菊 崔玉鱗 李順姬 劉鳳順 金順男 李順德 金德實 洪鋼順 金後吉 劉金子 金珖銀 崔順棠 玄淑嬪 黃圭完 洪鎬順 安容姬 宋貴恩 朴斯良 康楚月 金成淑 金成德 朴基南 李貞婦 玄麗姬 金鳳根 李國時 朴賢杰 金永德 李烈貞 楊貞淑 鄭能順 張淑子 崔雙玉 崔後德 韓山玉 韓壬順 金貞福 李仁福 金正俊 金仁淑 李崔一 申粉女 崔山玉 金順福 李福眞 任恩淳 林巨福 金義福 金典福 金愛福 文用吉 金福淑 孔玉順 弓姬敬 李順子 韓壽玉 李惠英 金惠善 李會福 張貞一 盧貞順 金順男 吳金弘 李貞淑 李城福 金貞淑 李畔姬 曹貞俊 金順子 李圭順 李東淑 金元禮 金淑子 李金順 金貞一 元興順 金貴仁淳 鄭吉女 玄源淑 金甲淑 朴鳳順 金貞子 盧昌善 梁順德 宋玉順 金鳳玉 吳國姬 朱嘉淳 李東輝 李福淳 崔綱河 宋仁雙 全炳姑 蔣成蓮 高義淑 金景姬 金順吉 李景德 文后吉 李貞華 金順子 高貞姬 劉春姬 金吉甲 李吉福 洪福淳 金福根 林春實 金敬淑 尹貞烈 金會淑 李竹節 黃貞淑 南宮愛烈 黃鳳順 金貴香 沈玉眠

統營水產校(二十四名)

李根錫 成英錫 朴祥祚 林圭鎭 陳斗用 鄭淳欽 金福得 孫福鎰 姜載興 南鵬浩 朴栽東 金琮濟 金永培 裵潤成 李東興 金福祚 吳孜參 朴鋼斗 白金鐘 朴在杰 金源宗 金大元 金道云 李相雨 李鋼浜 金章洙 李相武 林守元 洪鋼大 姜相輝 鄭昌勳 徐鋼澤 尹甲龜 金道仁

晉州農校(朝鮮人七十四名)

鄭柄文 崔廷一 朴淸徹 權五俊 宋鋼錫 金徽龍 河環柱 李正洙 金相福 愼重勛 朴時榮 朴 泰 金基大 河大植 朴性征 金容字 余重效 孫正模 柳信道 金相柄 李福相 蘇鋼祿 鄭戍龍 河秉太 朴容培 嚴基鶴 鄭在鶴 金鋼孝 金永泰 朴昌洙 金再龍 許 樵 白源基 金樹錫 姜昌柱 黃萬洪 成榮慶 姜均中 朱尤道 兪炳 金德埴 徐圭大 白晋相 金沃權 金洪燁 尹鍼奎 許榮喆 鄭泰禧 李判男 鄭載寬 具炳祖 柳漢俊 朴鋼實 金仁祚 李仁浩 崔鉉亨 方憲源 李炳注 朴海東 金泰鎬 申均寬 盧泳徹 林周燮 辛鋼祐 金魯燦 朴泰圭 李基顯 朴鈴圭 吳昌煥 南海斗 金洪斗 朴淳 楊春培 許憲杆



異次頓의死 【120】
李光洙 作 金奎澤 畫

『그것이라니? 무엇이 엿리가 된단말이오?』

하고 선마로는 더욱 흥분한다 알공은 『흥』하고 코옷슴을하면서、

『공주가 이차돈의 방에를 다녀간 뒤에는 달님이 이차돈의 방에를 들어온단말이오。그런뒤에는 고구려人계집이 들어오고。어떤 때에 별님도 들어오고。이차돈의 방 문人돌저귀에 불이 날 지경이라오。흥。』

하고 음탕하다고 할만한 옷슴을 웃는다。

『설마 그럴라고?』

하고 공목이 알공을 노려보며 낫을 찡긴다。

『공목어손은 이몸의 말이면무엇이나 아니 미드시니까。또이차돈을 숭배하니까』

하고 비정거린다。

『원 큰 일 날 소리를 하오。이몸이 언제 이차돈을 숭배하더란 말요? 원 어린 애를、게다가 중을 숭배라니 원 당치아니한 말도 하오』

하고 공목이 뽑낸다。

『그러면 어이하야 이몸이 하는 말을 아니 미드시오? 이차돈이 그러한일업다 하시오?』

하고 알공이 대든다。

『아니 이차돈이 그런 일이업다고 하는 말이아니라―이몸이니 보지못한 말을 어떠케업다고야 하겟소마는 아녀도 보지는 못하엿슴것을 보고오기나 한것처럼 말슴하니 말이오。아모리 아모리기로 설마 그런일이 궐내에서 잇을 리야잇소? 이몸은 다만 그 말이오。』

하고 공목은 더 말하기를 원치아니하는 모양으로 고개를숙인다。

『허허』

하고 알공은 괴를 내어서、

『그러매로 해괴하단 말이아니오? 대궐 안에서 잇지못할 일이잇스매로 괴변이란 말이아니오? 그러면 여보시오、공목이손、이몸이 업는말을 지어내어서 거짓말을 한다 말이오? 이몸이거짓말을 하면 야청하늘에 벼락을 맛겟소。딸깁 가위가 지나시 못하야 이몸의 목아지가 몸이에서 떨어지겟소。이몸도、차돈의 그해괴망칙한 광경을 눈소 본것도 아니오 귀소 들은것도 아니오마는 눈소 보고 귀소 들은 사람의 엽에서 바로 이 귀로― 흠기는 흠엇지마는 아직도 먹지는 아니하 이 귀로 들은대로 시방 말슴을 엿줍것이란 말이오。거짓말을 하엿다면 이몸에게 말한사람이 거짓말을 한것이지、이몸이、거짓말슴을 지어내인것은아니란 말이오。이몸의 말이 거짓말이면야청하늘에벼락을맛겟소』

하고 또한번 혀를내여 두번이나 벼락을 맛겟다는 맹세를 한것이 겁이 나서 몸에 약간 소름이 끼치면 그런 무서운 말은 하지말것을 하고 후회하엿다。그러나 유신부생에 거짓말도 만히하고 야청하늘에벼락을맛는다고맹세도해보앗스나 아직 벼락을맛은 일도 업고 도자식을 다잡아먹겟다고 맹세한것도 한、두번、열、스무번만도 아니엇스나 자식 손주들도 아모럴 업시 잘 자라나는것을 생각하면 은 하늘이란 그러케 무서운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안심하면서、다시 긔운을 어더、

『공목이손은 공연히 남의 말을 의심하지마시오。이몸이 언제는 거짓말 하는것 보섯소?』

하고 공목을 꼭 눌러노코、선마로를 향하야、

『그런데 말슴이오。그보다 더 큰 일이 잇단 말슴이오。바로 그 자리에 서서 들은 사람의 말인데、도모지 거짓말을 하거나 꾸며대일 사람도 아닌 사람이 바로 제 귀로 들엇다는 말인데、이몸과 꼭 가티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이 돗고와서 하는 말슴인데、무에라는고 하니―도모지 넘어도 해괴해서 말슴 엿줍기도 황송하오마는、이차돈이놈이 그러더라오、백성들을 보고、지금 조정에는 임금을 죽이고 제가 임금이 되라는 놈이―황송하오마는 이차돈이놈이 한 말대로 아뢰는 것이오―임금을 죽이고 제가 임금이 되라는 놈이 잇다고。그 놈은 바로 임금의、―에 참아 다 말슴을 못 엿줍겟소。그리고는 공목이놈이 그놈의――아 참아 때 못 엿줍겟소。그리고는 이차돈이놈의 말이 너히는 그런 놈들을 가만 두느냐고』

하고 점점 험악하여가는 선마로의 얼굴을 본다。

獨逸經濟의實情
自給自足遙遠
● 輸入防止失敗?

獨逸當局의 努力에不拘하고 目下 獨逸의 政治的危機는 더욱 發展되고잇다. 도리켜 히틀러 政府의 實行한 食料品、原料品의 輸入防遏策이 어느程度까지 成功하엿다고 할수잇는가에 對하야 한번 檢討하야 볼 必要가 잇스며 이에 依하야 獨逸의 國際借債를 可히 알수잇는 興味잇는 問題이며 먼저 過去三個年間의 獨逸貿易總額을 一瞥하면

(以下單位百萬마크)

年度	輸入	輸出
一九三四年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五年	[illegible]	[illegible]

昨年은 再昨年에 比하야 輸入이 줄고 輸出이 增加되여 따라서 再昨年의 入超二億八千四百萬馬克에 對하야 昨年은 一億一千百萬馬克의 出超를示하고잇다 그러나 이것을 數量的으로 볼때는 再昨年과 昨年은 出超비 되여잇스나 昨年의 輸入은 다음과가티 再昨年과는 反對로 오히려 再昨年보다 增加된것이 注目된다

(以下單位千噸)

年度	輸入	輸出
一九三四年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五年	[illegible]	[illegible]

이것은即 獨逸政府의 輸入防遏政策에도 不拘하고 獨逸의 物資需要 旺盛의 一端을 보힌 것이라고 하겟다 또、輸入部門別로 檢討하여보면

—(單位千噸)—

	一九三四年	一九三五年
家畜類	[illegible]	[illegible]
飲食料品	[illegible]	[illegible]
半製料品及原料	[illegible]	[illegible]
完製品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으로 減少된것은 飲食料品과 及完製品으로서 原料及半製品의 增加가 注目된다 即獨逸의 輸入防遏政策上으로 보아 飲食料品及 完製品의 輸入減少를 보이는것이 當然할것이며 原料及 半製品의 輸入增加를 보게된 것은 이所謂 自給自足政策의 前途가 遼遠함을 證明하는것이라고

×

한거름을 나아가서 各商品의 輸入 狀況을 보건대 總額에 잇서서 減少를 보히고 잇는 飲食料品도 各種商品別로는 增減이 區區하야 輸入防遏政策의 採用當時에 그 急減을 豫想하엿든 穀類의 輸入減少도 豫想보다 顯著치못하다 即重要穀物輸入의 差引純輸入高를 보면 다음과갓다하다

(以下單位噸 △은純輸出)

	一九三四年	一九三五年
小麥	[illegible]	[illegible]
裸麥	[illegible]	[illegible]
大麥	[illegible]	[illegible]
燕麥	[illegible]	[illegible]

小麥及 大麥等의 輸入이 激減된것은 國內生產의 增加로서 國內生產을 增加하자는 計畫이 適當히 實施되여 잇슴을 볼수가 잇다 그러나 이反面에 再昨年에 輸出超이든 裸麥이 入超로 되고 燕麥의 入超가 激增되엿다 그리고 燕麥以外 飼料의 輸入도 昨年은 再昨年보다 줄엇스나 再再昨年보다는 늘엇다 또 再昨年의 輸入防遏政策의 實施를 豫想하고 激增한 輸入品의 在荷一掃와 同時에 將來商品의 輸入增加을 期待하고 증엇스나 잇다 그리고 砂糖으로 獨逸은 戰前에 있서서 甜菜糖의 大供給國으로 砂糖의 出超國이엿스나 戰後에 있서서 國內의 砂糖生產이 砂糖消費量이 急增한 結果가 아니며 또 國內의 砂糖生產量이 減少된 結果도 아니다 要컨대 以上과가튼 貯藏政策으로 因한 것이라고 불수가잇다

(以下單位千噸)

一九三三年	一〇、三二一
一九三三一三四年	[illegible]
一九三四一三五年	[illegible]

이形勢가 一變하야 一九三三年以後는 다음과가티 入超를 보히고 잇다

三四年 一六、三三六九 三五年 一〇、三三六五

(以下單位千噸)

메옥 以上과과 가러 砂糖의 輸入增加의 裏面에는 稍히 政府의 政策이 잇다 最近의 精製糖業者는 今年十月以後 그 製糖量을 貯藏하라는 政府의 命令이 公布되도 그 一例이며 이로因하야 稍히 政府의 分量을 貯藏하라는 모양이 잇슴을 推知할수가잇다。 그리하야 砂糖의 輸入이 늘은것은 決코 國內의 砂糖消費量이 急增한 結果가 아니며 또 國內의 砂糖生產量이 減少된 結果도 아니다 要컨대 以上과가튼 貯藏政策으로 因한 것이라고 볼수가잇다 이것은 砂糖生產高는 다음과가티 늘고 잇다

—(續)—

朝鮮粟輸入關稅
又復一年을延長
今月末로有効期間이滿了되야 農林局更新手續中

朝鮮의 粟關稅는 米穀政策의一端으로 昭和八年以來 施行되어오는것인데 이關稅期限은 一個年이며 그期限은 今月末로서 到來할것으로 總督府農林局에서는 이期限延長의 手續을 하는中인데 이關稅는 勅令에依하야 期限이 一個年間으로 年年更新을 보아오는것이다

農村生活安定의 諸政策斷行要望
◇……帝國農會決議文

【東京電話同盟】新內閣成立을機로 帝國農會에서는 十七、八의 兩日間 農村委員會를 열고 農政各般의 問題를 協議한結果 다음과가티 決議하고 十八日關係各省當局과 民政政友各黨本部를 訪問하야 決議案의 主旨實現에 關하야 懇談하엿다

現下의 國情은 國防의 充實과 農村의 更生을 基調로한 强固의 國策樹立의 要望됨으로써 國力의 整備와 農村經濟上必要不可缺의 左記諸政策을 斷行하야서 農村生活의 安定을期함을 切望함

一、農村行政機構의改革斷行
二、農村產業團體의 機能發揮에 對한助成
三、農村產業團體의統制斷行
四、米穀自治管理法外二件의制定
五、產繭處理統制法의制定
六、肥料業統制法制定
七、負擔均衡實現
八、農家負擔經費의 徹底的調整과 農村金融의改善
九、農會技術員의俸給 國庫補助增額
十、農業保險制度의確立
十一、土地制度調査會設置

▲聲明書 農村은 國力의源泉으로 그振興을보지안코는 國民經濟의發展을 期할수가업슴은 自明한理致로서 農村行政機構의 獨立强化는 가장 緊要하다고痛感하고 大正十四年農商務省을 分離하야 農林省을 獨立케한것이다 그런데最近一部에 農林商工의 兩省을合倂하야 產業省으로 하라는 意見이잇다고 드럿고 이것은 現下非常時局에處한 國策의根本에 背馳될뿐아니라 時代에逆行함이 甚하다고 말하게된다

電話料金引上
四月一日부터實施

京城、淸津、麗水、城津、永登浦、江陵、平澤、居昌의 各郡市는 電話加入者의 增加에伴하야 四月一日부터 電話의使用料와 其他料金을 引上키로되바 京城의것은 다음과가티 改正되다

	改正料金	舊料金
一般使用料	一二四圓	一〇八圓
加入登記料	二〇	一五
名義變更料	七	五
他人名義掲載料	二〇	一五
重復掲載料	三	二

藏相新政策第一步
公債와米穀證券發行에잇서서
◇條件變更으로決定

【東京電話電通】馬場藏相은 就任과 同時에 低金利의 遂行을 聲明하얏는데 第一着手로 今年度 最終發行公債와 三月二十五日에 借替할 米穀證券의 發行條件을 變更하야 政策實現에第一步를 옴기게되엇다 그러고新規公債의 發行條件을보면 아직 그利下程度는 比較的 低率이며 겨우 發行額의 價格引上을 본데不過하나 馬場藏相이 提唱한 低金利政策이 빨리 公債政策을 通하야 政府의 積極的 指導를 할意向을 明確히 表明하고잇는데 眼目의馬場藏相 金融政策은 當然財界에潛行的으로 誘導하리라고하는데 그前途를 各方面에서 注目하고잇다 한다

△

一、總額 三億一千萬圓
一、發行日 三月十九日
一、發行價格 九十九圓廿五錢
一、利率 年四步
一、期限 二十個年
一、利廻(複利) 四步〇五五
一、發行方法 日銀引受 二億六千萬圓 預金部引受 五千萬圓
一、米穀證券
一、借換總額 一億一千二百萬圓
一、發行日 三月廿五日
一、割引步合 七厘
一、期限 三個月
一、發行方法 日銀引受 三千七百萬圓 預金部引受 七千五百萬圓

米穀證券과 公債發行
割引利率를決定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에依하면 政府는 이번發行할公債證券과 米穀證券의 割引步合을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產業調査會 農林局提案

產業調査會의 農林局提案中 가장 重要視된은 朝鮮의產業第一主義農業의 方向轉換如何인데 으에對하야 農林局內에서도 依然 產業의重要地位를 占하는 米穀生產을보고 이增產政策의 事項을 提議하자는 意見도 잇섯스나 朝鮮米의現勢와 그將來를보고 農林局에서는 產米增殖의提案은 이것을省略하고 그代身으로
一、田作作物의 改良增殖 特히 工業原料關係
一、農業技術의向上、助長、施肥、農具、其他
一、農產品販賣配給의改革等 分野에 對한 產業根本策의 確立에 對하야 一致하엿다 이와가티 農林局의 時潮에 適應한 新方針이 注目된다고 한다。

公債發行條件
前內閣과比較

【東京電話電通】이번 馬場藏相의손으로 새로히 發行된 四分利債와 米穀證券의 發行條件을보면 前內閣最終發行의것에 比較하것은 다음과갓다

公債利廻 三毛七朱引下
米穀證券 日步五毛引下

이것을 詳記하면 다음과갓다

▲公債
一、發行額 新規發行 九十九圓二十五錢 既往 九十八圓五十錢
一、償還期間
一、利廻 新規發行 二十年 既往 二十七年
複利新規 四分五毛五
複利既往 四分九毛二
單利新規 四分六毛七朱
單利既往 四分一厘一毛
▲米穀證券
一、割引日步 新規發行 七厘 既往 七厘五毛
一、償還期限 新規 三個月 既往 六個月

"朝窒의增產中止"
硫化鑛不足이原因
▲……野口朝窒社長談

朝鮮窒素의 硫安五萬噸增產計畫 一時中止는 馬場藏相의 積極的 經濟方針에 脅威바든 結果라고 一般이 解釋하고 各方面에 큰 衝動을 興하얏섯는데 十九日朝 興南으로부터 入京한 野口社長은 如左히 말하엿다。

五萬噸計畫을 一時中止한것은事實이나 이것을馬場藏相의 新方針과相結하야 생각하야서는안된다 中止原因은 各社增產計畫과有力鑛山의 出鑛減少에 依한原料硫化鑛의不足에 基한것이다 即新規硫化鑛의 供給增加方法이講究되지안는 限增產할수업고 이것만 解決되면 곳增產計畫을 實施할러이다 要컨대 全國的으로 보아 經濟的으로 硫黃의 利用方法이 案出되지안는限 硫化鑛의 需給은자못 困難하고 이問題는 朝窒만에 限치안코 各社共히 同樣의 立場에 잇다 在興南工場은 年二十六、七萬噸의 硫化鑛을 消化하고 잇는데 其中十五萬噸은 日本內地로부터 移入되고 殘은 朝鮮內에서 供給되엇섯는바 今後는 朝鮮內의 睡眠鑛山을 極力開發하야 供給量을 增加하여야겟다 云云

郵便爲替取組

全朝鮮郵便局所에서取扱한 二月中의日本內地向郵便爲替의 振出金額은六百四十二萬三千五百三圓이며 日本內地로부터 朝鮮으로向한振出金額은二百十九萬九千二百二十九圓으로 差額三百二十三萬四千二百七十四圓은 朝鮮에서 日本內地로流出되엇셈이다 이를前年二月中의流出高와比較하면 三割四分强이나增加되엿다

中小商工業
振興調査
商議委員會開催

京城商議에서는 昨年中小商工業의 振興具體案을 어들目的으로써 財界各方面의 專門家를 網羅하야 中小商工振興調査委員會를 設置하고 다시 小委員會等을 設置하야 研究하든바 大體成案되엇슴으로 三月三十日 午後三時부터 最後의委員會를 열고 委員二十八名의 參集한뒤 振興具體案에對하야 最後的審議를하고 그結論을 具體化實行에옴기기로되엇다

商銀人事異動
(三月十八日附로)

商銀의支店支配人及支配人代理의 異動이 다음과가티잇섯다고
▲命本町支店支配人 平田友一(營業部副支配人) ▲命康津支店支配人 和久田政(平澤支店支配人) ▲命平澤支店支配人 藤滿(康津支店支配人兼長興支店支配人) ▲命長興支店支配人 槇千樹(長興支店支配人代理) ▲命本店勤務 吉野武人(本町支店支配人) ▲命南大門出張所主任 山口松二郎(營業部支配人代理) ▲命營業部副支配人代理 酒井秀太郎(寧邊支店支配人代理) ▲命寧邊支店支配人代理 金昌權(新義州支店行員) ▲命長興支店支配人代理 上田定雄(本店行員)

更生水利總會
廿五日午前開催

更生水利組合聯合會에서는 廿五日 午前十時부터 總督府會議室에서 總會를 열고 다음과가튼 諸項을 附議키로되엇다
一、十一年度의新豫算에關한件
一、貸付金에 關한件
一、規約改正의件

經濟界消息

○全國貯蓄銀行大會 伊森商取出席＝全國貯蓄銀行大會는 四月十日名古屋에서 열릴터인데 朝鮮貯銀에서는 伊森商取가 出席키로되엇다고
○商工聯合會役員會＝京城商工聯合會는 十九日午後四時 京城호텔에서 役員會를열고 定期總會의 期日、役員의 改選等에關하야 協議할터이라고

今日財界(十九日)

[illegible]

商況 〔十九日〕

株式 戾賣入氣 低落

前場鈍狀 今前場은 大阪不變으로 保合寄後 閑散傍觀이다가 東新은 引際戾賣되어 百三十圓四十錢에 不勢大引되고 大新七十八圓丁에 弱하게 大引되엇스며 朝新二十七圓二十錢 日產七十二圓九十錢 各一本의閑散이엇다

後場低落 後場은 賣氣再退하야 一齊히 低落이엇스니 即東新百三十圓割인 百二十九圓四十錢 大新七十七圓七十錢 朝新百四十二圓九十錢에 떠러지고 不勢大引

不安尙未解消
東新도關門割

電力國家統制를動機로하야 全面的으로 恐怖的慘落을 演코나서 突込의反撥이 산것은 너무나 抽象的의新政綱이라고것이 廣田內閣이오 漠然한만큼 今後實行될 政策이 어떠케 具體的으로 影響을 주게될지를몰라 市場人은 疑心暗鬼裡에 彷徨코잇서 月火兩日에 亘한 恐怖는비록 一巡되엇지만 依然不安이解消되지못하고 將히東新에는 戾賣人氣로서 今前場東新大引은 또百三十圓割인 百二十九圓三十錢이엇섯다

株界前途多難
四月限도問題

財稅와 公債增發、變革을招致하는 財政政策이 果然어떠케 具體化되느냐 株界는薄氷을踏하는것가티 不安裡에 차여잇스며 今後投機株與、堅實株貫有利를唱하는 便이잇스나 그것도 얼는首肯할수업는것이잇스니 即生保、信託等大衆은 持株의 側에서 投出할지 또는 事變直前까지 事業株를 大恐惑한山一證券의 去就가 注視되는만콤 四月限大取組가 當然問題가될것을 생각하면 實際政策具化를바든影響과 相俟하야 株界前途는 尙多難일것으로보인다

實物前場取引

▲電話新 [illegible] ▲朝鮮石油 [illegible] ▲北鮮製紙 [illegible] ▲鹽水港新 [illegible] ▲帝都電鐵 [illegible] ▲麻新 [illegible] ▲小田急 [illegible](取引高 [illegible]枚)

期米 頭重伸惱 細刻

前場引締 昨後場 阪地三十一圓六十八錢止와 共히二十九圓五十四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今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堂島前場應堅

【大阪電話】株의不變과 產地事情의 安定模樣으로 商勢變化가 업고 下一巡인 關係로 一應當然反應로도보이나 新規筋手皆無로 雙方傍觀態度이며 場面은 新 [illegible]

正租依然頑强
全혀賣惜關係

朝鮮의 短期貯藏이 解除된後벌서二十日을經하엿다 解除即後에는少毫도異狀이업시 產地實物이稀薄하더니 昨今에入하야는이러타할만한 顯著한實物은 업스나 奧地로부터 遂次細出하는光景이다 그러데此等의 實物은大部分中農程度의것으로 大農家의 所有는 아즉도 움직이지안코 高米價時代를 期待하고잇다 그러나 安米만으로多少影響을 受할뿐으로 正租는依然强調를支續하고 잇다 要컨대 產地實物이現出한다할지라도 平均實에지나지아니할 일이지안코 實勢威壓을加하기까지에는 相當한 期間이 걸릴모양이다 그럼으로 策戰에잇서서는 產米의事情이 瓦落을許하지안을것갓고도 第三次買上을 아즉實行되지안는다할지라도 未實條件이라 於焉間買氣를 助良하고잇스며 時日을 갈사록 減穀期에 接近하게되는 關係上 押目買의 方針을 取하지안흘수업다고 云云 果如何?

前途反撥乃已?
市勢位置로보아

新甫五月限은 東京事變即後에誕生되어 一時二十八圓七十八錢까지反發하엿스나 米는 株의事情과다르만큼 反히 見落하기始作하야 九十餘丁의 反撥을示한後 三月一日現在日本內地殘存米의 激減을 機로하야 又後一段高値를 示하엿섯다 此에는 利食實物도 現出할뿐더러 株式의大慘落을 唱하자 相俟하야 俄然伸力을 喪失하고 兼하야朝鮮產地의 實物이 稍漸現出함을 따라 商勢一服되엇스나 市勢의 位置로 보면 月初의 卄八圓七十錢臺에比하야 七十餘丁의 上位를 維持하고 一月初의 卅圓〇六錢인 最高天井에 比하야 겨우四十丁內外의 下位에 잇슴으로 大體市勢의 兩强함을 알수잇다 此에서 十分續返할지는몰으나 어떠한 强材가 突發하는때는 卅圓大臺의 突破는 目睫에 잇는것으로 硬派는 看破하고 잇다 果如何?

後場釘着

後場은 二十九圓五十五錢에 四丁低로 寄場後 五節까지 五十八錢 四本同値이고 五十七錢에 止場하다

各地正米

京城强含 實物薄과 定期小康으로 市況이 十錢高인 (三)等二十六圓八十五錢 四等二十六圓五十五錢 一等白米三十一圓五十錢

仁川頑强 奧地의 在米는 相當多額을 示하나 先高豫想으로 賣物을 出치안어 定期小高와 相俟하야 十錢高唱인 丸(三)等二十八圓五十五錢 四等二十八圓二十五錢 一等白米三十一圓

釜山强調 市場實物 二千五百叺、定期頑强으로 所側의 態度가 急硬化되어 市況十五錢高의 强調를 呈하엿스나 商談은 意外로 잘되지안어 取引高가 僅히 九二二十叺 (三)等二十九圓〇五錢 四等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 [illegible]

群山强堅 定期는 意外로 伸惱氣味를 示하나 當用買가 잇고 產地實物減退로 市況이 强堅을 示하야 (三)等二十九圓十五錢 四等二十八圓九十錢 一等白米 [illegible]

大邱頭重 繼續하야 積極的 買氣이업고 雙方이 形勢觀望의 態度로서 市況은 閑散裡에 保合인 (三)等二十八圓六十錢 四等二十八圓三十錢 一等白米 [illegible]

木浦少康 定期保合을보고 商談이小口에限하고 積極注이乏하나 產地가떠러지지안흠으로 市況은小康에回復하야 丸木三等二十九圓〇五錢 四等二十八圓八十五錢 一等白米十三圓丁

市場六感

株 恐怖一過이더니 그대신은 것이 閑散 今前場은 場內가 寂寥할지경 ▲百三十圓도부지하지못하고 東新이또 關門割 ▲十七日低價百二十六圓(當地)는五圓九十錢)이 底가아닌모양 ▲換金心理가 動케되어『將來紙幣』는 咄무엄새가 떠러지리라는 惡性인풍래를 念慮할 程度이니 投機株야 買人氣回復이거의 絕望視되는 實情 ▲總體로 不安人氣가 解消되고 明朗케되기는 틀녀이니 戾賣가압흐로도 勢力을 가지게 될것이오 下支할 買物이 업는 東新은 얼마나떠러 질고야말것인지? 再昨年十一月의 百十九圓九十錢도 얼마남지안헛스니 百圓臺소리가 나오고말것이냐? ▲같은何如間에 統制經濟下의 東新의凋落은막어낼수업는것

米 連日膠着하든 市勢는 今朝부터 그 자취를 떠나는 感이 不無인걸 ▲此에서 硬派의 利用할만한 强材만 잇다하면 三十圓大臺의 突破는 目睫에 잇슬모양 ▲果然 政府의 第三次買上은 何時에나 斷行할모양인구 早晚間에 實施할것만은 事實 ▲買上을 斷行하는때는 그때가 곳 高價를 一巡하게되므로 高價의 賣妙味가 잇다할수잇스나 買上을 實行하기 前이므로 懸然中 買氣를 助長하고 잇슬뿐 ▲朝鮮의 產地實物은 稍稍漸現出하야 市勢의 威脅을 加하는모양이나 正租만은 依然 頑强할뿐인걸 ▲그러고 齋藤 第一期米作은 一時 苗板의 順調로 樂觀氣分이 濃厚하엿스나 昨今에 入하야는 天候의 不順으로 反히 悲觀狀態라고 그래서 昨今의 小堅味를 添한모양 阪地는 今朝七十二錢까지 返戾하엿슴에도 當地는 六十錢을 上廻하지 못하고 五十錢臺에서 伸惱할뿐이다 ▲當地의 惱는 仕手의關係로 보지안흘 수업스나 그러나 阪地가續騰하는때는 울며겨자먹기가 될모양

內地產 精白米、玄米、赤米、中粉米、豆類、黍、糯米
產地直輸入商
釜山大倉町四丁目十五番地
㊗ 合資會社 東一精米所
代表社員 尹貞浩
電話一九九〇番

朝取 米 株 光山
東益夏商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
京城府黃金町三丁目
金益證券株式會社
代表電話本局② 五一〇六番

株式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玉蜀黍購入
五圓二十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着上等麻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產業組合平北寧邊產業組合經由多量買入합니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產工業株式會社

謹告
今般 左記場所에 支店을設置하고 三月十七日부터 開店하와 公社債株式의賣買並諸券에關한 一般業務를 取扱하오니 千萬愛護하야주심을 伏望하옵나이다 略禮이오나 紙上으로써 人事를여쭈옵나이다 敬具
東京市日本橋區兜町一丁目
山一證券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太田收
京城支店長 朝桐尉一
京城支店營業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日生빌
電話本局(長)三五一八(長)三五一九、三五二〇

金融 十九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米國 十九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十九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鋼鐵市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商品 十九日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지카코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朝米 十九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國債 十九日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